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연 구 기 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책 임 연 구 원 진선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실장
아동자립지원단 단장

공 동 연 구 원 이주연 아동자립지원단 과장
주보라 아동자립지원단 주임

요 약	12
제 1 장 서 론	31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2
제2절 자립실태조사 개요	35
제 2 장 이론적 배경	41
제1절 자립지원 관련법	42
제2절 자립지원 전달체계	43
제3절 자립지원제도	45
제 3 장 연구 방법	53
제1절 조사절차 및 내용	54
제2절 조사도구	56
제3절 자료 분석	58
제 4 장 일반적 특성	61
제 5 장 자립지원서비스 현황	65
제1절 자립지원서비스 이용	66
제2절 법적 자립지원의 필요성	74
제3절 자립지원금 활용 현황	90
제 6 장 주거현황	99
제1절 주거이용실태 및 욕구	100



제 7 장 경제현황	119
제1절 지출 및 소득실태	120
제 8 장 진학현황	129
제 9 장 취업현황	143
제10장 건강 및 심리사회적 현황	161
제1절 건강	162
제2절 정서 및 사회성	166
제3절 원가족	178
제4절 보호기관과의 전반적 관계	186
제11장 결론: 논의 및 정책제언	191
설 문 지	197

표 목차

〈표 1〉 보호유형별 조사 참여인원	34
〈표 2〉 실태조사에 참여한 보호종결아동 유형	35
〈표 3〉 보호체계 유형	36
〈표 4〉 2012년과 2016년 조사표 영역 비교	37
〈표 5〉 2012년과 2016년 설문지 구성 비교	37
〈표 6〉 2016년 최종 조사항목	39
〈표 7〉 자립지원 담당기관의 역할과 기능	44
〈표 8〉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현황	45
〈표 9〉 보호체계별 자립정착금 지원현황	46
〈표 10〉 자립지원시설 현황	49
〈표 11〉 시도별 대학입학금 지원현황	50
〈표 12〉 설문지 회수 현황	55
〈표 13〉 일반적 현황	63
〈표 14〉 보호종결이후 자립지원서비스 이용현황(중복응답)	68
〈표 15〉 보호종결이후 지원받았던 기관(중복응답)	70
〈표 16〉 자립지원서비스 도움정도	71
〈표 17〉 자립지원서비스 만족정도	72
〈표 18〉 아동복지법 내 자립지원 규정 인지 여부	75
〈표 19〉 보호종결 이후 자립지원 필요성	76
〈표 20〉 현재 자립지원기간(5년) 적절성 인식	78
〈표 21〉 보호종결 이후 적절한 자립지원기간	80
〈표 22〉 자립지원기간 5년 동안 가장 필요한 서비스	83
〈표 23〉 보호종결 이후 가장 어려운 점	87
〈표 24〉 자립지원금 평균 수령액	91



〈표 25〉 2012년도 및 2016년도 자립지원금 조사결과 비교표:	
아동양육시설을 중심으로	91
〈표 26〉 자립정착금 수령시기	92
〈표 27〉 전체 자립지원금 지출항목별 사용내역(중복응답)	92
〈표 28〉 자립정착금 항목별 평균 지출액	93
〈표 29〉 디딤씨앗통장(CDA) 항목별 평균 지출액	94
〈표 30〉 후원금 항목별 평균 지출액	95
〈표 31〉 자립정착금 사용 시 주된 의논 상대	96
〈표 32〉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 시 주된 의논 상대	97
〈표 33〉 후원금 사용 시 주된 의논 상대	97
〈표 34〉 주거유형 및 임차료	101
〈표 35〉 2012년도 주거유형 및 2016년도 주거유형 조사결과 비교표:	
아동양육시설을 중심으로	102
〈표 36〉 주거유형 전후 비교	103
〈표 37〉 주거자금 마련방법(중복응답)	104
〈표 38〉 주거비용 부담정도	105
〈표 39〉 재개발 지역 거주 여부	106
〈표 40〉 주거 위치	106
〈표 41〉 주거 위치 전후 비교	107
〈표 42〉 주거계약기간	107
〈표 43〉 주거계약기간 전후 비교	108
〈표 44〉 주거구조 (1)	108
〈표 45〉 주거구조 (2)	109
〈표 46〉 주거상태 및 주거환경	110
〈표 47〉 전반적 주거만족도	110
〈표 48〉 주거면적	111
〈표 49〉 평균 동거인 수	112

〈표 50〉 동거인 유형	112
〈표 51〉 보호종결 이후 이주 횟수	113
〈표 52〉 보호종결 이후 주거지를 옮긴 이유	113
〈표 53〉 추후 이사계획 여부	114
〈표 54〉 이사계획 이유	114
〈표 55〉 취약주거 경험여부	115
〈표 56〉 취약주거 평균 거주기간	115
〈표 57〉 타 시설 입소 경험	116
〈표 58〉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117
〈표 59〉 보호종결 이후 기초생활수급 경험 여부	121
〈표 60〉 현재 기초생활수급 여부	121
〈표 61〉 보호종결 당시 및 현재 상황에 따른 수급경험	123
〈표 62〉 지난 1년간 연평균 소득액	124
〈표 63〉 지난 1년간 월평균 항목별 지출액	125
〈표 64〉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 종류	126
〈표 65〉 2012년도 및 2016년도 건강보험 종류 조사결과 비교표: 아동양육시설을 중심으로	126
〈표 66〉 부채 상황	127
〈표 67〉 평균 부채액	127
〈표 68〉 부채발생사유(중복응답가능)	127
〈표 69〉 대학 진학 여부	130
〈표 70〉 대학재학 중 등록금 마련방법(중복응답)	131
〈표 71〉 2012년도 및 2016년도 대학등록금 마련방법 조사결과 비교표: 아동양육시설을 중심으로	132
〈표 72〉 대학재학 중 생활비 마련방법(중복응답)	133
〈표 73〉 2012년도 및 2016년도 생활비 마련방법 조사결과 비교표: 아동양육시설을 중심으로	133



〈표 74〉 대학진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134
〈표 75〉 아르바이트 경험 이유	135
〈표 76〉 주당 아르바이트 평균 근로시간	135
〈표 77〉 아르바이트 시간당 평균 임금	136
〈표 78〉 가장 오래 일한 아르바이트 유형(중복응답)	137
〈표 79〉 아르바이트 중 경험한 문제	138
〈표 80〉 아르바이트로 인한 학교생활(학업유지)의 어려움 정도	139
〈표 81〉 아르바이트가 미래의 직업 및 자립 도움 정도	140
〈표 82〉 대학생생활 만족도	140
〈표 83〉 취업상태	144
〈표 84〉 취업을 위한 노력 유형	145
〈표 85〉 취업하고자 하는 직업	146
〈표 86〉 현재 일하기까지 구직활동기간	147
〈표 87〉 현재 직업유형	149
〈표 88〉 고용형태	149
〈표 89〉 임금근로자 여부	150
〈표 90〉 종사상 지위	150
〈표 91〉 월 평균 급여	151
〈표 92〉 현재 직장동료와의 관계	152
〈표 93〉 현재 직업생활 만족도	152
〈표 94〉 직업소개 기관유형	154
〈표 95〉 이직 또는 직업전환 계획여부	155
〈표 96〉 이직 또는 직업전환 계획 이유	156
〈표 97〉 이직 또는 실직 경험 횟수	156
〈표 98〉 이직 또는 실직 이유	157
〈표 99〉 취업 시 어려움	159
〈표 100〉 주관적 건강상태	162

〈표 101〉 질병여부(중복응답)	163
〈표 102〉 치료여부	164
〈표 103〉 치료받지 못한 이유	165
〈표 104〉 자립생활기술 평균점수	166
〈표 105〉 보호유형별 자립생활기술 평균점수	167
〈표 106〉 아동복지시설 대상 자립생활기술	167
〈표 107〉 가정위탁 대상 자립생활기술	167
〈표 108〉 자율적 행동 평균점수	168
〈표 109〉 보호유형별 자율적 행동 평균점수	169
〈표 110〉 아동복지시설 대상 자율적 행동	169
〈표 111〉 가정위탁 대상 자율적 행동	169
〈표 112〉 자아존중감 및 유능감 평균점수	170
〈표 113〉 보호유형별 자아존중감 및 유능감 평균점수	170
〈표 114〉 공격성 평균점수	171
〈표 115〉 아동복지시설 공격성	171
〈표 116〉 가정위탁 공격성	171
〈표 117〉 정서조절감 평균점수	172
〈표 118〉 아동복지시설 정서조절감	172
〈표 119〉 가정위탁 정서조절감	173
〈표 120〉 불안·우울 평균점수	173
〈표 121〉 아동복지시설 불안·우울	174
〈표 122〉 가정위탁 불안·우울	174
〈표 123〉 보호유형별 행복감 평균점수	175
〈표 124〉 아동복지시설 행복감	175
〈표 125〉 가정위탁 행복감	176
〈표 126〉 보호유형별 삶의 만족도 평균점수	176
〈표 127〉 아동복지시설_삶의 만족도	177



〈표 128〉 가정위탁_삶의 만족도	177
〈표 129〉 가족 유무	178
〈표 130〉 가족과의 동거 선호도	180
〈표 131〉 가족관계 만족도	181
〈표 132〉 가족생계 책임여부	182
〈표 133〉 생활비 지원여부	183
〈표 134〉 친부모 생존여부	183
〈표 135〉 가족과의 연락빈도	184
〈표 136〉 부모와 연락하지 않는 이유	185
〈표 137〉 시설 및 위탁부모와의 연락(방문) 여부	186
〈표 138〉 연락(방문) 빈도	187
〈표 139〉 기관과의 연락(방문) 주체	187
〈표 140〉 연락(방문) 이유 (중복응답)	188
〈표 141〉 시설 또는 위탁부모와의 관계	189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절차	55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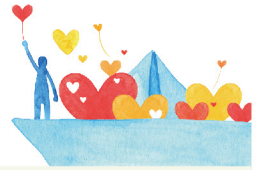
제1장 서론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012년 8월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자립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겼으며 그 대상은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공동생활 가정의 아동뿐만 아니라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 아동도 포함되어 자립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자립지원제도가 확대되기 시작함
- 2015년 기준으로 요보호아동은 4,503명이 발생하였고 2,682명(59.6%)이 아동복지시설로, 1,582명(35.1%)이 가정위탁으로 보호되었음. 또한 아동 복지시설 퇴소는 1,120명, 가정위탁보호 보호종결은 2,252명이 발생함
- 본 연구는 자립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이후 보호종결아동의 전반적인 자립실태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자립지원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본 연구는 2008년, 2012년에 이어 세 번째 진행된 보호종결아동 실태조사 로써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자립지원의 근거가 마련된 이후 진행된 실태조사로 그 의의가 있음
- 보호종결아동 실태조사 조사대상자수가 2012년과 비교하여 증가하였고 관계기관의 협조가 잘 이루어짐 (2012년 998명 → 2016년 1,301명 증가)
- 그러나 가정위탁 종결아동이 매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수가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과 비교하여 대상자수가 적었음
(아동양육시설 1,048명, 공동생활가정 87명, 가정위탁 86명)
- 그럼에도 본 연구는 보호 종결 후 자립실태 파악 및 자립지원제도를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자립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임



제2장 이론적 배경

- 2012년 8월,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에 의해 자립지원이 강화됨. 이에 개정 전에는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을 중심으로 자립서비스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양육시설뿐만 아니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로 확대되고 보호종결 아동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기회가 됨
- 아동자립사업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사업관리체계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사업운영체계는 아동자립지원단, 자립지원전담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이며 사업협력체계로 LH공사/자립지원시설, 고용센터, 대학교, 기업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 임
- 자립지원전담요원이란 시설아동의 자립준비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립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인력으로 2007년부터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각 시설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배치하기 시작 하였고 양육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배치는 완료되었으나 공동생활가정은 미배치됨
- 자립지원제도는 자립에 필요한 주거·취업·자산형성·정서적지원 등 공적 서비스 및 자원연계를 포함함. 보호 종결 후 지원되는 자립지원제도를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 주거지원(LH 소년소녀 가장 전세주택, 영구임대주택,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자립지원시설, 서울시자립형그룸홈), 교육 및 취업지원(국가장학금, 시도별 대학입학금, 취업성공패키지)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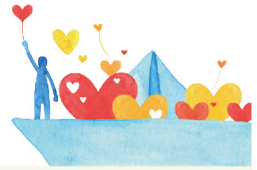
제3장 연구 방법

▣ 조사기간 및 조사대상

- 조사기간: 2016년 8월 11일 ~ 10월 10일
- 조사대상: 종결 후 5년 이내의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1,221명

▣ 조사 방법 및 절차

-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대한 설문 문항은 기본적으로 2012년도 설문 문항을 근거로 함. 다만, 종결 이후 성인초기 대상자의 자립에 중요한 척도를 삽입하는 등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 문항 점검 및 보완작업을 통해 설문 초안을 마련함
- 기존 설문에 대한 점검 및 보완작업 이후 전문가 자문과 보호종결아동인 당사자 의견조사를 반영하여 설문지의 구조 및 내용, 응답자 반응, 응답 소요시간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였고, 최종적으로 문항을 확정함
- 본 조사기간은 2016년 8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2개월 간 우편조사와 웹 조사가 진행됨
- 조사대상자는 양육시설 243개소, 공동생활가정 489개소, 가정위탁지원센터 17개소의 협조를 받아 종결 이후 5년 이내의 대상자 명단과 연락처를 확보함. 이에 3,287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이중 2,200여명은 전화조사로 참여를 독려하였음. 이에 최종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온라인 조사 1,134명, 오프라인 조사 175명으로 총 1,309명으로 39.5%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이 중 조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데이터 손상이 있는 88명을 제외한 1,221명의 데이터를 통계분석에 활용함



▣ 연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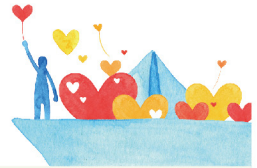
- 본 실태조사는 2008년, 2012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는 보호종결아동 실태조사로 기존 아동양육시설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이전 조사와는 달리,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종결아동에 대한 조사가 포함됨
- 자립과 관련하여 2016년 조사항목은 일반적 현황, 건강 및 심리사회적 현황, 자립지원서비스 이용현황, 주거현황, 진학현황, 취업현황, 경제현황 총 7개 영역으로 구분하였음. 이는 지난 2012년 조사항목과 비교하여 자립현황을 경제와 자립지원서비스 이용현황으로 세분화하고 자립지원서비스 이용현황을 통해 자립지원기간에 대한 적정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주거현황에서는 보호종결아동의 주거권에 대한 문항을 포함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주거실태를 살펴보고자 함. 또한 건강 및 심리사회적 현황에서는 자립이후의 특성을 고려하여 척도를 재구성하였음
- 측정도구는 자립생활기술, 자율적행동지표, 자아존중감 및 유능감, 삶의 질, 행복감, 심리행동문제 등을 사용함

▣ 자료 분석

- 본 조사는 SAS로 빈도분석하고 SPSS로 교차 및 기술통계 분석함
- 조사대상자의 보호유형, 현재 상황, 종결사유, 지역규모를 중심으로 각 변수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분석, 교차분석, 기술통계 등 실시
- 카이제곱, T-test, F검정을 실시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봄

제4장 일반적 특성

- 조사대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결 이후(만18세 이상) 5년 이내 자립지원아동 1,221명이 참여함. 보호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 1,048명(86.0%)으로 가장 높았고, 공동생활가정 87명(7%), 가정위탁 86(7%)명 순으로 나타남
- 성별분포는 남성이 639명(52.3%), 여성이 582명(47.7%)으로 나타남
- 보호유형 중에는 아동양육시설이 86.0%로 가장 높았고, 공동생활가정 87명, 가정위탁 86명으로 전체 조사 참여 인원 대비 7.0%에 그쳤음. 하지만 공동생활가정 퇴소아동의 경우 5년 동안 퇴소한 인원 약 280명 중 약 31.0%에 해당하는 수치임
- 종결유형 중에는 만18세에 이르러 보호 종결된 만기퇴소가 63.9%, 대학진학, 직업훈련 등의 사유로 보호가 연장되었다가 보호 종결된 경우가 36.1%로 나타남
-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상이 48.0%로 가장 높았고, 2, 3년제 전문대학 31.0%, 4년제 대학교 이상이 21.0% 순으로 나타남
- 보호기간은 조사대상자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81.4%로 매우 높았고, 나머지 18.6%만이 보호기간을 인지함. 그 중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7.2%, 5년 이상 10년 미만이 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자의 절반에 이르는 50.1%가 취업 중이었으며, 진학 또는 취업을 준비 중인 경우가 27.1%, 재학 중인 경우가 22.8%로 나타남



제5장 자립지원서비스 현황

▣ 자립지원서비스 이용

- 본 연구에서 자립지원서비스는 생활비지원, 주거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직업훈련 및 창업자금지원의)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총 8가지의 영역임
- 종결 이후 자립지원서비스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정부지원의 주거지원이 50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비지원 492명, 학업지원의 대학입학금 및 등록금 364명, 건강지원의 건강검진 33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종결 이후 자립지원서비스의 도움 정도는 주거지원, 생활비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등에서 도움정도가 높았음
- 자립지원서비스 만족도는 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벗어나 자립한 지 오래될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특히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지원서비스 만족정도 보다 높게 나타남. 또한 대학재학 중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만족정도가 높아짐

▣ 법적 자립지원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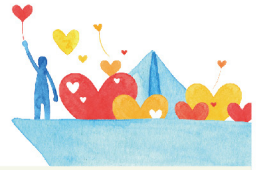
- 조사대상자 중 본인이 법적 자립지원대상자임을 인식하는 경우가 50.3%이며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49.7% 로 나타남. 법적 자립지원에 대한 규정은 자립연차가 높을수록, 수급자일수록, 그리고 대학재학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인지하고 있었음
- 종결 이후 법적 규정에 따라 자립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 조사대상자 87.9%는 자립지원이 필요하고, 자립지원이 불필요하다 12.1%로 나타남. 아동복지시설 종결유형으로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연장종료아동(91.0%)이 만기퇴소아동(85.4%)보다 자립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했으며 소득수준별로는 비수급자(86.6%)에 비해 수급자(92.2%)가 자립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함

- 현재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자립지원기간 5년에 대한 적절성을 조사한 결과 적절하다 71.5%, 적절하지 않다 28.4%로 나타남.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의 자립연차별로 살펴보면, 자립지원기간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1년차 76.0%, 2년차 72.7%, 3년차 72.0%, 4년차 67.5%, 5년차 59.5%로 나타나, 퇴소한 지 오래될수록 자립지원기간 5년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종결 이후 지금까지 이용한 자립지원서비스 서비스는 주거지원, 생활비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이었으며, 도움정도가 높았던 것도 위의 4가지 자립지원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남
- 종결 이후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경제적 어려움 31.1%, 주거문제 24.2%, 심리적 부담감 10.1%, 돈 관리 지식부족 7.7%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설퇴소 여성은 남성에 비해 주거문제, 심리적 부담감이 더 높게 나타남

▣ 자립지원금 활용 현황

- 아동양육시설의 자립지원금에 대한 2012년도 자립실태조사와 2016년도 자립실태조사를 비교한 결과 2012년도 평균 자립지원금은 632만원, 2016년도 평균 자립지원금은 1,051만원으로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유형의 자립지원금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CDA는 약 3배, 후원금은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자립정착금 사용 시 주된 의논상대는 스스로 결정하는 비율(58.7%)이 가장 높았으나 의논상대가 있는 경우 종결유형별로 살펴보면 양육시설의 경우 스스로 결정 60.3%, 시설담당자와 의논 20.5%로 3배가량 높게 나타난 반면 공동생활가정은 스스로 결정 42.0%, 시설담당자와 의논 36.0%로 시설 담당자와 의논이 더 높았고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은 스스로 결정 52.3%, 가족 또는 친인척과 의논 36.4%로 나타나 차이를 보임



-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 후원금으로 구성된 자립지원금의 항목별 지출 내용은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가 4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생활비 39.3%,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 26.5%,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 25.4%, 피복신발 25.3%, 수도광열비 등 관리비 20.4% 등의 순이었음. 또한 전혀 지출하지 않는 경우도 11.4%이고 일부 지출하고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36.1%로 나타남

제6장 주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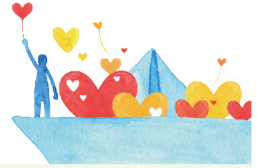
- 조사대상자의 주거유형과 임차료를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자의 33.9%는 전세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월세 28.1%, 자립지원시설 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는 지난 2012년도 자립실태 조사결과 가장 많은 주거형태가 월세(24.5%), 자립지원시설(18.6%), 정부지원 전세주택(16.4%), 학교 또는 회사 기숙사(14.4%)의 순이었음을 고려할 때 정부지원 전세임대주택이 약 2배 정도 늘어나 결과임
- 주거비용을 마련했던 방법에 대한 조사결과 정부기관에서 충당했다는 응답이 34.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립정착금 26.4%, 기타 14.6%, 근로소득 13.6%, CDA(디딤씨앗통장) 1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는 2012년도 조사에서 주거마련방법으로 39.3%가 근로하여 스스로 마련 27.0%, 자립정착금으로 마련 6.6%에 비해 정부기관의 지원이 4년 동안 약 5.1배 이상 증가된 의미 있는 결과임
- 종결 이후 집이 없어서 노숙을 하거나 일시보호쉼터, 친구 집 등에서 일시적으로 머무른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83.6%가 없다, 1회 7.3%, 3회 이상 5.8%, 2회 3.3% 순이었고, 이를 통해 1회 이상의 취약주거를 경험한 비율은 16.4%로 나타남

- 전반적인 주거만족도는 보통 36.9%, 대체로 만족 36.5%, 불만족 10.0%, 매우만족 13.5%, 매우불만족 4.4%로 나타남
- 현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전세자금지원이 36.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월세지원 24.4%, 공공임대주택 12.3%, 필요 없다 1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제7장 경제현황

기초생활수급 경험

- 종결 이후 기초생활수급 경험이 없는 경우(59.3%)가 경험이 있는 경우 (40.7%) 보다 높게 나타남. 보호유형별로 살펴보면 수급경험이 있는 경우 공동생활가정 52.9%, 가정위탁 53.5%, 아동양육시설 38.6% 순으로 나타남
- 현재 기초생활수급여부는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71.8%가 수급자로 지원받는 경우가 28.2%임. 보호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 26.4% 공동생활 가정 38.8%, 가정위탁 39.5%, 순으로 나타남
- 아동복지시설은 퇴소한 지 오래될수록 현재 수급 중인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남
- 조사대상자의 보호종결 상황과 현재 상황을 비교하여 수급여부를 살펴보면 보호종결 직후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비율은 40.7%로 나타났으나 현재 기초생활수급비율은 보호종결 직후 보다 28.2% 낮아짐. 보호종결 상황에서 수급 받는 대상자 중 재학 중인 경우가 70.5%로 가장 높았고, 재학 또는 취업준비 중인 경우가 42.3%, 취업 중인 경우가 26.4%순으로 나타남. 현재 상황에서 수급을 받는 대상자 중 재학 중인 경우가 65.8%로 가장 높았고, 재학 또는 취업 중인 경우가 30.9%, 취업 중인 경우가 9.8%순으로 나타남



수입 및 지출

- 지난 1년간 연간 평균 소득액은. 근로/사업소득으로 연평균 1,483만원이었음. 정부보조금 수입은 연평균 469만원으로 월평균 39만원이었으며, 민간보조금 수입은 연평균 233만원으로 월평균 19만원임
- 지난 1년간 항목별 월평균 지출액을 살펴보면, 식료품비로 월평균 38만원을 사용하였고, 월세 34만원, 기타생활비 30만원, 교통통신비 26만원, 교육비 25만원, 보건의료비 18만원, 이사비용 및 시설정비 등 주거관리 시 필요비용 14만원, 광열·수도비 10만원 순으로 나타남

건강보험

-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44.0%, 의료급여자 41.1%, 지역가입자 14.9% 순으로 나타남
- 2012년 건강보험 조사결과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2012년에는 직장가입자 51.6%, 지역가입자 19.4%, 의료급여 28.8%였으나 2016년도 조사결과 직장가입자 46.06%, 지역가입자 14.9%, 의료급여 39.1%로 나타나 직장가입자 및 의료급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부채

- 부채여부 및 부채액에 대한 조사결과 부채가 없다 86.5%, 부채가 있다 13.5%로 평균 부채액은 830만원으로 나타남. 보호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동생활가정이 1,74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동양육시설이 792만원, 가정위탁이 439만원임
- 부채액 발생 사유는 생활비 마련이 33.5%로 가장 높았고, 의료비 마련 32.9%, 기타 22.6%, 학자금마련 21.3%, 주거마련 14.0% 순으로 나타남

제8장 진학현황

▣ 대학진학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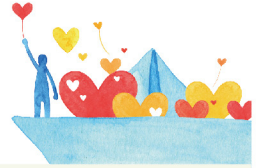
- 대학에 진학한 적이 있는 경우는 5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2.8%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를 보호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동생활가정은 59.8%, 아동양육시설이 57.7%, 가정위탁이 48.2% 순으로 나타남

▣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방법

- 대학재학 시 등록금 마련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76.2%, 학교장학금 24.2%, 아르바이트 17.4%, 시설후원 13.2%, 자립정착금 12.3%,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9.7%, 기타 7.0%, 지방자치단체 지원 3.6%, 부모/형제지원 3.5%, 조부모/친인척 지원 1.4%, 금융기관대출 0.4% 순으로 나타남
- 2012년 등록금 마련방법에 대한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2012년도에 등록금 마련방법으로 한국장학재단이 59.9%, 아르바이트 53.6%였는데 2016년에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이 18.0%가 증가하고 아르바이트는 17.6%로 급격히 감소함

▣ 아르바이트

- 대학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은 아동복지시설 76.50%, 가정위탁 78.05% 이고 아르바이트 경험이유는 아동복지시설 77.37%, 가정위탁 78.13%가 생활비 마련이 목적이었음
- 아르바이트 평균 근로시간은 평균 15시간 내외였고 평균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나타남



- 그러나 아르바이트에 따른 학교생활의 어려움으로 시설퇴소아동의 경우 66.80%, 위탁보호종결아동 78.13%이 어렵다고 응답하여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가 직업 및 자립에 도움정도에서 시설퇴소아동 82.80%,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 90.63%가 도움이 될 것으로 응답함

▣ 대학생활만족도

- 아동복지시설시설 대학생활만족도는 졸업생은 79.61%, 재학생은 83.34%로 재학생이 더 만족하였고 가정위탁 졸업생은 60%, 재학생은 85.55%로 재학 중인 경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제9장 취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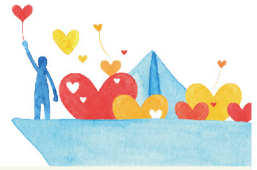
▣ 취업상태

- 조사대상자의 취업상태를 조사한 결과 51.1%는 취업 중이었으며 48.9%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남
- 취업준비중이라고 응답한 585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직업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23.8%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3.4%, 서비스종사자 19.8%, 사무종사자 9.7%, 관리직 종사자 7.5%,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5.5%, 판매종사자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3.8%, 단순노무종사자 2.1%,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0.7% 순이었음
- 취업자라고 응답한 대상자 중 현재의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구직활동기간에 대한 조사결과 평균 구직활동기간은 25.6개월로 최소 13개월에서 최대 78개월인 것으로 나타남

- 구직활동을 통해 현재 일하고 있는 직업유형은 서비스종사자 25.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7.3%,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4.9%, 사무종사자 12.8%, 단순노무종사자 11.0%, 판매종사자 8.6%,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6.5%, 관리직 종사자 3.4%,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0.6% 순으로 나타남
- 취업자의 고용형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72.7%가 정규직이었고, 비정규직이 27.3%로 나타나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2.6배정도 높게 나타남
-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 83.8%, 임시직 13.1%, 일용직이 3.1% 순이었음
- 취업자의 월평균 급여는 아동복지시설의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174만원, 여성은 163만원임 가정위탁의 경우 남성은 132만원, 여성은 137만원이었음
- 현재 일자리에서 직장동료와의 관계에 대한 조사결과 조사대상자의 92.4%는 직장동료와 관계가 좋다, 7.6%는 관계가 좋지 않다고 나타남
- 현재 일자리에서 직업생활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직업생활에 만족 80.3%, 직업생활에 불만족 19.7%이었음

이직 또는 실직경험

- 이직 또는 실직 경험 여부와 횟수는 이직이나 실직 경험이 없다 59.9%, 1회 17.8%, 2회 11.8%, 3회 이상 10.5% 순으로 나타났고 1회 이상 이직 또는 실직을 경험한 결과를 보호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은 41.7%, 공동생활가정은 24.1%, 가정위탁은 26.5%인 것으로 나타남
- 이직 또는 실직을 경험하게 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적성이 맞지 않아서 29.1%, 더 나은 보수를 위해서가 20.5%, 근로환경이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 15.8%, 기타의 사유와 직장상사 또는 직장동료와의 갈등 9.5%, 새로운 기술습득을 위해 7.4%, 계약만료 4.9%,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3.4%의 순이었음



■ 취업 시 어려운 점

- 취업 시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조사결과. 조사대상자의 24.1%는 취업할 때에 자신이 가진 학력, 기술, 자격의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적성을 모르는 경우,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각 18.0%, 취업정보의 부족 11.8%, 근로환경 및 시간이 맞지 않아서 10.0%, 기타 8.8%, 보수가 맞지 않아서 7.3%, 외모 또는 신체적 결함 1.8%의 순으로 나타남

제10장 건강 및 심리사회적 현황

■ 건강

- 주관적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85.9%는 건강상태가 좋다 14.1%는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함
- 지난 1년간 앓았던 질병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46.1%는 지난 1년간 질병을 앓은 적이 없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내과질환 31.4%, 치과질환 20.3%, 피부과질환 14.5%, 이비인후과질환 11.8%, 정형외과질환 8.5%, 안과질환 6.7%, 정신과질환 4.5%, 기타 2.5%, 흉부외과질환 0.9%, 신경과질환이 0.7% 순으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질병이 있었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해당 질병으로 입원했거나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50.7%는 전부 나올 때까지 치료를 받았거나 아직 치료 중이었고, 다음으로 일부 치료만 받았다 41.6%, 전혀 치료받지 못했다 7.8%로 나타남
- 치료받지 못한 대상자들이 지난 1년간 앓았던 질병에 대해 치료받지 못한 주된 이유는 치료비가 없어서 35.8%, 많이 아프지 않아서 34.2%, 기타 30.0%로 나타남

정서 및 사회성

가. 자립생활기술

- 조사대상자 중 아동복지시설 중 자립생활기술 정도를 측정한 결과, 일상생활기술 3.11점, 자기보호기술 3.23점, 돈관리기술 2.81점, 지역사회 자원활용기술 2.92점, 사회적기술 3.16점, 취업기술 3.04점으로 나타남. 자립생활기술 하위영역 중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영역은 자기보호기술(3.23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보인 영역은 돈 관리 기술(2.81점)로 나타남

나. 자율적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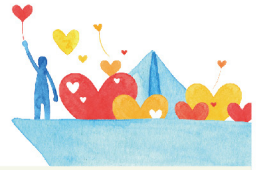
- 자율적 행동척도를 조사한 결과, 자율적 행동척도는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3.67점, 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3.60점, 권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 3.80점으로 나타남. 다음의 하위영역 중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영역은 권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3.80점)인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보인 영역은 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3.60점) 영역이었음

다. 자아존중감 및 유능감

- 자아존중감은 평균점수는 2.90점, 유능감은 2.51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호유형별로 자아존중감은 아동양육시설이 다른 보호유형에 비해 높았고, 유능감은 가정위탁이 가장 높았음

라. 심리정서문제영역

- 심리정서문제영역에서는 공격성, 정서조절감, 불안, 우울을 살펴봄
- 조사대상자의 공격성은 평균 2.30점으로 나타났고, 자립 2년차와 3년차 이상을 비교해보았을 때 자립연차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았고 가정위탁 응답자 중 재학 중인 자는 취업 중인 자에 비해 공격성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조사대상자의 정서조절감은 평균 3.39점으로 나타났고, 진학 또는 취업준비



중인 자는 재학 중인 자와 취업 중인 자보다 정서조절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자의 불안과 우울은 평균 2.88점으로 나타났고, 자립연차가 높아질수록 불안이나 우울도 높아졌고 가정위탁에서의 불안 및 우울은 진학 또는 취업준비 중인 자보다 재학 중인 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행복감과 삶의 질을 측정한 결과 행복감이 평균 2.53점으로 나타남. 자립연차로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자립연차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가정위탁은 자립연차가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높아짐.
- 삶의 만족도를 보호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의 삶의 만족도는 5.07점, 가정위탁의 삶의 만족도는 4.75점임
- 이는 삶의 질 척도가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활용하였던 것으로써,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감이 3.03점, 삶의 만족도는 6.01점이었던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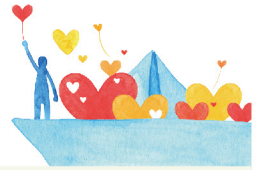
마. 원가족

- 조사대상자의 72.5%는 가족이 있고, 가족이 없거나 모르겠다 27.5%임. 보호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은 가족이 있다 65.2%, 가족이 없거나 모른다 27.1%였고 공동생활가정은 가족이 있다 78.2%, 가족이 없거나 모른다 21.8%임. 가정위탁은 가족이 있다 90.7%, 없거나 모른다 9.3%로 나타남
- 가족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가 41.9%로 가장 높았고,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함께 살고 싶다 31.1%,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 27.0% 순으로 나타남
- 현재 가족과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 68.7%, 불만족한다 31.3%로 나타남

- 가족생계를 책임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가족생계를 책임지고 있지 않다 82.6%, 가족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17.4%로 나타남
- 가족의 생활비 지원여부를 조사 결과 생활비 지원을 받지 않다 90.3%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다 9.7%로 나타남
- 친부모의 생존여부를 조사한 결과 생존 81.3%, 사망하거나 모르겠다 18.7%로 나타남
- 가족과 연락빈도를 조사한 결과, 21.8%는 1개월에 1-2회 연락하고 있었고, 연락하지 않는다 19.3%, 거의 매주 하고 있다 16.9%, 순으로 나타남
- 부모와 연락빈도가 없었던 대상자에게 연락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연락하고 싶지 않다 48.0%, 연락처를 모른다 29.1%, 기타 16.2%,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다 6.8% 순으로 나타남

바. 보호기관과의 전반적 관계

-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부모와의 연락(또는 방문) 여부 및 빈도를 조사한 결과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부모와 연락하고 있다 75.8%, 연락하지 않는다 24.8%로 나타남
- 보호받았던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부모와의 연락을 주고받는 조사대상자에게 연락(방문) 빈도를 조사한 결과, 2-3개월에 1회 정도 연락 27.5%, 6개월에 1회 21.5%, 월1회 20.9%, 1년에 1회 123.8%, 주1회 10.7%, 기타 5.5% 순으로 나타남
- 종결 이후 지금까지 시설담당자 또는 위탁부모 등과 연락할 때, 주된 연락자는 조사대상자의 54.1%가 아동복지시설 담당자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로 가장 높았음
- 아동복지시설 담당자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이 연락(방문)한 사유 또는 스스로 연락을 취했던 사유는 조사대상자의 82.9%는 안부 차 연락, 혜택관련 정보 제공 16.3%, 자립생활의 어려움 12.2%, 기타 4.1%순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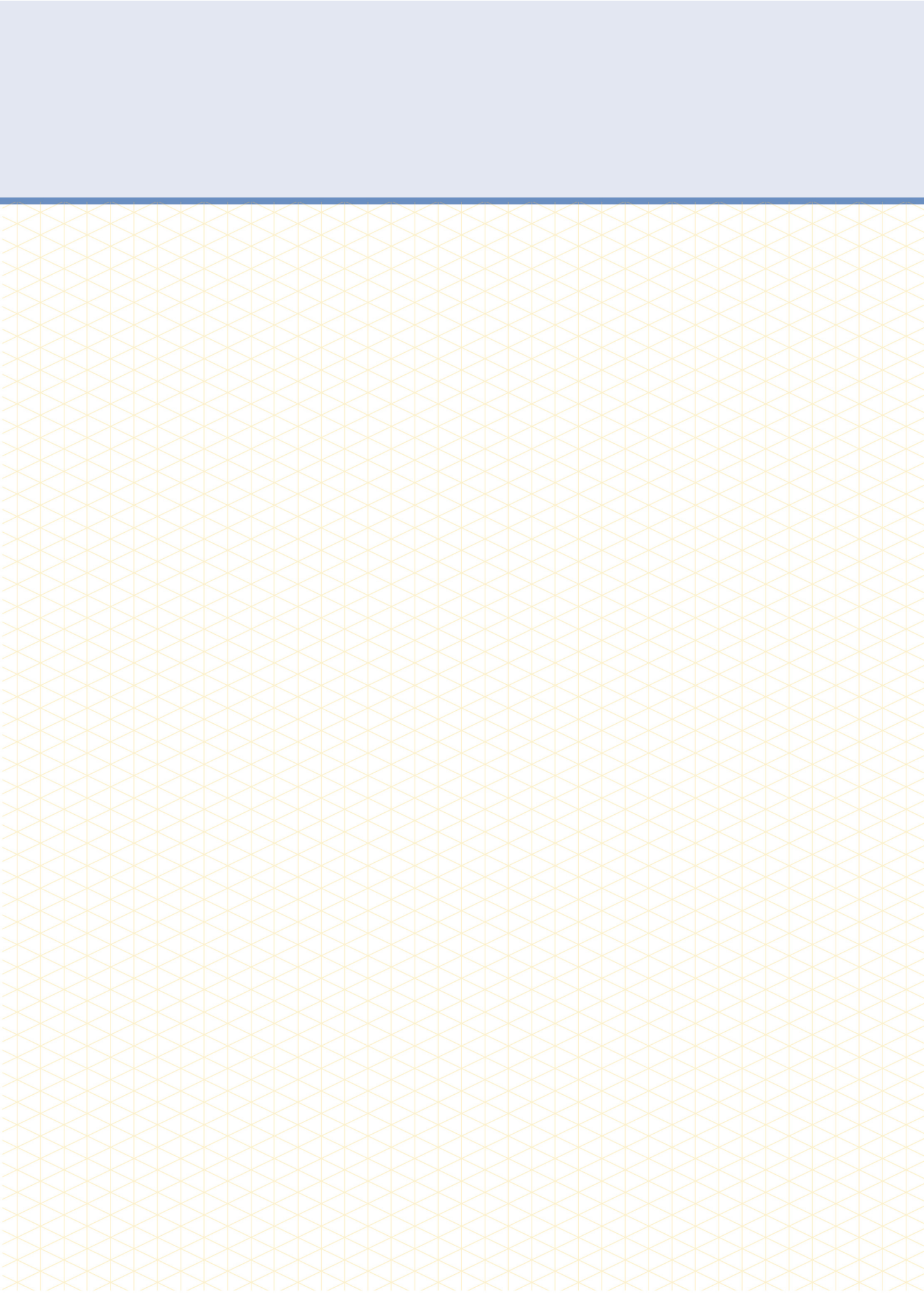


나타남

- 아동복지시설 담당자 또는 위탁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는 시설담당자 또는 위탁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가깝다 59.6%, 멀다 40.4%로 나타남

제11장 결론: 논의 및 정책제언

- 본 연구는 자립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이후 보호종결아동의 전반적인 자립실태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자립지원정책을 수립하고자 진행됨
- 이에 2012년 아동양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비교해보면 자립 지원금, 주거지원, 국가장학금 등 정부주도의 자립지원이 확대됨
- 그러나 종결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 불안 등 심리적인 문제가 더 증가하고 자립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을 더 인식하고 5년간 자립지원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증가하는 점은 자립지원시기의 적절성과 자립지원서비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자립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
 첫째, 자립지원관련법 및 자립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둘째, 자립지원금에 대한 표준화 방안 및 관리가 필요
 셋째, 주거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공공지원 확대
 넷째, 경제교육 강화와 맞춤형 경제적 지원이 필요
 다섯째, 학교 및 민간연계를 통한 학업생활 지원금의 확대
 여섯째, 안정적인 자립정착을 위해 취업지원을 강화
 일곱째, 보호종결아동을 위한 건강 및 심리정서 지원
 여덟째, 원가족 및 자립종사자와 원만한 관계형성을 위한 사회적지지망 구축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2

제2절 자립실태조사 개요 35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아동복지법은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아동복지는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을 적용받는 대상에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이 있다. 이들은 빈곤, 실직, 학대, 비행, 가출, 미혼모 등과 같은 사유로 발생하게 되는데,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유형으로는 단기 보호가 가능한 아동일시보호시설을 제외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이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에 발생한 요보호아동 4,503명 중 2,682명(59.6%)이 아동복지시설로, 1,582명(35.1%)이 가정위탁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보호아동이 발생하면 대부분 국가의 보호아래 성장하게 된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으로 전환된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에서 벗어나 자립을 맞게 된다. 국가는 갑작스러운 자립을 대비하여 보호 중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는 등 아동복지법 제38조 및 동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만18세 이후에는 법적으로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사회에 나가 적응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들은 그동안의 보호시설과는 달리 보호 밖의 다른 환경에 맞닥뜨리게

되며, 사회에 나가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장소도 이들에게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인 이들의 자립은 일반아동의 여느 자립과 다를 수밖에 없다.

국가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에 대해 5년 간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자립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본 실태조사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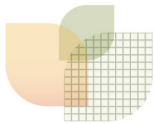
지난 2008, 2012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아동복지법 제38조 자립지원에 의해 4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2008년 실시된 조사는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을 대상으로, 2012년에는 공동생활가정과 가정위탁 대상자의 응답률 저조로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 및 연장아동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후 자립지원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2012년 8월에는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보호아동뿐만 아니라 보호종결 5년 이내의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보호종결아동의 종합적인 자립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조사는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고 난 이후 자립실태 파악이라는 점에서 보다 의미 있는 내용으로 담고자 하였으며, 보호종결아동이 사회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의 구체적이고 실증적 자료로써 효과적인 자립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아동복지시설과 위탁가정을 나와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가기는 많은 준비와 지원이 필요하다. 아직은 미흡하나 보호종결아동의 자립 이후 삶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본 조사연구는 보호종결아동의 전반적인 삶과 욕구를 살펴볼 수 있도록 돕고, 자립지원에 대한 밑그림을 마련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보호종결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의 근거가 마련된 이후 진행되는 조사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것이다. 지난 2012년 8월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자립지원에 대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번 조사의 참여자는 지난 2012년 참여인원보다 2배가량 많아 점차적으로 본 조사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고,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도 폭넓어지고 있다고 보여 진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 참여한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 수가 적었다는 점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 5년간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인원은 4,996명, 공동생활가정 307명, 가정위탁 7,541명으로 총 12,844명이었다. 가정위탁의 경우 지난 5년간 보호종결한 수가 가장 많았으나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 이유는 명단이 있더라도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위탁부모의 연락처가 있어도 대상자와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표 1〉 보호유형별 조사 참여인원

구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합계
지난 5년간 보호종결인원	4,996명	307명	7,541명	12,844명
참여인원	1,116명	93명	100명	1,309명
참여율	22.3%	30.3%	1.3%	10.2%

※ 출처: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전산시스템

이번 실태조사 과정을 통해 아직 전수조사에 대한 체계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비록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이들의 자립현황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의 자립지원제도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자,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자립기반이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시작이 될 것이라 보여 진다. 앞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번조사는 전국 조사로써 자립의 현 실태는 드러날 것이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자립실태조사 개요

1. 조사기간 및 조사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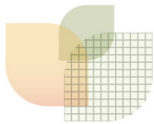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는 2016년 8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아동복지법 상 자립지원 대상자인 보호종결 후 5년 이내의 보호종결 아동을 대상으로 웹 조사와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만18세 이후 만기퇴소 또는 연장보호가 종결된 아동으로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활용하여 직접 설문에 응답하였다.

〈표 2〉 실태조사에 참여한 보호종결아동 유형

구분	내용
만기퇴소아동	보호 목적이 달성된 만 18세에 이르러 보호가 종료된 아동
연장종료아동	만 18세 이후 대학재학, 취업훈련 등으로 보호가 연장된 이후 보호사유가 종료됨에 따라 연장보호가 종료된 아동

본 조사대상자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와 4호에 의하면,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 목적이 달성하기까지 성장을 돕고,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또한 가정위탁의 경우 일반가정인 비혈연 가정 또는 조부모·친인척 등 혈연가정 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자립하기까지 보호하게 된다.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보호종결 후 5년 이내의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3〉 보호체계 유형

구분	내용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

2. 조사내용

본 실태조사는 2008년, 2012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는 보호종결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이다. 이번조사는 아동양육시설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이전 조사와는 달리,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에 대한 조사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또한 보호종결아동과 연장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던 이전 조사와는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보호종결 후 5년 이내 자립지원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시 말해, 2016년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조사는 기존에 보호 중인 연장보호아동은 조사대상자에서 제외하였으며, 자립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세분화한 의미 있는 문항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2012년 조사항목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주거현황, 진학현황, 취업현황, 자립현황, 심리사회적응 현황, 총 6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2016년 조사항목은 일반적 현황, 건강 및 심리사회적 현황, 자립지원서비스 이용현황, 주거현황, 진학현황, 취업현황, 경제현황, 총 7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지난 2012년 조사항목 중 자립현황을 경제와 자립지원서비스 이용현황으로 구분한 결과이다. 또한 자립지원서비스 이용현황을 통해 자립지원기간에 대한 적정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주거현황에서는 보호종결아동의 주거 점유의 안전성, 적절한 주거기반, 비용의 적절성, 주거위치 등의 문항을 포함하는 등 주거권에 대한

문항을 포함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주거실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건강 및 심리사회적 현황에서는 자립이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성 행동지표를 추가하는 등 기존에 활용하던 척도를 추가·수정·보완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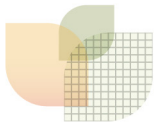
〈표 4〉 2012년과 2016년 조사표 영역 비교

2012년 조사항목		2016년 조사항목
퇴소아동	연장아동	퇴소아동
I. 인구사회학적 특성	I. 인구사회학적 특성	I. 일반적 사항
II. 주거현황	II. 주거현황	II. 건강 및 심리사회적 현황
III. 진학현황	III. 진학현황	III. 자립지원서비스 이용현황
IV. 취업현황	IV. 자립현황	IV. 주거현황
V. 자립현황	V. 심리사회적응 현황	V. 진학현황
VI. 심리사회적응 현황		VI. 취업현황
		VII. 경제현황

다음의 표를 통해 2012년과 2016년 변경된 설문지 구성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표 5〉 2012년과 2016년 설문지 구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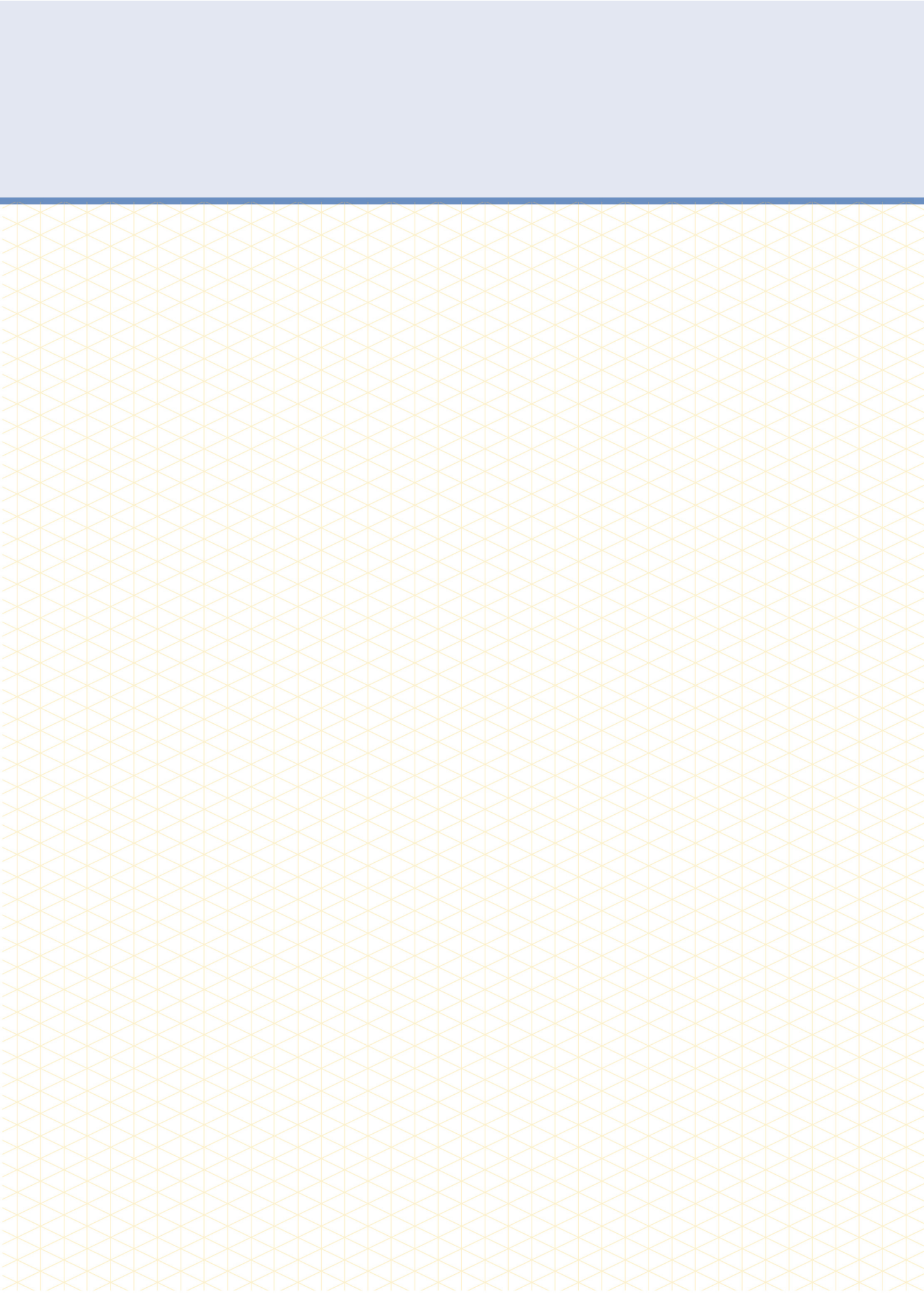
영역	2012년 조사항목	2016년 조사항목
-	-	○ 추가: 연구참여동의서
일반적 사항	성별, 연령, 현 거주지, 최종학력, 보호종결연도, 보호종결 당시상황, 시설생활기간, 현재 상황	○ 유지: 성별, 연령, 보호종결연도, 시설생활기간 ○ 추가: 보호기간 중 거주지, 보호종결사유 ○ 수정: 보호종결당시 상황, 현재 상황, 현재 거주지, 교육수준(영역변경)
건강 및 심리 사회적 현황	이성친구 및 관계, 임신(출산) 경험, 자아존중감, 심리행동문제, 사회적지지, 도움 줄 수 있는 사람 수, 스트레스 대처, 공동체 의식, 낙인감, 가족과의 관계	○ 유지: 주관적 건강상태, 자립생활기술, 심리행동문제, 원가족 현황 ○ 추가: 장애여부, 자율적행동지표, 행복감, 삶의 만족도 인지수준 ○ 수정: 자아존중감 및 유능감, 질병경험(영역변경)



영역	2012년 조사항목	2016년 조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이성친구 및 관계, 사회적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수, 스트레스 대처, 공동체의식, 낙인감, 임신(출산)경험
자립지원 서비스 이용현황 (자립 현황)	(보호 중) 자립서비스 경험 (보호종결 후) 보호종결 후 시설과의 관계(기관과의 전반적 관계, 연락주체, 연락여부 및 횟수, 만족도) (자립지원금) 자립정착금, CDA, 후원금액, 사육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서비스영역별 지원현황, 서비스 만족도, 법적 자립지원기간 욕구, 서비스 욕구 ○ 수정: 보호종결 후 어려움(영역변경), 시설 및 위탁가정과의 관계, 자립지원금 현황 ○ 삭제: 자립서비스 경험
주거현황	보호 보호종결 전 희망 주거형태, 현재 주거형태, 동거인 현황, 노숙경험, 타 시설 입소경험, 이사경험, 거주환경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지: 주거자금 마련방법, 동거인현황, 이전 주거유형, 이주횟수, 취약 주거지 거주현황, 타 시설 입소경험 ○ 추가: 주거부담, 재개발지역여부, 주거 위치 및 구조, 계약기간, 주거상태 및 환경, 이주계획, 주거복지지원 욕구 ○ 수정: 현재 주거유형 및 임차료 ○ 삭제: 거주환경 만족도, 희망주거형태
진학현황	대학재학 현황, 대학 재학 중 학비 및 생활비 마련방법, 아르바이트 경험, 대학생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지: 대학진학여부,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방법, 대학생활 만족도 ○ 수정: 대학재학현황(일반적 현황 이동),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
취업현황	현재 취업상태, 구직활동기간, 취업준비의 어려움, 취업 시 도움 받은 경험, 일자리 형태, 이직 및 실직경험, 실직기간, 근무기간, 현재 직업, 월 급여, 직업생활 만족도, 희망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지: 현재 취업상태, 구직활동기간, 현재 직업, 취업 시 도움 받은 경험, 직업생활 만족도, 이직 및 실직경험, 취업준비의 어려움 ○ 추가: 직장 내 관계, 이직 및 전직 계획 ○ 수정: 현재 고용형태 및 고용지위, 급여 (경제현황 이동) ○ 삭제: 희망직업, 근무기간, 실직기간
자립현황	소득액, 수급경험, 건강보험종류, 질병경험, 주관적 건강상태, 생활만족도, 자립생활 기술, 보호종결 후 어려움, 자립지원금 현황 및 용도, 생활비, 보호종결 후 시설과의 관계, 자립관련 서비스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 자립지원서비스 이용현황 및 경제현황 영역분리
경제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역변경 및 수정: 보호종결 후/현재 기초생활 수급여부, 소득액, 건강보험종류, 명목별 월평균 생활비 ○ 추가: 부채현황

〈표 6〉 2016년 최종 조사항목

영역	조사항목
-	연구참여동의서
일반적 사항	성별, 연령, 보호종결연도, 시설생활기간, 보호기간 중 거주지, 보호종결사유, 보호종결당시 상황, 현재 상황, 현재 거주지, 교육수준
건강 및 심리사회적 현황	주관적 건강상태, 자립생활기술, 심리행동문제, 장애여부, 자율적행동지표, 행복감, 삶의 만족도 인지수준, 자아존중감 및 유능감, 질병경험, 원가족현황
자립지원서비스 이용현황	서비스영역별 지원현황, 서비스 만족도, 법적 자립지원기간 욕구, 서비스 욕구, 보호종결 후 어려움, 시설 및 위탁가정과의 관계, 자립지원금 현황
주거현황	현재 주거유형 및 임차료, 주거자금 마련방법, 동거인현황, 이전 주거유형, 이주횟수, 취약 주거지 거주현황, 타 시설 입소경험, 주거부담, 재개발지역여부, 주거 위치 및 구조, 계약기간, 주거상태 및 환경, 이주계획, 주거복지 지원 욕구
진학현황	대학진학여부,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방법,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 대학생활 만족도
취업현황	현재 취업상태, 구직활동기간, 현재 직업, 취업 시 도움 받은 경험, 현재 고용형태 및 고용지위, 직업생활 만족도, 이직 및 실직경험, 취업준비의 어려움, 직장 내 관계, 이직 및 전직 계획
경제현황	보호종결 후/현재 기초생활 수급여부, 소득액, 건강보험종류, 명목별 월평균 생활비, 부채현황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자립지원 관련법	42
제2절 자립지원 전달체계	43
제3절 자립지원제도	45

제2장 이론적 배경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은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년 한 해 동안 부모의 빈곤, 실직, 학대 등 다양한 사유로 4,503명의 요보호아동이 발생하였고, 이들 중 92%가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 보호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그리고 이들은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18세에 도달할 경우 법적인 보호종결로 인해 자립능력과 상관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이로 인해 보호종결아동은 자립과정을 통해 취업,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강현아·신혜령·박은미, 2009; 김명성, 2013; 아동자립지원단, 2012; 조순실 2010).

이에 최근 보호종결 후 아동자립에 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 및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보호종결아동에 대한 상이한 자립지원제도, 주거 및 교육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 발생, 불안, 우울 등 심리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아름다운재단·아동자립지원단 2012; 아동자립지원단 2015). 이에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실태조사에 앞서 보호종결아동 및 시설현황 및 자립지원관련법과 자립지원전달체계, 자립지원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자립지원 관련법

우리나라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는 아동복지법에 있으며 2012년 8월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에 의해 자립지원이 강화되었다. 이는 법 개정 전에는 아동 양육시설 퇴소아동을 중심으로 자립서비스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양육시설뿐만 아니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로 확대되고 보호종결아동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등 전환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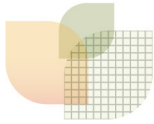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동복지법 제38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 아동의 위탁보호종결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그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의 지원, 자립지원 대상 아동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자립지원대상 아동은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해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수립계획에 있어 아동의 적성 및 욕구 파악, 사회성 발달 정도 및 자립 능력·수준 등 아동의 상태 평가, 정기적 진로상담,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자립에 필요한 주거·취업·자산형성·정서적 지원 등 공적 서비스 및 지역 내 자원연계를 해야 한다(법제처, 2016)

제2절 자립지원 전달체계

1. 자립지원 전달체계

국내 보호종결 후 자립지원과 관련한 정책 수행 및 서비스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자립지원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자립지원사업 운영지침 마련, 국고보조사업 등을 총괄하고 아동자립지원 수행기관과의 사업연계 및 조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

이에 자립지원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사업관리체계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이며 사업운영체계는 아동자립지원단, 자립지원전담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



센터 등이며 사업협력체제로 LH공사/자립지원시설, 고용센터, 대학교, 기업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수행하고 있다(아동자립지원단·보건복지부·이화여자대학교, 2015). 이에 2016년 아동사업안내에 안내된 자립지원관련기관의 역할 및 기능은 <표 7>과 같다.

<표 7> 자립지원 담당기관의 역할과 기능

구분		역할 및 기능
보건 복지부	아동 복지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지원사업 운영 기본 계획 수립 ○ 아동자립지원사업 운영 지침 마련, 국고보조 등 사업 총괄 ○ 아동자립지원 수행기관(지자체 및 중앙·시도 전담기구)간의 사업연계·조정 등
	아동 자립 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자립지원 전담기관 지원 ○ 자립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 자립지원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자립지원사업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DB) 운영 및 모니터링 ○ 지역 자립지원사업 운영 평가 ○ 자립지원사업 홍보 자원개발, 네트워크 구축
시·도 (시군구)	담당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자립지원 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지원 ○ 지역 자립지원 전담기관 지원예산 확보·지원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확인 및 지급일자 공지 ○ 지역 자립지원사업 지도 관리 ○ 아동 자립지원 관련 통계 관리·보고 ○ 지역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등에서 실시하는 자립계획수립 업무협조
	지역 자립지원 전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자립지원데이터 관리(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관리) ○ 지역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실시하는 자립지원업무 지원 ○ 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 ○ 자립지원 관련 시설 및 기관 종사자 교육 실행 ○ 퇴소아동(중점사례관리 대상) 사례관리 ○ 자립지원사업 홍보 및 지역사회 자원네트워크 구축
가정위탁 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 후 3개월 이내 원가족 복귀계획 수립 및 지원 ○ 아동 연령별·영역별 자립기술평가 및 자립지원프로그램 진행 ○ 만15세이상 아동에 대한 자립기술평가 및 자립지원계획수립(매년 1~3월) ○ 자립지원 관련 현황 DB입력 및 지자체 보고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 지원 및 사례관리 ○ 보호종결 후 5년 이내 아동 사례관리 ※ 위기대상은 중앙 및 시·도 전담기관 연계

* 2016년 보건복지부 아동사업분야안내 참조

2. 자립지원전담요원

자립지원전담요원이란 시설아동의 자립준비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립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인력으로 2007년부터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각 시설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기준을 살펴보면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1명, 100명 초과 시 1명이 추가되며 공동생활가정은 필요시 배치될 수 있다. 이에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에 259명이 배치되었고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자립전담요원이 미배치되어 있다.

〈표 8〉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현황

총 계		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기관 수	전담 요원 수	기관 수	전담 요원 수	기관 수	전담 요원 수	기관 수	전담 요원 수
736	259	242	242	18	17	476	0

* 공동생활가정은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에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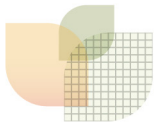
제3절 자립지원제도

아동복지법 제38조를 기준으로 자립지원의 범위는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지원, 생활, 교육, 취업 등으로 광범위하다. 이에 보호종결 후 지원되는 자립지원제도는 다음과 같다.

1. 자립정착금

1) 자립정착금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에 자립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다, 이에 만18세 이상 보호종결아동의 경우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정착금은 주거비,



비상금, 생활비등으로 사용된다(아동자립지원단, 2014). 그러나 자립정착금은 지자체에서 지원하기에 지원금이 상이하여 1인당 300~5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다.

〈표 9〉 보호체계별 자립정착금 지원현황

(단위: 만원)

구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서울	500	500	500
부산	500	500	500
대구	300	300	300
인천	300	300	300
광주	400	400	400
대전	300	300	-
울산	500	500	500
세종	500	500	500
경기	500	500	500
강원	-	-	-
충북	500	500	500
충남	500	-	-
전북	500	300	-
전남	300	300	-
경북	500	500	-
경남	500	500	500*
제주	500	500	500

* 2016년 아동자립지원단 자립정보북 참조

2)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1:1 정부매칭으로 지원금을 적립해줌으로써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이에 0세부터 만18세 미만까지 요보호아동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등을 대상으로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하고 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3만원까지 가능하다. 사용용도는 만18세 이후 학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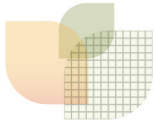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준비,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만24세까지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사용용도에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2. 주거지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 주거지원제도는 전세주택, 영구임대주택,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자립지원시설, 서울시자립형그룹홈 등이 있다.

1)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이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 일반주택의 소유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 또는 지원대상자가 입주 중 또는 입주예정인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등)을 말한다. 이에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대리 양육가정과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가 아닌 친인척에 의해 양육되는 친인척양육가정 등이 해당된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 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및 퇴소한 자로서 만 23세 이하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해당된다. 이에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주택 기금으로 전세주택 마련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으로 전세금 지원한도는 수도권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기타 5,000만원이며 만20세까지 무이자지원, 만 20세 이후에는 1~2%이자 부담하며 지원기간 만료 시 기존주택전세임대로 연계가 가능하다. 계약기간은 기본2년이며 3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하다(국토부·한국토지 주택공사, 2016).



2)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주로 입주자격에 기초생활수급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등이 해당된다.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으로 기본 계약기간 2년이며 이후 갱신이 가능하다(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 2016).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심사기준에 연령기준 및 세대원수 등이 포함되어 보호종결아동이 선정되는데 제한점이 있다(보건복지부·아동자립지원단, 2015)

3)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저소득 미혼모·부, 성폭력피해자, 저소득 장애인, 노인,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이며 입주원칙은 1주택에 2가구 이상 동거하며 LH공사에서 매입해서 임대하는 주택으로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임차를 한다. 임차 후 운영기관에서 입주자를 선정하여 임대하며 임대보증금은 국가부담이며 월임차료, 일반관리비, 공과금 등은 입주자 부담으로 계약기간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 2016).

4) 자립지원시설

자립지원시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숙소를 제공하여 안정된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지원대상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중 취업(준비) 중인 18~24세 미만인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24세 미만인자(가정위탁아동 포함)로 입소 후 3년 이내 총 입소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전국 12개소가 있으며, 정원은 평균 30명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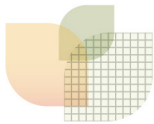
〈표 10〉 자립지원시설 현황

시도	시설명	연락처	정원	성별
서울특별시	돈보스코자립생활관	02) 845-0985	35	남
	상록여자자립생활관	02) 588-7097	30	여
	청운 자립생활관	02) 823-1381	30	여
부산광역시	미네르바의 집	051) 343-3866	32	남·여
대구광역시	삼덕동 SOS 자립생활관	053) 427-9659	30	남·여
	검사동 SOS 자립생활관	053) 982-9936	30	남·여
광주광역시	무등 자립생활관	062) 224-3762	30	남·여
대전광역시	인애 자립생활관	042) 861-8691	30	남·여
충청도	현양 자립생활관	043) 266-7113	24	남·여
	향림 자립생활관	041) 753-5319	30	남·여
전라도	삼성 자립생활관	063) 221-7001	30	남·여
	목포 자립생활관	061) 276-0078	30	남·여

* 2016년 아동자립지원단 자립정보북 참조

5) 서울시자립형그룹홈

서울시자립형그룹홈은 2014년 서울시에서 시작되었고 퇴소아동 5-7명이 협동하며 자립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복권기금 29억원으로 초기자본이 지원되었고, 주택전세금, 기자재 구입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자립형그룹홈은 양육시설 담당자가 관리하고 있으나 아동은 개별주택에서 따로 생활한다. 입소기준이나 연장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각 양육시설에서 재량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아동을 우선적으로 입소시킨다. 초기 전세금 이외에 추가되는 비용은 시설 입소아동이 전액지불하고 있으며 세부 규칙은 아동이 스스로 정한다(아동자립지원단, 2015).



3. 교육 및 취업지원

1) 국가장학금 현황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분위(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급되며 국가장학금 지원단가가 최대 520만원까지 확대되었다. 따라서 보호종결아동 중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대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 1, 2분위 학생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한국장학재단, 2016). 그러나 국가장학금의 경우 성적제한이 있어 수혜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다.

2) 시·도별 대학입학금 지원 현황

시·도별 대학입학금 지원 현황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시설보호 및 가정위탁 아동이 대학입학 시 지원되고 있다. 이에 지원금액은 100~500만원으로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지급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 시·도별 대학등록금 지원은 1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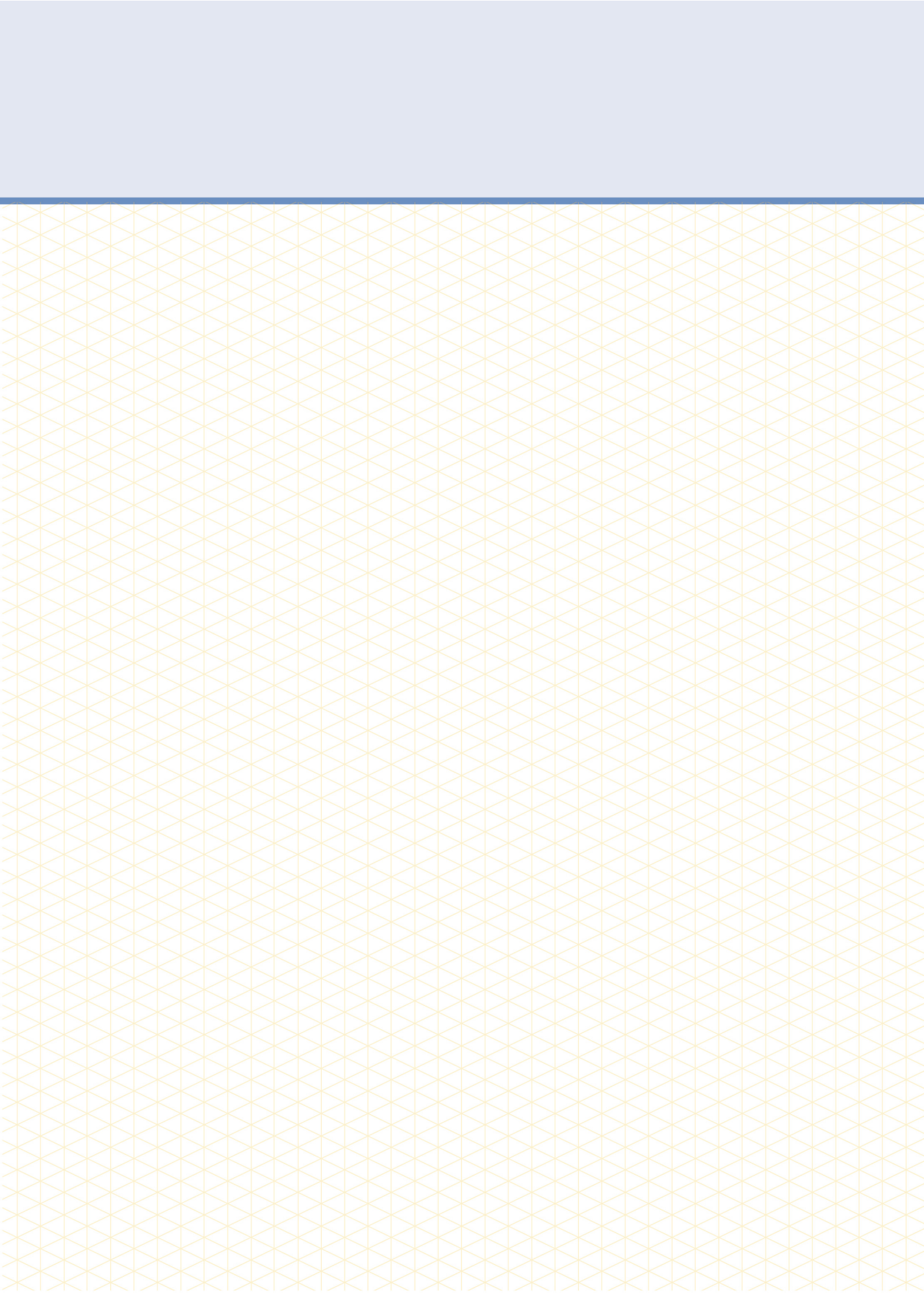
〈표 11〉 시도별 대학입학금 지원현황

구분	대학입학금(1인당)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서울	300	300	300
부산	350	350	350
대구	250	250	200
인천	200	200	200
광주	-	-	-
대전	실비	-	-
울산	500	500	500
세종	실비	실비	-
경기	400	-	-

구분	대학입학금(1인당)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강원	-	-	-
충북	200	200	200
충남	-	-	-
전북	200	-	200
전남	150	150	100
경북	200	200	200
경남	-	-	-
제주	300	300	-

3)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지원제도로 만 18세 이상 위기청소년 및 생계급여수급자,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수당 및 취업 시 성공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취업지원을 위한 주요서비스는 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취업프로그램 제공, 동행 면접 등이 제공된다(고용노동부, 2016). 이에 보호종결아동의 경우 취업준비 시 취업성공패키지를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연구 방법

제1절 조사절차 및 내용	54
제2절 조사도구	56
제3절 자료 분석	58

제3장 연구 방법



제1절 조사절차 및 내용

1. 설문 초안 마련

2016년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대한 설문 문항은 기본적으로 2012년도 설문 문항을 근거로 마련되었다. 다만, 보호종결 이후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자립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고려하여 설문 문항을 점검하고 보완작업을 통해 설문 초안을 마련하였다.

2. 전문가 자문 및 당사자 의견조사를 통한 최종 문항 확정

기존 설문 문항에 대한 점검 및 보완작업 이후 전문가 자문과 보호종결아동의 당사자 의견조사를 반영하여 설문지의 구조 및 내용, 응답자 반응, 응답 소요시간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였고, 최종적으로 문항을 확정하였다.

3. 자립실태조사 준비 및 실시

본 조사는 아동양육시설 243개소, 공동생활가정 489개소, 가정위탁지원센터 17개소의 협조를 받아 보호종결 이후 5년 이내의 대상자 명단과 연락처를 확보하였으나, 그 중 결번이거나 연락처 변경 등의 사유는 제외하였고 약 3,287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해당 자료 수집 시에는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거하여 명단과 연락처를 수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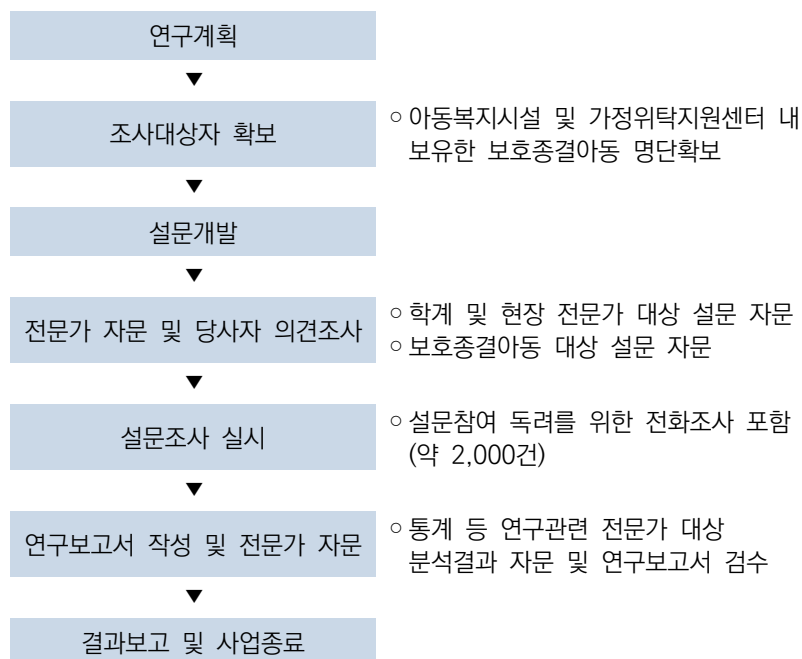
수집된 대상자 연락처를 통해 2016년 8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2개월 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실태조사 참여율 제고를 위해 약 2,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독려전화를 진행함으로써 조사 참여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4. 조사완료 및 연구보고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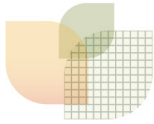
웹 조사와 우편조사로 진행된 이번 실태조사의 수집된 데이터는 온라인 조사 1,134명, 오프라인 조사 175명, 총 1,309명으로 명단확보인원 대비 39.5%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데이터 손상이 있는 88명을 제외한 1,221명의 데이터를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12〉 설문지 회수 현황

구분	활용 가능한 명단 인원	회수인원	회수율	활용데이터 수
보호종결아동	3,287명	1,309명	39.8%	1,221명



[그림 1] 연구절차



제2절 조사도구

1. 자립생활기술

자립생활기술 척도는 요보호아동의 독립생활준비를 위해 사용한 Casey Family Program의 자립 및 독립생활기술척도(ACLSA: Self Sufficiency and Life for Independent Living)를 신혜령 외(2006)가 국내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용으로 수정·보완하여 개발한 자립지원프로그램 척도이다. 이는 지난 2008년과 2012년 자립실태조사에서도 사용되었다.

자립생활기술 척도는 일상생활기술, 자기보호기술, 돈관리기술, 주거 및 지역사회 자원활용기술, 사회적관계기술, 직장생활기술, 6개의 하위영역을 영역별 4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척도 값은 4점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자립생활 기술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며,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933으로 나타났다.

2. 자율적 행동지표

보호종결 직후 자립아동에게 중요한 것은 사회에 나가 자신의 생애를 관리하고 사회 속에서 자율적으로 생활하는 것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자율적 행동지표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OECD DeSeCe 프로젝트에서 지식기반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핵심역량인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영역을 김기현 외(2009)가 한국적 맥락을 고려하여 개발한 자율적 행동지표이다.

세부영역으로는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영역, 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권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 3개의 영역이 각 12개씩 총 3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 α 의 전체 값은 .956이며, 영역별로 .891, .898, .916으로 나타났다.

3. 자아존중감 및 유능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의 4점 척도로써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 유능감은 Hernandez(1993)가 사용한 유능감 척도와 Sherer et al.(1982)이 만든 자기효능감 척도를 기초로 박현선(1998)이 재구성한 척도이자, 2008년, 2013년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활용된 유능감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는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유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음의 척도 중 자아존중감 척도는 2012년 자립실태조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에서 개발하여 구축하고 있는 청소년 패널데이터의 6개 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나, 2016년 자립실태조사에서는 기존 조사연구 환경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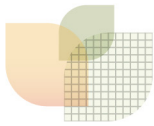
자아존중감과 유능감의 신뢰도 값은 각 .786, .775으로 나타났다.

4. 심리행동 문제영역

심리행동 문제영역은 공격성 6개 문항, 정서조절감 3개 문항, 불안·우울 5개 문항, 총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1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정서조절감 3개의 문항은 역문항이다.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하여 구축한 청소년 패널 데이터의 문항으로 지난 2008년, 2012년 자립실태조사에서도 본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 값 Cronbach α 는 .825로 나타났다.

5. 주관적 삶의 질 수준: 행복감, 현재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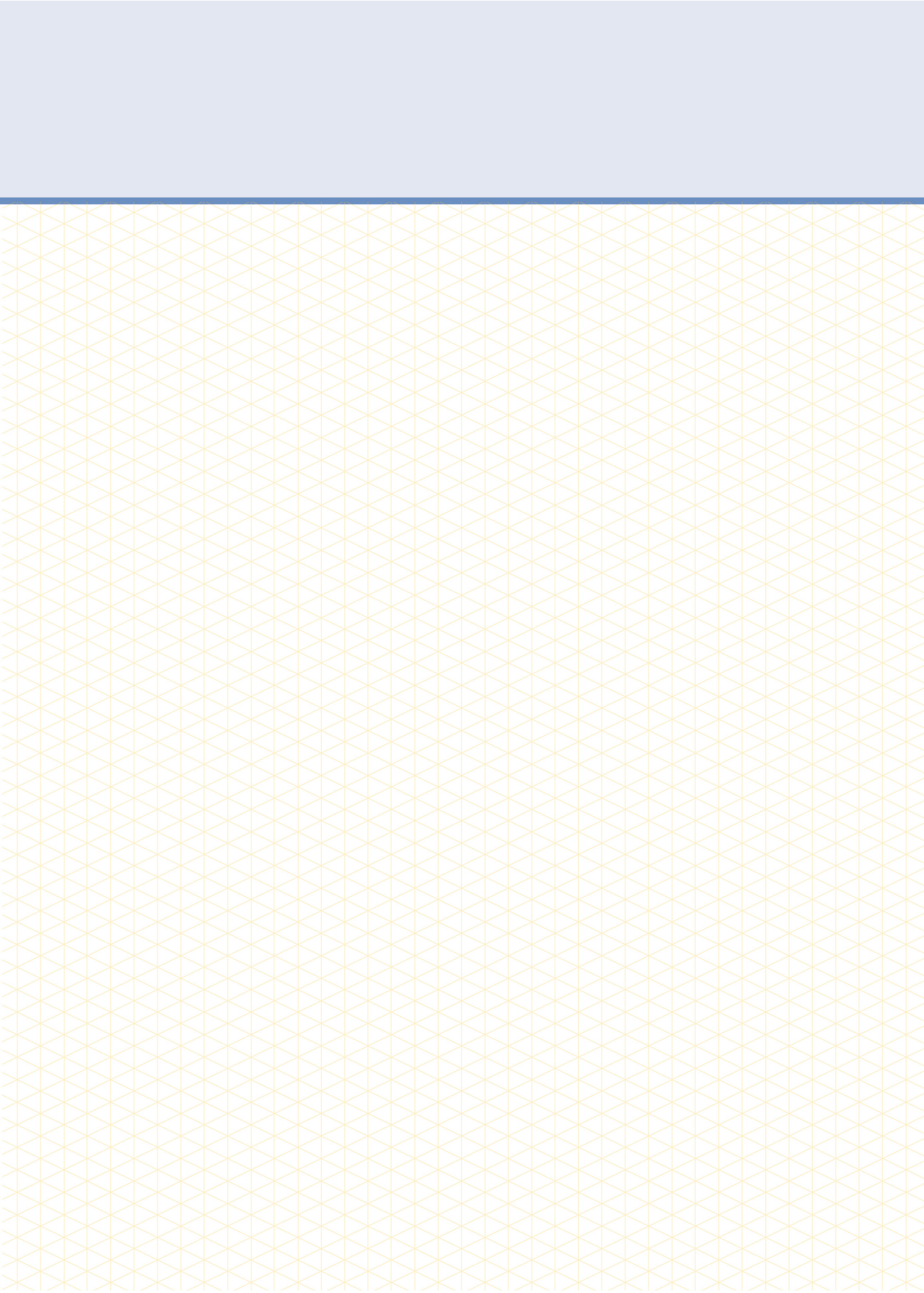
본 조사에서는 보호종결아동의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을 살펴보고자 두 가지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 중 행복감 척도는 2008년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13년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활용된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는 4점 척도,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행복감 외에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삶의 만족도 척도를 추가하였다. 이는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활용되었고, 최소 0점에서 10점을 만점으로 하는 척도이다.

제3절 자료 분석

본 조사를 통해 응답된 데이터는 일차적으로 SAS로 빈도분석을 하였고, 그 외 교차 및 기술통계 등은 SPSS를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보호유형, 현재 상황, 보호종결사유 등을 중심으로 각 변수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교차분석, 기술통계 등을 활용하였으며, 카이제곱, T-test, F검정을 실시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제4장 일반적 특성

제4장 일반적 특성



본 조사대상자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만기퇴소 또는 연장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지원아동이다. 조사참여자 1,221명 중 남성 639명(52.3%), 여성 582명(47.7%)이 참여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만 21.3세로 최소 18세에서 최대 28세까지이다.

보호유형 중에는 아동양육시설의 참여율이 1,048명(86.0%)으로 가장 높았고, 공동생활가정 87명(7.0%), 가정위탁 86명(7.0%) 순이었다. 다만 공동생활가정 퇴소아동의 참여인원은 5년 동안 퇴소한 인원 307명 대비 28.3%에 해당하는 비율로써 세 보호유형 중 가장 많이 설문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보호종결유형은 만18세에 이르러 종료된 만기퇴소가 780명(63.9%), 대학진학, 직업훈련 등의 사유로 보호가 연장되었다가 종료된 경우가 441명(36.1%)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상이 586명(48.0%)로 가장 높았고, 2, 3년제 전문대학 376명(31.0%), 4년제 대학교 이상이 256명(21.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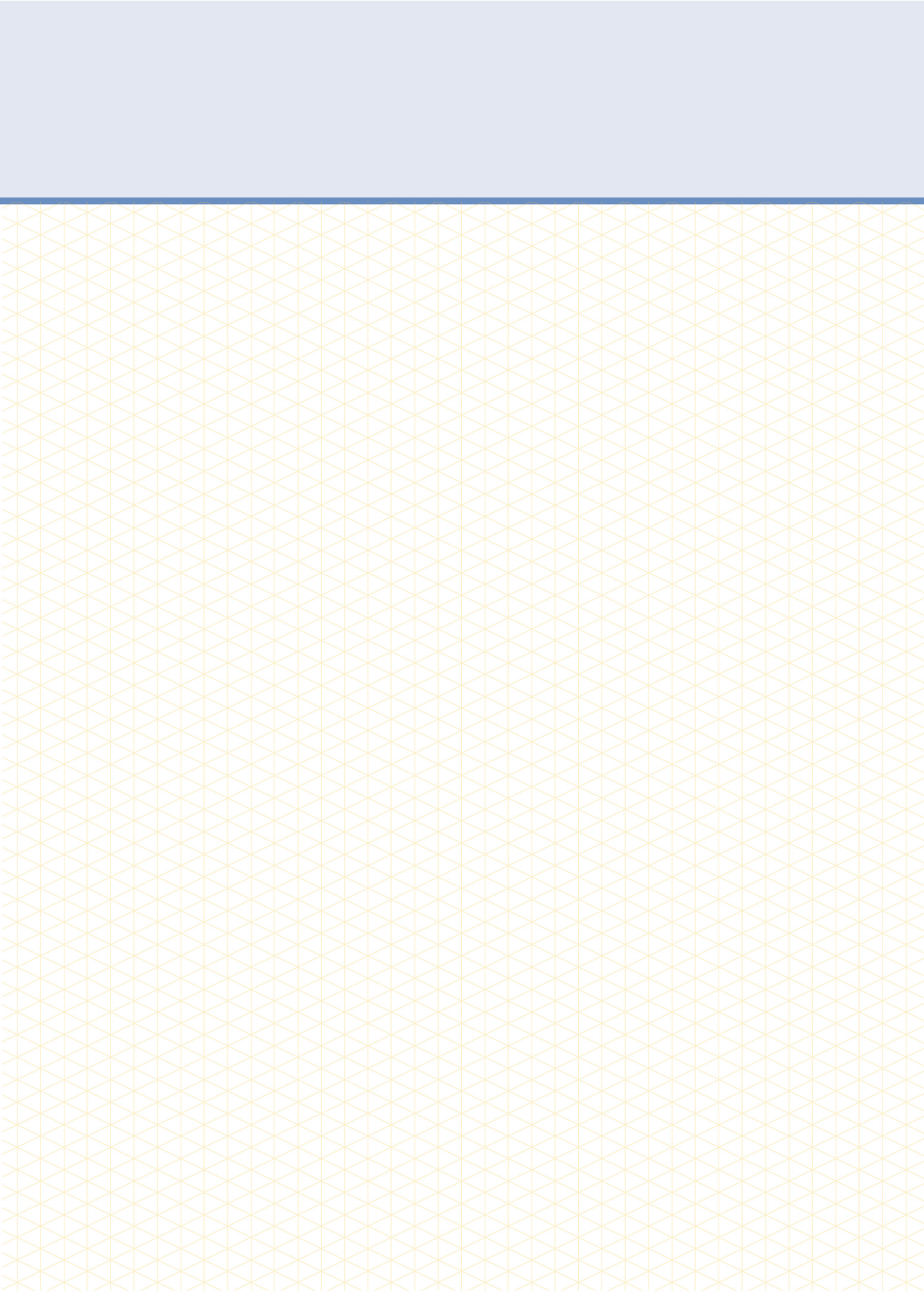
조사참여자 중 자신의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 보호기간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994명(81.4%)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227명(18.6%)만이 보호기간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 중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88명(7.2%), 5년 이상 10년 미만이 74명(6.1%), 5년 미만이 37명(3.0%), 10년 이상이 28명(2.3%) 순이었다.

또한 절반에 이르는 612명(50.1%)이 현재 취업 중이었으며, 진학 또는 취업을 준비 중인 경우가 331명(27.1%), 재학 중인 경우가 278명(22.8%)으로 나타났다.

〈표 13〉 일반적 현황

(N=1,221) (단위: 명, %)

	구분	빈도	%
성별	남성	639	52.3
	여성	582	47.7
연령	만18세 이상 만20세 미만	489	40.0
	만20세 이상 만23세 미만	555	45.5
	만24세 이상	177	14.5
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1,048	86.0
	공동생활가정	87	7.0
	가정위탁	86	7.0
보호종결유형	만기퇴소	780	63.9
	연장종료	441	36.1
보호기간	5년 미만	37	3.0
	5년 이상 10년 미만	74	6.1
	10년 이상 15년 미만	88	7.2
	15년 이상 20년 이상	28	2.3
	모른다	994	81.4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586	48.0
	전문대(2, 3년제)	379	31.0
	대학교(4년제) 이상	256	21.0
현재상황	재학 중	278	22.8
	취업 중	612	50.1
	진학/취업준비 중	331	27.1



제5장 자립지원서비스 현황

제1절 자립지원서비스 이용	66
제2절 법적 자립지원의 필요성	74
제3절 자립지원금 활용 현황	90

제5장 자립지원서비스 현황



제1절 자립지원서비스 이용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은 보호종결 이후 정부 또는 민간지원을 통해 자립서비스를 제공받기도 한다. 자립지원서비스는 보호종결아동의 욕구에 대응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보호종결 이후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유형을 조사함으로써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지원 기반을 알아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 진다.

다음의 표는 보호종결 이후 지금까지 받았던 자립지원서비스 유형을 조사한 결과이다. 생활비지원, 주거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직업훈련 및 창업자금지원의)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총 8가지의 영역으로 살펴보았다.

보호종결 이후 자립지원서비스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정부지원의 주거지원이 50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비지원이 492명, 학업지원의 대학입학금 및 등록금이 364명, 건강지원의 건강검진이 33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이 보호종결 이후 받았던 자립지원서비스 중 정부지원의 주거지원이 430명으로 가장 높았고, 생활비지원이 416명, 학업지원의 대학등록금이 301명 등의 순이었다. 공동생활가정 퇴소아동 또한 정부지원의 주거지원이 40명으로 가장 높았고, 생활비지원과 학업지원의 대학등록금이 각각 33명, 건강지원의 건강검진이 27명 등의 순이었다.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은 보호종결 이후 받았던 자립지원서비스 중 생활비 지원이 43명으로 응답자 중 절반이 해당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건강지원의 건강검진이 39명, 정부지원의 주거지원이 38명 등의 순이었다.

보호종결 이후 이용하였던 자립지원서비스 중 정부지원의 주거지원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과 보호 중인 가정위탁 세대에 대한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에 따른 것으로 보여 진다. 그밖에 생활비지원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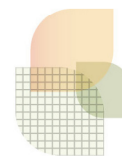
대학입학금 및 등록금, 건강검진에 따른 의료비 등도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지자체 및 한국장학재단 등 정부기관에 대한 지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자립지원서비스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립이후 삶의 질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거, 생활비, 학업, 건강 지원을 중심으로 받고 있었다. 하지만 위의 주거, 학업, 생활, 건강 등 주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절반이상으로 다각적인 지원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퇴소 후 5년이라는 자립지원기간은 보호종결아동이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표 14〉 보호종결이후 자립지원서비스 이용현황(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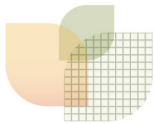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생활비지원		주거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비정부지원		정부지원		건강검진		치료, 수술비		대학 입학금 및 등록금		학원비		직업훈련		창업자금 대여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전체	492 (40.6)	721 (59.4)	303 (25.2)	900 (74.8)	508 (42.1)	698 (57.9)	339 (28.2)	865 (71.8)	236 (19.6)	968 (80.4)	364 (30.2)	841 (69.8)	146 (12.1)	1,057 (87.9)	134 (11.1)	1,068 (88.9)	18 (1.5)	1,185 (98.5)
계	1,213(100)		1,203(100)		1,206(100)		1,204(100)		1,204(100)		1,205(100)		1,203(100)		1,202(100)		1,203(100)	
아동 양육 시설	416 (40.0)	625 (60.0)	262 (25.4)	770 (74.6)	430 (41.5)	605 (58.5)	273 (26.4)	761 (73.6)	190 (18.4)	866 (81.6)	301 (29.1)	733 (70.9)	120 (11.6)	913 (88.4)	113 (10.9)	919 (89.1)	14 (1.4)	1,019 (98.6)
계	1,041(100)		1,032(100)		1,035(100)		1,034(100)		1,034(100)		1,034(100)		1,033(100)		1,032(100)		1,033(100)	
공동 생활 가정	33 (38.4)	53 (61.6)	23 (27.1)	62 (72.9)	40 (47.1)	45 (52.9)	27 (31.8)	58 (68.2)	23 (27.4)	61 (72.6)	33 (38.8)	52 (61.2)	13 (15.5)	71 (84.5)	5 (6.0)	79 (94.0)	-	84 (100.0)
계	86(100)		86(100)		85(100)		85(100)		84(100)		85(100)		84(100)		84(100)		84(100)	
가정 위탁	43 (50.0)	43 (50.0)	18 (20.9)	68 (79.1)	38 (44.2)	48 (55.8)	39 (45.9)	46 (54.1)	23 (26.7)	63 (73.3)	30 (34.9)	56 (65.1)	13 (15.1)	73 (84.9)	16 (18.6)	70 (81.4)	4 (4.7)	82 (95.4)
계	86(100)		86(100)		86(100)		85(100)		86(100)		86(100)		86(100)		86(100)		86(100)	
χ^2	3.50		1.00		1.14		15.32***		6.99*		4.47		1.56		7.15*		7.22*	



구분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기타	
	심리상담		심리검사		소송		법률상담		문화여가 활동		해외교류 활동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전체	93 (7.7)	1,111 (92.3)	65 (5.4)	1,139 (94.6)	13 (1.1)	1,191 (98.9)	16 (1.3)	1,188 (98.7)	237 (19.7)	967 (80.3)	46 (3.8)	1,158 (96.2)	15 (3.8)	1,135 (96.2)
계	1,204(100)		1,204(100)		1,204(100)		1,204(100)		1,204(100)		1,204(100)		1,150(100)	
아동 양육 시설	81 (7.8)	953 (95.2)	53 (5.1)	981 (94.9)	12 (1.2)	1,022 (98.8)	15 (1.5)	1,019 (98.5)	197 (19.1)	837 (80.9)	44 (4.3)	990 (95.7)	11 (1.1)	976 (98.9)
계	1,034(100)		1,034(100)		1,034(100)		1,034(100)		1,034(100)		1,034(100)		987(100)	
공동 생활 가정	6 (7.1)	78 (92.9)	5 (6.0)	79 (94.0)	-	84 (100.0)	-	84 (100.0)	16 (19.0)	68 (81.0)	-	84 (100.0)	1 (1.2)	80 (98.9)
계	84(100)		84(100)		84(100)		84(100)		84(100)		84(100)		81(100)	
가정 위탁	6 (7.0)	80 (93.0)	7 (8.1)	79 (91.9)	1 (1.2)	85 (98.9)	1 (1.2)	85 (98.8)	24 (27.9)	62 (72.1)	2 (2.3)	84 (97.7)	3 (3.7)	79 (96.3)
계	86(100)		86(100)		86(100)		86(100)		86(100)		86(100)		82(100)	
χ ²	.12		1.46		.98		1.26		3.96		4.39		3.81	

*p<.05, ***p<.001



다음의 표는 보호종결 이후 자립서비스 이용기관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앞서 가장 많이 이용했던 자립서비스인 주거지원 기관은 정부기관이 5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민간단체 21.7%,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가 16.3% 등이었다. 이외에도 정부기관 지원이 우세하였던 자립서비스로는 생활비지원 38.3%, 학업지원 38.4%, 건강지원 52.8%, 활동지원 38.3%로 정부기관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여러 지원유형 중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원이 우세하였던 자립서비스로는 상담지원 24.7%, 법률지원 45.2%이었다.

대체적으로 보호종결 이후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받았던 대상자는 정부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정부기관의 지원서비스는 연령 또는 소득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어 지원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 또한 보호종결이후 제공받고 있는 자립지원서비스 유형을 살펴보면 보호종결아동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이 대부분이다. 보호종결아동에 대한 폭넓고 다양한 지원서비스 마련은 물론이고, 다음과 같은 정보력을 갖추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아동자립지원단, 그리고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전달체계가 견고해짐으로써 자립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의 정책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표 15〉 보호종결이후 지원받았던 기관(중복응답)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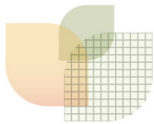
구분	정부 기관	지방자치 단체	아동복지 시설 또는 가정위탁 지원센터	민간 단체	아동자립 지원단	기타	계
생활비지원	228 (38.3)	59 (9.9)	97 (16.3)	129 (21.7)	39 (6.6)	43 (7.2)	595
주거지원	456 (53.3)	77 (9.0)	63 (7.4)	103 (12.0)	71 (8.3)	86 (10.0)	856
건강지원	309 (52.8)	61 (10.4)	71 (12.1)	74 (12.6)	19 (3.2)	51 (8.7)	585
학업지원	217 (38.4)	46 (8.1)	49 (8.7)	85 (15.0)	70 (12.4)	98 (17.3)	565

구분	정부 기관	지방자치 단체	아동복지 시설 또는 가정위탁 지원센터	민간 단체	아동자립 지원단	기타	계
자립지원	53 (32.5)	19 (11.7)	29 (17.8)	26 (16.0)	13 (8.0)	23 (14.1)	163
상담지원	31 (17.8)	13 (7.5)	43 (24.7)	41 (23.6)	21 (12.1)	25 (14.4)	174
법률지원	2 (6.5)	- -	14 (45.2)	5 (16.1)	7 (22.6)	3 (9.7)	31
활동지원	118 (38.3)	33 (10.7)	46 (14.9)	53 (17.2)	27 (8.8)	31 (10.1)	308
기타	8 (47.1)	- -	2 (11.8)	2 (11.8)	1 (5.9)	4 (23.5)	17

다음의 표는 보호종결 이후 지금까지 이용한 자립지원서비스의 도움 정도를 나타낸 결과이다. 지원받았던 자립지원서비스 중 가장 많이 이용했었던 서비스는 주거지원, 생활비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이었으며, 도움정도가 높았던 것도 위의 4가지 자립지원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자립지원서비스 도움정도

구분	전혀도움 되지않음	도움 안됨	도움됨	매우 도움됨	N	Mean	SD
생활비지원	2(.4)	11(2.2)	200(40.8)	277(56.5)	490	3.53	.57
주거지원	3(.4)	23(2.8)	235(28.9)	553(67.9)	814	3.64	.56
건강지원	2(.4)	11(1.9)	237(41.7)	319(56.1)	569	3.54	.56
학업지원	2(.4)	14(2.7)	150(29.0)	351(67.9)	517	3.60	.57
자립지원	3(1.9)	11(7.0)	84(53.2)	60(38.0)	158	3.20	.75
상담지원	6(3.8)	11(6.9)	90(56.6)	52(32.7)	159	3.18	.71
법률지원	2(5.1)	8(20.5)	16(41.0)	13(33.3)	39	3.03	.89
활동지원	4(1.4)	11(3.8)	118(40.7)	157(54.1)	290	3.48	.69
기타	4(21.1)	1(5.3)	2(10.5)	12(63.2)	19	3.16	1.26



지금까지 지원받았던 자립지원서비스에 대해 조사참여자의 58.4%는 만족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매우 만족하였다는 응답이 21.5%, 만족하지 않았다 14.9%, 전혀 만족하고 있지 않았다 5.1%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자립연차별, 소득수준별, 현재 상황, 교육수준에 따라 만족정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가정위탁의 경우 자립연차별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벗어나 자립한 지 오래될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특히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지원서비스 만족정도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학재학 중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만족정도가 높아지고 있음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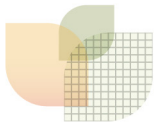
〈표 17〉 자립지원서비스 만족정도

(단위: 명,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만족함	매우 만족함	χ^2
전체			62(5.1)	181(14.9)	710(58.4)	263(21.5)	
아동 복지 시설	성별	남성	41(6.7)	98(16.1)	347(57.1)	122(20.1)	6.17
		여성	20(3.8)	73(14.0)	316(60.5)	113(21.6)	
		계	61(5.4)	171(15.1)	663(58.7)	235(20.8)	
	자립 연차	1년차	60(9.8)	39(22.4)	81(46.6)	37(21.3)	38.60***
		2년차	11(6.0)	32(17.4)	99(53.8)	42(22.8)	
		3년차	9(4.3)	33(15.6)	119(56.4)	50(23.7)	
		4년차	7(2.7)	39(15.1)	172(66.4)	41(15.8)	
		5년차	16(5.4)	26(8.8)	188(63.9)	64(21.8)	
		계	60(5.3)	169(15.1)	659(58.7)	234(20.9)	
	소득 수준	수급	5(1.6)	25(8.1)	203(65.9)	75(24.4)	31.38***
		비수급	56(6.9)	145(17.7)	457(55.9)	159(19.5)	
		계	61(5.4)	170(15.1)	660(58.7)	234(20.8)	
	현재 상황	재학 중	6(2.3)	34(13.1)	159(61.2)	61(23.5)	15.73*
		취업 중	32(5.5)	86(14.8)	336(57.6)	129(22.1)	
		진학/취업준비 중	23(8.0)	51(17.8)	168(58.5)	45(15.7)	
		계	61(5.4)	171(15.1)	663(58.7)	235(20.8)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만족함	매우 만족함	χ^2
가정 위탁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41(7.6)	79(14.7)	314(58.6)	102(19.0)	14.07*
		전문대	12(3.4)	54(15.3)	215(61.1)	71(20.2)	
		대학교 이상	8(3.3)	38(15.7)	134(55.4)	62(25.6)	
		계	61(5.4)	171(15.1)	663(58.7)	235(20.8)	
	성별	남성	-	5(17.9)	14(50.0)	9(32.1)	2.03
		여성	1(1.7)	5(8.6)	33(56.9)	19(32.8)	
		계	1(1.2)	10(11.6)	47(54.7)	28(32.6)	
	자립 연차	1년차	-	-	6(100.0)	-	16.78*
		2년차	1(14.3)	1(14.3)	3(42.9)	2(28.6)	
		3년차 이상	0(0.0)	9(12.3)	38(52.1)	26(35.6)	
		계	1(1.2)	10(11.6)	47(54.7)	28(32.6)	
	소득 수준	수급	-	4(11.8)	21(61.8)	9(26.5)	1.81
		비수급	1(1.9)	6(11.5)	26(50.0)	19(36.5)	
		계	1(1.2)	10(11.6)	47(54.7)	28(32.6)	
	현재 상황	재학 중	-	2(11.1)	10(55.6)	6(33.3)	1.81
		취업 중	-	2(7.7)	15(57.7)	9(34.6)	
		진학/취업준비중	1(2.4)	6(14.3)	22(52.4)	13(31.0)	
		계	1(1.2)	10(11.6)	47(54.7)	28(32.6)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1(2.2)	9(19.6)	20(43.5)	16(34.8)	9.09
		전문대	-	-	18(69.2)	8(30.8)	
		대학교 이상	-	1(7.1)	9(64.3)	4(28.6)	
		계	1(1.2)	10(11.6)	47(54.7)	28(32.6)	

*p<.05, ***p<.001



제2절 법적 자립지원의 필요성

지난 2012년 8월, 아동복지법 전면개정으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결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조항이 신설·추가되었다.

아동복지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종결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 자산의 형성 및 관리지원,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그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자립지원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는 자립지원 대상자를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으로 명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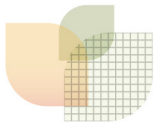
본 조사의 응답자는 법적 자립지원대상자에 속해 있는데, 그 규정에 대해 절반가량인 51.0%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49.0%는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는 자립한 지 오래될수록 자립지원규정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응답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그리고 재학 중인 경우에 해당 자립지원 규정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아동복지법 내 자립지원 규정 인지 여부

(단위: 명, %)

구분			알고 있다	모른다	χ^2
전체			601(49.3)	619(50.7)	
아 동 복 지 시 설	성별	남성	311(51.0)	299(49.0)	.27
		여성	259(49.4)	265(50.6)	
		계	570(50.3)	564(49.7)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532(50.8)	515(49.2)	1.63
		공동생활가정	28(43.7)	49(56.3)	
		계	570(50.3)	564(49.7)	
	자립 연차	1년차	69(39.7)	105(60.3)	27.67***
		2년차	76(41.1)	109(58.9)	
		3년차	100(47.4)	111(52.6)	
		4년차	146(56.2)	114(43.8)	
		5년차	175(59.1)	121(40.9)	
		계	566(50.3)	560(49.7)	
	소득 수준	수급	175(56.6)	134(43.4)	6.80**
		비수급	393(47.9)	427(52.1)	
		계	568(50.3)	561(49.7)	
	현재 상황	재학 중	149(57.3)	111(42.7)	10.87**
		취업 중	296(50.6)	289(49.4)	
		진학/취업준비중	125(43.3)	164(56.7)	
		계	570(50.3)	564(49.7)	
가 정 위 탁	성별	남성	8(28.6)	20(71.4)	1.00
		여성	23(39.7)	35(60.3)	
		계	31(36.0)	55(64.0)	
	소득 수준	수급	13(38.2)	21(61.8)	.12
		비수급	18(34.6)	34(65.4)	
		계	31(36.0)	55(64.0)	
	현재 상황	재학 중	6(33.3)	18(66.7)	.13
		취업 중	10(38.5)	26(61.5)	
		진학/취업준비중	15(35.7)	42(64.3)	
		계	31(36.0)	86(64.0)	

p<.01, *p<.001



다음의 표는 아동복지법 규정에 의해, 보호종결 이후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87.9%는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자립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2.1%이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종결유형을 살펴보면, 연장보호종결아동은 만기퇴소 아동에 비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고, 소득수준별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자립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현재 상황을 통해 살펴보면, 재학 중인 응답자가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고(93.9%), 다음으로 진학 또는 취업준비 중(87.2%), 취업 중(84.6%)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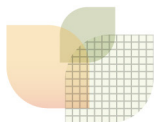
〈표 19〉 보호종결 이후 자립지원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χ^2
전체			1,072(87.9)	148(12.1)	
아 동 복 지 시 설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912(87.1)	135(12.9)	1.00
		공동생활가정	79(90.8)	8(9.2)	
		계	991(87.4)	143(12.6)	
	보호 종결 유형	만기퇴소	627(85.4)	107(14.6)	7.31**
		연장종료	364(91.0)	36(9.0)	
		계	991(87.4)	143(12.6)	
	자립 연차	1년차	252(85.1)	44(14.9)	4.05
		2년차	228(87.7)	32(12.3)	
		3년차	185(87.7)	26(12.3)	
		4년차	160(86.5)	25(13.5)	
		5년차	159(91.4)	15(8.6)	
		계	984(87.4)	142(12.6)	
	소득 수준	수급	285(92.2)	24(7.8)	8.95**
		비수급	702(85.6)	118(14.4)	
		계	987(87.4)	142(12.6)	

구분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χ^2
가정위탁	현재 상황	재학 중	244(93.9)	16(6.2)	13.93***
		취업 중	495(84.6)	90(15.4)	
		진학/취업준비중	252(87.2)	37(12.8)	
		계	991(87.4)	143(12.6)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444(82.4)	95(17.6)	29.18***
		전문대	315(89.2)	38(10.8)	
		대학교 이상	232(95.9)	10(4.1)	
		계	991(87.4)	143(12.6)	
가정위탁	보호 종결 유형	만기퇴소	45(100.0)	-	5.83*
		연장종료	36(87.8)	5(12.2)	
		계	81(94.2)	5(5.8)	
	자립 연차	1년차	41(93.2)	3(6.8)	1.47
		2년차	18(100.0)	-	
		3년차 이상	22(91.7)	2(8.3)	
		계	81(94.2)	5(5.8)	
	소득 수준	수급	34(100.0)	-	3.47
		비수급	47(90.4)	5(9.6)	
		계	81(94.2)	5(5.8)	
	현재 상황	재학 중	17(94.4)	1(5.6)	.32
		취업 중	25(96.2)	1(3.9)	
진학/취업준비중		39(92.9)	3(7.1)		
계		81(94.2)	5(5.8)		

*p<.05, **p<.01, ***p<.001



다음은 현재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자립지원기간 5년에 대한 적절성 인식정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현재 자립지원기간인 5년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71.5%로 높게 나타났고,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28.4%이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의 자립연차별로 살펴보면, 자립지원기간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1년차는 76.0%, 2년차는 72.7%, 3년차는 72.0%, 4년차는 67.5%, 5년차는 59.5%로 나타나, 퇴소한 지 오래될수록 자립지원기간 5년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앞서 자립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연차가 높을수록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던 반면, 자립지원기간 5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연차가 높을수록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여 자립지원을 위한 필요기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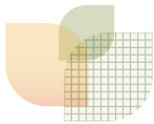
〈표 20〉 현재 자립지원기간(5년) 적절성 인식

(단위: 명, %)

구분			전혀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적절함	매우 적절함	χ^2
전체			50(4.1)	297(24.3)	797(65.3)	76(6.2)	
아 동 복 지 시 설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47(4.5)	268(25.6)	670(64.0)	62(5.9)	3.77
		공동생활가정	2(2.3)	17(19.5)	60(69.0)	8(9.2)	
		계	49(4.3)	285(25.1)	730(64.4)	70(6.2)	
	보호 종결 유형	만기퇴소	31(4.2)	180(24.5)	475(64.7)	48(6.5)	.84
		연장종료	18(4.5)	105(26.3)	255(63.8)	22(5.5)	
		계	49(4.3)	285(25.1)	730(64.4)	70(6.2)	
	자립 연차	1년차	10(3.4)	61(20.6)	206(69.6)	19(6.4)	27.11**
		2년차	9(3.5)	62(23.9)	172(66.2)	17(6.5)	
		3년차	5(2.4)	54(25.6)	138(65.4)	14(6.6)	
		4년차	6(3.2)	54(29.2)	112(60.5)	13(7.0)	
		5년차	17(9.8)	53(30.5)	97(55.8)	7(4.0)	
		계	47(4.2)	284(25.2)	725(64.4)	70(6.2)	

구분			전혀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적절함	매우 적절함	χ^2
가 정 위 탁	소득 수준	수급	11(3.6)	73(23.6)	212(68.6)	13(4.2)	5.04
		비수급	38(4.6)	212(25.9)	513(62.6)	57(7.0)	
		계	49(4.3)	285(25.2)	725(64.2)	70(6.2)	
	현재 상황	재학 중	9(3.5)	59(22.7)	176(67.7)	16(6.2)	3.30
		취업 중	27(4.6)	150(25.6)	368(62.9)	40(6.8)	
		진학/취업준비중	13(4.5)	76(26.3)	186(64.4)	14(4.8)	
		계	49(4.3)	285(25.1)	730(64.4)	70(6.2)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28(5.2)	135(25.1)	345(64.0)	31(5.8)	3.36
		전문대	13(3.7)	84(23.8)	234(66.3)	22(6.2)	
		대학교 이상	8(3.3)	66(27.3)	151(62.4)	17(7.0)	
		계	49(4.3)	285(25.1)	730(64.4)	70(6.2)	
	보호 종결 유형	만기퇴소	1(2.2)	7(15.6)	34(75.6)	3(6.7)	1.16
		연장종료	-	5(12.2)	33(80.5)	3(7.3)	
		계	1(1.2)	12(14.0)	67(77.9)	6(7.0)	
	자립 연차	1년차	-	7(15.9)	34(77.3)	3(6.8)	3.57
		2년차	-	2(11.1)	14(77.8)	2(11.1)	
		3년차 이상	1(4.17)	3(12.5)	19(79.17)	1(4.17)	
		계	1(1.2)	12(14.0)	67(77.9)	6(7.0)	
	소득 수준	수급	-	7(20.6)	24(70.6)	3(8.8)	3.09
		비수급	1(1.9)	5(9.6)	43(82.7)	3(5.8)	
		계	1(1.2)	12(14.0)	67(77.9)	6(7.0)	
	현재 상황	재학 중	-	2(11.1)	15(83.3)	1(5.6)	5.31
		취업 중	-	5(19.2)	21(80.8)	-	
		진학/취업준비중	1(2.4)	5(11.9)	31(73.8)	5(11.9)	
		계	1 (1.2)	12 (14.0)	67 77.9)	6 (7.0)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1(2.2)	8(17.4)	33(71.7)	4(8.7)	2.88
		전문대	-	3(11.5)	22(84.6)	1(3.9)	
		대학교 이상	-	1(7.1)	12(85.7)	1(7.1)	
		계	1(1.2)	12(14.0)	67(77.9)	6(7.0)	

**p<.01



다음의 표는 보호종결 이후 적절한 자립지원기간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5년 이상 7년 미만이 2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년 이상 5년 미만이 25.3%, 1년 이상 3년 미만이 14.9%, 취업 전까지가 11.8%, 7년 이상 10년 미만이 10.6%, 10년 이상이 5.3%, 1년 미만이 2.7%, 기타가 1.1%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립지원기간인 5년을 기준으로, 자립지원기간으로 적절하다고 응답한 기간은 5년 이상은 44.2%, 5년 미만이 42.9%, 취업 전까지는 11.8%, 기타 1.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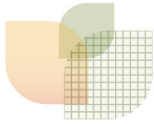
적절한 자립지원기간이 5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년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보다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21〉 보호종결 이후 적절한 자립지원기간

(단위: 명, %)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취업 전까지	기타	χ^2
전체			33 (2.7)	182 (14.9)	308 (25.3)	345 (28.3)	129 (10.6)	64 (5.3)	144 (11.8)	14 (1.1)	
아 동 복 지 시 설	보호 종결 유형	만기퇴소	20 (2.7)	115 (15.7)	186 (25.4)	201 (27.4)	83 (11.3)	39 (5.3)	80 (10.9)	9 (1.2)	4.03
		연장종료	9 (2.3)	50 (12.5)	102 (25.5)	126 (31.5)	41 (10.3)	23 (5.78)	45 (11.3)	4 (1.0)	
		계	29 (2.6)	165 (14.6)	288 (25.4)	327 (28.9)	124 (10.9)	62 (5.5)	125 (11.0)	13 (1.2)	
	자립 연차	1년차	8 (2.7)	56 (18.9)	75 (25.3)	72 (24.3)	25 (8.5)	13 (4.4)	42 (14.2)	5 (1.7)	39.30
		2년차	5 (1.9)	41 (15.8)	70 (26.9)	78 (30.0)	24 (9.2)	15 (5.8)	25 (9.6)	2 (0.8)	
		3년차	5 (2.4)	25 (11.9)	61 (29.1)	68 (32.4)	21 (10.0)	7 (3.3)	21 (10.0)	2 (1.0)	
		4년차	4 (2.2)	24 (13.0)	40 (21.6)	64 (34.6)	26 (14.1)	9 (4.9)	16 (8.7)	2 (1.1)	
		5년차	7 (4.0)	19 (10.9)	39 (22.4)	45 (25.9)	27 (15.5)	17 (9.8)	18 (10.3)	2 (1.2)	
		계	29 (2.6)	165 (14.7)	285 (25.3)	327 (29.1)	123 (10.9)	61 (5.4)	122 (10.8)	13 (1.2)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취업 전까지	기타	χ^2
가정 위탁	소득 수준	수급	5 (1.6)	44 (14.2)	72 (23.3)	89 (28.8)	33 (10.7)	19 (6.2)	44 (14.2)	3 (1.0)	6.66
		비수급	24 (2.9)	120 (14.7)	214 (26.1)	237 (28.9)	91 (11.1)	42 (5.1)	81 (9.9)	10 (1.2)	
		계	29 (2.6)	164 (14.5)	286 (25.4)	326 (28.9)	124 (11.0)	61 (5.4)	125 (11.1)	13 (1.1)	
	현재 상황	재학 중	4 (1.5)	33 (12.7)	63 (24.2)	82 (31.5)	30 (11.5)	9 (3.5)	37 (14.2)	2 (0.8)	15.02
		취업 중	17 (2.9)	84 (14.4)	156 (26.7)	167 (28.6)	64 (11.0)	36 (6.2)	51 (8.7)	9 (1.5)	
		진학/취업 준비중	8 (2.8)	48 (16.6)	69 (23.9)	78 (27.0)	30 (10.4)	17 (5.9)	37 (12.8)	2 (0.7)	
		계	29 (2.6)	165 (14.6)	288 (25.4)	327 (28.9)	124 (10.9)	62 (5.5)	125 (11.0)	13 (1.2)	
	보호 종결 유형	만기퇴소	3 (6.7)	11 (24.4)	8 (17.8)	8 (17.8)	4 (8.9)	1 (2.2)	9 (20.0)	1 (2.2)	6.17
		연장종료	1 (2.4)	6 (14.6)	12 (29.3)	10 (24.4)	1 (2.4)	1 (2.4)	10 (24.4)	-	
		계	4 (4.7)	17 (19.8)	20 (23.3)	18 (20.9)	5 (5.8)	2 (2.3)	19 (22.1)	1 (1.2)	
	소득 수준	수급	2 (5.9)	6 (17.7)	8 (23.5)	7 (20.6)	1 (2.9)	-	10 (29.4)	-	4.44
		비수급	2 (3.9)	11 (21.2)	12 (23.1)	11 (21.2)	4 (7.7)	2 (3.9)	9 (17.3)	1 (1.9)	
		계	4 (4.7)	17 (19.8)	20 (23.3)	18 (20.9)	5 (5.8)	2 (2.3)	19 (22.1)	1 (1.2)	
	현재 상황	재학 중	1 (5.6)	3 (16.7)	6 (33.3)	3 (16.7)	-	-	5 (27.8)	-	6.79
		취업 중	-	6 (23.1)	6 (23.1)	6 (23.1)	2 (7.7)	1 (3.9)	5 (19.2)	-	
		진학/취업 준비중	3 (7.1)	8 (19.1)	8 (19.1)	9 (21.4)	3 (7.1)	1 (2.4)	9 (21.4)	1 (2.4)	
		계	4 (4.7)	17 (19.8)	20 (23.3)	18 (20.9)	5 (5.8)	2 (2.3)	19 (22.1)	1 (1.2)	



다음은 자립지원기간 동안 가장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생활비지원이 41.1%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주거지원이 36.3%,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자립지원 6.0%, 학업지원 4.5% 등의 순이었다.

아동복지시설도 위와 마찬가지로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생활비지원(39.8%)과 주거지원(37.4%)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보호종결 당시상황과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취업 중이었을 때보다 직업이 없는 재학생과 진학/취업준비 중인 응답자가 생활비지원이 더 필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 중인 응답자는 생활비지원보다는 주거지원이 더 시급하였던 것으로 보여 진다.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인 58.3%가 생활비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에 비해 주거지원은 22.6%로 다소 낮았다. 또한 건강지원과 법률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혀 없었고, 상담지원, 활동지원 등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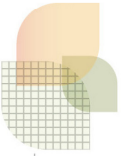
가정위탁은 보호 중 세대에 대한 정부지원 LH전세주택으로 인해 주거마련의 어려움이 아동복지시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여 진다.

〈표 22〉 자립지원기간 5년 동안 가장 필요한 서비스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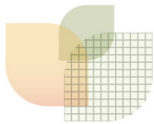
구분			생활비지원	주거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기타	χ^2
전체			494(41.1)	437(36.3)	50(4.2)	54(4.5)	72(6.0)	31(2.6)	12(1.0)	29(2.4)	24(2.0)	
아 동 복 지 시 설	성별	남성	236(39.4)	231(38.6)	21(3.5)	29(4.8)	36(6.0)	15(2.5)	7(1.2)	15 (2.5)	9(1.5)	5.70
		여성	209(40.2)	187(36.0)	29(5.6)	20(3.9)	31(6.0)	15(2.9)	5(1.0)	11(2.1)	13(2.5)	
		계	445(39.8)	418(37.4)	50(4.5)	49(4.4)	67(6.0)	30(2.7)	12(1.1)	26(2.3)	22(2.0)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406(39.3)	391(37.9)	46(4.5)	48(4.7)	61(5.9)	27(2.6)	12(1.2)	23(2.2)	18(1.7)	9.05
		공동생활가정	39(44.8)	27(31.0)	4(4.6)	1(1.2)	6(6.9)	3(3.5)	-	3(3.5)	4(4.6)	
		계	445(39.8)	418(37.4)	50(4.5)	49(4.4)	67(6.0)	30(2.7)	12(1.1)	26(2.3)	22(2.0)	
	자립 연차	1년차	139(47.4)	89(30.4)	16(5.5)	14(4.8)	14(4.8)	6(2.1)	1(0.3)	7(2.4)	7(2.4)	48.42
		2년차	108(42.4)	82(32.2)	12(4.7)	15(5.9)	14(5.5)	9(3.5)	1(0.4)	8(3.1)	6(2.4)	
		3년차	75(36.6)	90(43.9)	6(2.9)	7(3.4)	10(4.9)	8(3.9)	2(1.0)	3(1.5)	4(2.0)	
		4년차	63(34.1)	70(37.8)	9(4.9)	8(4.3)	17(9.2)	4(2.2)	5(2.7)	5(2.7)	4(2.2)	
		5년차	54(31.2)	85(49.1)	7(4.1)	5(2.9)	12(6.9)	3(1.7)	3(1.7)	3(1.7)	1(0.6)	
		계	439(39.5)	416(37.4)	50(4.5)	49(4.4)	67(6.0)	30(2.7)	12(1.1)	26(2.3)	22(2.0)	
	소득 수준	수급	141(46.5)	103(34.0)	7(2.3)	16(5.3)	15(5.0)	6(2.0)	1(0.3)	8(2.6)	6(2.0)	15.50
		비수급	300(37.0)	315(38.8)	43(5.3)	33(4.1)	52(6.4)	24(3.0)	11(1.4)	18(2.2)	15(1.9)	
		계	441(39.6)	418(37.5)	50(4.5)	49(4.4)	67(6.0)	30(2.7)	12(1.1)	26(2.3)	21(1.9)	

구분			생활비지원	주거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기타	χ^2
	보호 종결 상황	재학 중	80(42.6)	73(38.8)	8(4.3)	9(4.8)	7(3.7)	4(2.1)	1(0.5)	3(1.6)	3(1.6)	30.30*
		취업 중	121(31.0)	156(39.9)	24(6.1)	21(5.4)	29(7.4)	13(3.3)	3(0.8)	14(3.6)	10(2.6)	
		진학/취업 준비 중	244(45.2)	189(35.0)	18(3.3)	19(3.5)	31(5.7)	13(2.4)	8(1.5)	9(1.7)	9(1.7)	
		계	445(39.8)	418(37.4)	50(4.5)	49(4.4)	67(6.0)	30(2.7)	12(1.1)	26(2.3)	22(2.0)	
	현재 상황	재학 중	138(53.5)	76(29.5)	4(1.6)	18(7.0)	6(2.3)	5(1.9)	-	7(2.7)	4(1.6)	67.46***
		취업 중	182(31.7)	255(44.4)	29(5.0)	16(2.8)	40(7.0)	19(3.3)	8(1.4)	12(2.1)	14(2.4)	
		진학/취업 준비 중	125(43.7)	87(30.4)	17(5.9)	15(5.2)	21(7.3)	6(2.1)	4(1.4)	7(2.5)	4(1.4)	
		계	445(39.8)	418(37.4)	50(4.5)	49(4.4)	67(6.0)	30(2.7)	12(1.1)	26(2.3)	22(2.0)	
가 정 위 탁	성별	남성	15(55.6)	5(18.5)	-	2(7.4)	2(7.4)	1(3.7)	-	2(7.4)	-	5.33
		여성	34(59.7)	14(24.6)	-	3(5.3)	3(5.3)	-	-	1(1.8)	2(3.5)	
		계	49(58.3)	19(22.6)	-	5(6.0)	5(6.0)	1(1.2)	-	3(3.6)	2(2.4)	
	자립 연차	1년차	26(59.1)	14(31.8)	-	1(2.3)	2(4.6)	-	-	1(2.3)	-	18.59
		2년차	10(62.5)	2(12.5)	-	2(12.5)	-	1(6.3)	-	1(6.3)	-	
		3년차 이상	13(54.2)	3(12.5)	-	2(8.3)	3(12.5)	-	-	1(4.2)	2(8.3)	
		계	49(58.3)	19(22.6)	-	5(6.0)	5(6.0)	1(1.2)	-	3(3.6)	2(2.4)	



구분			생활비지원	주거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기타	χ^2
소득 수준	수급		17(53.1)	7(21.9)	-	4(12.5)	1(3.1)	-	-	2(6.3)	1(3.1)	6.44
	비수급		32(61.5)	12(23.1)	-	1(1.9)	4(7.7)	1(1.9)	-	1(1.9)	1(1.9)	
	계		49(58.3)	19(22.6)	-	5(6.0)	5(6.0)	1(1.2)	-	3(3.6)	2(2.4)	
보호 종결 상황	재학 중		6(46.2)	5(38.5)	-	1(7.7)	5(38.5)	-	-	-	1(7.7)	11.32
	취업 중		14(70.0)	3(15.0)	-	-	1(5.0)	1(5.0)	-	1(5.0)	-	
	진학/취업 준비 중		29(56.9)	11(21.6)	-	4(7.8)	4(7.8)	-	-	2(3.9)	1(2.0)	
	계		49(58.3)	19(22.6)	-	5(6.0)	5(6.0)	1(1.2)	-	3(3.6)	2(2.4)	
현재 상황	재학 중		9(52.9)	5(29.4)	-	2(11.8)	-	-	-	-	1(5.9)	10.24
	취업 중		17(65.4)	6(23.1)	-	-	1(3.9)	1(3.9)	-	1(3.9)	-	
	진학/취업 준비 중		23(56.1)	8(19.5)	-	3(7.3)	4(9.8)	-	-	2(4.9)	1(2.4)	
	계		49(58.3)	19(22.6)	-	5(6.0)	5(6.0)	1(1.2)	-	3(3.6)	2(2.4)	

*p<.05, ***p<.001



다음의 표는 보호종결 이후 가장 어려웠던 점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이 31.1%로 가장 높았고, 주거문제가 24.2%, 심리적 부담감이 10.1%, 돈 관리 지식 부족이 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다른 조사결과와 함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비용과 주거에 대한 어려움이 보호종결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따라 초기 자립안정을 위한 지원서비스 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시설 응답자의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주거의 어려움이 컸다고 응답하고 있고, 심리적 부담감 또한 여성이 더 높았다. 반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취업정보, 기술, 자격부족에 대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음의 표를 통해, 보호종결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적 어려움, 돈 관리 지식부족, 취업정보 및 기술자격 부족, 지역사회자원 및 정보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줄어든 반면, 주거문제나 사회적 편견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의 소득수준으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 주거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었으며, 취업자보다는 재학 중이거나 진학 또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무직자의 주거문제가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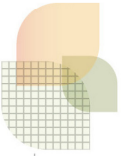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 주거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나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과 비슷하였다. 하지만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보호종결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보호종결 이후 가장 어려운 점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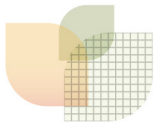
구분			취업 정보, 기술, 자격 부족	직장 내 인간관계 어려움	주거 문제	일상생활 기술 부족	지역자원 및 정보 부족	응급 시 도움 자원 부족	돈 관리 지식 부족	사회적 편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부담	기타	χ^2
전체			81 (6.8)	42 (3.5)	287 (24.2)	21 (1.8)	39 (3.3)	44 (3.7)	91 (7.7)	34 (2.9)	370 (31.1)	120 (10.1)	59 (5.0)	
아 동 복 지 시 설	성별	남성	51 (8.6)	20 (3.4)	135 (22.8)	13 (2.2)	14 (2.4)	21 (3.6)	53 (9.0)	22 (3.7)	177 (29.9)	54 (9.1)	32 (5.4)	19.08*
		여성	25 (4.9)	20 (3.9)	138 (26.9)	6 (1.2)	21 (4.1)	21 (4.1)	36 (7.0)	12 (2.3)	149 (29.0)	64 (12.5)	21 (4.1)	
		계	76 (6.9)	40 (3.6)	273 (24.7)	19 (1.7)	35 (3.2)	42 (3.8)	89 (8.1)	34 (3.1)	326 (29.5)	118 (10.7)	53 (4.8)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70 (6.9)	35 (3.4)	260 (25.5)	19 (1.8)	32 (3.1)	38 (3.7)	82 (8.1)	33 (3.2)	296 (29.1)	104 (10.2)	49 (4.8)	11.16
		공동생활가정	6 (6.9)	5 (5.8)	13 (14.9)	0 (0.0)	3 (3.5)	4 (4.6)	7 (8.1)	1 (1.2)	30 (34.5)	14 (16.1)	4 (4.6)	
		계	76 (6.9)	40 (3.6)	273 (24.7)	19 (1.7)	35 (3.2)	42 (3.8)	89 (8.1)	34 (3.1)	326 (29.5)	118 (10.7)	53 (4.8)	
	자립 연차	1년차	29 (10.3)	6 (2.1)	47 (16.7)	6 (2.1)	10 (3.6)	8 (2.9)	26 (9.3)	5 (1.8)	92 (32.7)	37 (13.2)	15 (5.3)	71.39**
		2년차	15 (5.9)	13 (5.1)	60 (23.4)	4 (1.6)	10 (3.9)	7 (2.7)	22 (8.6)	7 (2.7)	79 (30.9)	20 (7.8)	19 (7.4)	
		3년차	16 (7.8)	10 (4.9)	57 (27.9)	6 (2.9)	6 (2.9)	10 (4.9)	15 (7.4)	8 (3.9)	53 (26.0)	19 (9.3)	4 (2.0)	
		4년차	9 (4.9)	5 (2.7)	43 (23.4)	3 (1.6)	7 (3.8)	11 (6.0)	17 (9.2)	4 (2.1)	55 (29.9)	20 (10.9)	10 (5.4)	

구분			취업 정보, 기술, 자격 부족	직장 내 인간관계 어려움	주거 문제	일상생활 기술 부족	지역자원 및 정보 부족	응급 시 도움 자원 부족	돈 관리 지식 부족	사회적 편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부담	기타	χ^2
		5년차	7 (4.1)	6 (3.5)	64 (37.2)	0 (0.0)	2 (1.2)	5 (2.9)	9 (5.2)	10 (5.8)	42 (24.4)	22 (12.8)	5 (2.9)	
		계	76 (6.9)	40 (3.7)	271 (24.7)	19 (1.7)	35 (3.2)	41 (3.7)	89 (8.1)	34 (3.1)	321 (29.3)	118 (10.8)	53 (4.8)	
	소득 수준	수급	19 (6.3)	8 (2.7)	63 (20.9)	7 (2.3)	7 (2.3)	9 (3.0)	25 (8.3)	6 (2.0)	114 (37.8)	34 (11.3)	10 (3.3)	20.40*
		비수급	57 (7.1)	32 (4.0)	210 (26.3)	11 (1.4)	28 (3.5)	33 (4.1)	64 (8.0)	28 (3.5)	209 (26.2)	84 (10.5)	42 (5.3)	
		계	76 (6.9)	40 (3.6)	273 (24.8)	18 (1.6)	35 (3.2)	42 (3.8)	89 (8.1)	34 (3.1)	323 (29.4)	118 (10.7)	52 (4.7)	
	보호 종결 상황	재학 중	6 (3.2)	10 (5.3)	48 (25.3)	2 (1.1)	5 (2.6)	6 (3.2)	8 (4.2)	7 (3.7)	73 (38.4)	18 (9.5)	7 (3.7)	52.77***
		취업 중	21 (5.5)	17 (4.4)	102 (26.5)	8 (2.1)	12 (3.1)	22 (5.7)	38 (9.9)	15 (3.9)	77 (20.0)	49 (12.7)	24 (6.2)	
		진학/취업 준비 중	49 (9.3)	13 (2.5)	123 (23.2)	9 (1.7)	18 (3.4)	14 (2.6)	43 (8.1)	12 (2.3)	176 (33.2)	51 (9.6)	22 (4.2)	
		계	76 (6.9)	40 (3.6)	273 (24.7)	19 (1.7)	35 (3.2)	42 (3.8)	89 (8.1)	34 (3.1)	326 (29.5)	118 (10.7)	53 (4.8)	
가 정 위 탁	성별	남성	3 (11.5)	1 (3.9)	2 (7.7)	-	-	1 (3.9)	1 (3.9)	-	17 (65.4)	-	1 (3.9)	10.12
		여성	2 (3.5)	1 (1.8)	12 (21.1)	2 (3.5)	4 (7.0)	1 (1.8)	1 (1.8)	-	27 (47.4)	2 (3.5)	5 (8.8)	
		계	5 (6.0)	2 (2.4)	14 (16.8)	2 (2.4)	4 (4.8)	2 (2.4)	2 (2.4)	-	44 (53.0)	2 (2.4)	6 (7.2)	



구분			취업 정보, 기술, 자격 부족	직장 내 인간관계 어려움	주거 문제	일상생활 기술 부족	지역자원 및 정보 부족	응급 시 도움 자원 부족	돈 관리 지식 부족	사회적 편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부담	기타	χ^2
	자립 연차	1년차	2 (4.6)	1 (2.3)	7 (15.9)	1 (2.3)	2 (4.6)	-	1 (2.3)	-	25 (56.8)	2 (4.6)	3 (6.8)	16.31
		2년차	2 (13.3)	1 (6.7)	3 (20.0)	1 (6.7)	1 (6.7)	-	1 (6.7)	-	6 (40.0)	-	-	
		3년차 이상	1 (4.2)	-	4 (16.7)	-	1 (4.2)	2 (8.3)	-	-	13 (54.2)	-	3 (12.5)	
		계	5 (6.0)	2 (2.4)	14 (16.9)	2 (2.4)	4 (4.8)	2 (2.4)	2 (2.4)	-	44 (53.0)	2 (2.4)	6 (7.2)	
	소득 수준	수급	3 (9.4)	-	7 (21.9)	-	2 (6.3)	1 (3.1)	-	-	16 (50.0)	1 (3.1)	2 (6.3)	6.11
		비수급	2 (3.9)	2 (3.9)	7 (13.7)	2 (3.9)	2 (3.9)	1 (2.0)	2 (3.9)	-	28 (54.9)	1 (2.0)	4 (7.8)	
		계	5 (6.0)	2 (2.4)	14 (16.9)	2 (2.4)	4 (4.8)	2 (2.4)	2 (2.4)	-	44 (53.0)	2 (2.4)	6 (7.2)	
	보호 종결 상황	재학 중	-	-	4 (30.8)	1 (7.7)	1 (7.7)	-	-	-	6 (46.2)	-	1 (7.7)	9.70
		취업 중	1 (5.0)	1 (5.0)	2 (10.0)	-	1 (5.0)	1 (5.0)	1 (5.0)	-	10 (50.0)	1 (5.0)	2 (10.0)	
		진학 /취업 준비 중	4 (8.0)	1 (2.0)	8 (16.0)	1 (2.0)	2 (4.0)	1 (2.0)	1 (2.0)	-	28 (56.0)	1 (2.0)	3 (6.0)	
		계	5 (6.0)	2 (2.4)	14 (16.9)	2 (2.4)	4 (4.8)	2 (2.4)	2 (2.4)	-	44 (53.0)	2 (2.4)	6 (7.2)	

*p<.05, **p<.01, ***p<.001



제3절 자립지원금 활용 현황

다음은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지원금 활용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본 조사에서 자립지원금은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CDA), 후원금으로 구분한다.

자립정착금이란 만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에 시설 퇴소 또는 위탁 종료 시 자립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자립지원금이다.

디딤씨앗통장(CDA)란 보호아동이 후원자의 지원을 받아 월 3만원 이내의 기본적립금을 적립하면 정부(지자체)에서도 만18세에 달할 때까지 동일한 금액을 3만원 내에서 매칭계좌에 입금하여 보호아동의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해당 적립금은 만18세 이후 일정기간동안 학자금, 기술습득비용, 창업비용, 주거마련비용, 의료비, 결혼자금 등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후원금은 보호아동이 시설에 살면서 개인 또는 기관 후원금을 받게 될 수 있는데, 후원금의 경우 개별 아동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다.

자립지원금 평균 수령액은 자립정착금 424만원, CDA 328만원, 후원금 29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령한 자립지원금을 보호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의 자립정착금 평균 수령액은 422만원, CDA 평균 수령액은 329만원, 후원금 평균 수령액은 300만원으로 보호종결 시 1,051만원의 자립지원금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자립정착금 평균 수령액은 457만원, CDA 평균 수령액은 335만원, 후원금 평균 수령액은 280만원으로 보호종결 시 아동양육시설과 비슷한 1,072만원의 자립지원금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정위탁의 경우에는 자립정착금이 431만원, CDA는 258만원, 후원금이 없어 보호종결 시 689만원의 자립지원금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나 자립지원금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위탁의 대다수가 친인척 또는 대리 가정위탁으로 후원금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표 24〉 자립지원금 평균 수령액

(단위: 명, 만원)

구분	자립정착금		CDA		후원금	
	N	Mean	N	Mean	N	Mean
전체	812	424.8	637	328.8	303	299.8
아동양육시설	719	422.2	589	329.8	290	300.7
공동생활가정	49	457.1	36	335.5	13	280.7
가정위탁	44	431.8	12	258.8	-	-

다음의 표는 아동양육시설의 자립지원금에 대한 2012년도 자립실태조사와 2016년도 자립실태조사를 비교한 결과이다. 2012년도 평균 자립지원금은 632만원, 2016년도 평균 자립지원금은 1,051만원으로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유형의 자립지원금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CDA는 약 3배, 후원금은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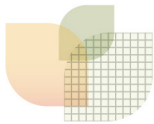
〈표 25〉 2012년도 및 2016년도 자립지원금 조사결과 비교표: 아동양육시설을 중심으로

(단위: 만원)

구분	2012년도 자립지원금	2016년도 자립지원금
합계	632	1,051
자립정착금	382	422
CDA	103	329
후원금	147	300

다음의 표는 자립정착금을 수령하였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수령시기를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호종결 후 1개월 이내가 47.3%로 가장 높았고, 보호종결 전 16.1%, 보호종결 후 3개월 이내 14.9%, 보호종결 후 6개월 이내 11.9%, 보호종결 후 1년 이내 5.4%, 보호종결 후 1년 이상 4.5% 순으로 나타났다.

자립정착금을 받는 데에 3개월 이상 걸린 경우가 21.8%로 나타났다. 보호종결 직후는 초기 자립비용이 많이 드는 시점임에도 자립정착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자립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방이양사업인 자립정착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사안으로써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칫 자립정착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보호아동의 자립의 질과 직결되는 자립지원사업에 대한 중앙환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표 26〉 자립정착금 수령시기

(단위: 명, %)

구분	보호종결 전	보호종결 후 1개월 이내	보호종결 후 3개월 이내	보호종결 후 6개월 이내	보호종결 후 1년 이내	보호종결 후 1년 이상	계
전체	132(16.1)	388(47.3)	122(14.9)	98(11.9)	44(5.4)	37(4.5)	821(100)
아동양육시설	115(15.8)	354(48.8)	107(14.7)	85(11.7)	35(4.8)	30(4.1)	726(100)
공동생활가정	10(20.0)	23(46.0)	5(10.0)	5(10.0)	3(6.0)	4(8.0)	50(100)
가정위탁	7(15.6)	11(24.4)	10(22.2)	8(17.8)	6(13.3)	3(6.7)	45(100)

다음의 표는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CDA), 후원금으로 구성된 자립지원금을 지출한 사용내역을 살펴본 조사결과이다.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로 지출한 경우가 4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생활비 39.3%,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 26.5%,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 25.4%, 피복신발 25.3%, 수도광열비 등 관리비 2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혀 지출하지 않는 경우도 11.4%정도 되었으며, 일부 지출하고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36.1%에 이르렀다.

〈표 27〉 전체 자립지원금 지출항목별 사용내역(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지출 하지 않음	대학 등록금 및 교재비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수도 광열비 등 관리비	생활비	가전 제품 및 가구 집기 구입비	학원등 록비	피복 신발	의료비	교양 오락비	결혼 자금	유형비	타인과 함께 사용	잔액 있음	기타	계
전체	113	252	491	203	391	263	82	251	139	136	20	47	72	359	104	2,923
	11.4	25.4	49.4	20.4	39.3	26.5	8.2	25.3	14.0	13.7	2.0	4.7	7.2	36.1	10.5	-
아동 양육 시설	100	220	440	186	350	234	72	224	126	122	17	38	63	317	92	874
	11.4	25.2	50.3	21.3	40.0	26.8	8.2	25.6	14.4	14.0	1.9	4.3	7.2	36.3	10.5	100
공동 생활 가정	6	19	29	14	25	26	3	18	7	10	2	7	2	25	11	62
	9.7	30.6	46.8	22.6	40.3	41.9	4.8	29.0	11.3	16.1	3.2	11.3	3.2	40.3	17.7	100
가정 위탁	7	13	22	3	16	3	7	9	6	4	1	2	7	17	1	118
	5.93	11.02	18.64	2.54	13.56	2.54	5.93	7.63	5.08	3.39	0.85	1.69	5.93	14.41	0.8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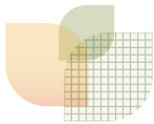
다음의 표는 자립정착금을 지출항목별로 평균 지출액을 조사한 결과이다. 자립정착금은 보호종결 이후 잔액이 있는 경우가 32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잔액을 제외한 지출 항목을 살펴보았을 때, 기타의 사유로 316만원을 사용하여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로 311만원, 결혼자금 256만원, 타인과 함께 사용한 금액이 244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사유로는 보험관련 비용, 청약저축, 시설 내 기부금, 나를 위해 돈을 쓰고 싶었거나 사용처가 많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자립정착금 활용 인원을 토대로 살펴보면,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가 34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생활비 219명, 잔액이 있는 경우가 217명,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가 151명,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 141명, 피복신발 138명, 수도권열비 등 관리비 109명, 교양오락비 76명, 의료비 75명, 기타 56명, 타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가 42명, 학원등록비가 40명, 유흥비가 21명, 결혼자금이 5만원 순이었다.

〈표 28〉 자립정착금 항목별 평균 지출액

(단위: 만원, 명)

구분	대학 등록금 및 교재비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관리비	생활비	가전 제품 및 가구 집기 구입비	학원 등록비	피복 신발	의료비	교양 오락비	결혼 자금	유흥비	타인과 함께 사용	잔액 있음	기타
전체	225	311	68	133	125	140	64	60	89	256	84	244	321	316
	141	341	109	219	151	40	138	75	76	5	21	42	217	56
아동 양육 시설	226	312	66	133	115	136	64	62	84	-	85	268	316	309
	127	305	99	194	133	32	122	68	68	-	16	35	189	51
공동 생활 가정	170	297	88	132	206	55	55	28	94	-	90	20	334	352
	7	19	7	15	16	2	12	3	5	-	3	1	13	4
가정 위탁	272	306	76	143	90	191	82	50	183	800	65	145	367	500
	7	17	3	10	2	6	4	4	3	1	2	6	15	1



다음의 표는 항목별 디딤씨앗통장 평균 지출액을 조사한 결과이다. 디딤씨앗통장은 만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습득비용, 창업비용, 주거마련비용, 의료비, 결혼자금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만24세가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디딤씨앗통장 적립금은 결혼자금이 37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잔액이 있는 경우가 323만원,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261만원, 기타 258만원, 타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가 250만원,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 195만원, 유흥비 135만원, 생활비 125만원, 학원등록비 121만원, 의료비 120만원 등의 순이었다.

디딤씨앗통장 활용 인원을 토대로 살펴보면,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가 23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152명, 생활비 94명,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 83명 등의 순이었다.

〈표 29〉 디딤씨앗통장(CDA) 항목별 평균 지출액

(단위: 만원, 명)

구분	대학 등록금 및 교재비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관리비	생활비	가전 제품 및 가구 집기 구입비	학원 등록비	피복 신발	의료비	교양 오락비	결혼 자금	유흥비	타인과 함께 사용	잔액 있음	기타
전체	195	261	103	125	101	121	73	120	81	376	135	250	323	258
	83	152	51	94	55	32	59	34	32	5	12	19	235	40
아동 양육 시설	197	266	104	129	105	126	74	123	87	395	161	264	330	261
	68	138	48	87	51	30	53	32	25	4	9	17	215	39
공동 생활 가정	197	193	83	80	60	50	80	70	61	300	56	150	256	130
	11	9	3	5	3	1	4	2	6	1	3	1	18	1
가정 위탁	162	246	-	80	10	50	30	-	50	-	-	100	148	-
	4	5	-	2	1	1	2	-	1	-	-	1	2	-

다음의 표는 항목별 후원금 평균 지출액을 조사한 결과이다. 후원금은 아동복지 시설에서만 적립되었으며, 가정위탁은 친인척 또는 대리 가정위탁이 대부분으로 후원금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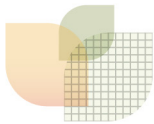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를 제외한 후원금 지출액으로 살펴보면, 결혼자금인 336만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로 244만원, 타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가 202만원, 기타사유로 201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후원금 활용 정도에 따라 살펴보면,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가 8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생활비 76명, 피복신발 50명,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와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는 각 48명 등의 순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 후원금 항목별 평균 지출액

(단위: 만원, 명)

구분	대학 등록금 및 교재비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관리비	생활비	가전 제품 및 가구 집기 구입비	학원 등록비	피복 신발	의료비	교양 오락비	결혼 자금	유형비	타인과 함께 사용	잔액 있음	기타
전체	178	244	94	115	100	116	87	39	98	336	64	202	300	201
	34	48	33	76	48	15	50	16	27	5	16	13	87	25
아동 양육 시설	168	249	97	118	101	-	86	39	100	-	66	-	306	210
	33	45	31	72	45	-	48	14	26	-	14	-	83	23
공동 생활 가정	500	169	57	71	80	-	110	40	50	-	50	-	190	100
	1	3	2	4	3	-	2	2	1	-	2	-	4	2



다음의 표는 자립정착금 사용 시 주된 의논상대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스스로 결정하여 사용한 경우가 58.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시설이나 가정위탁 지원센터 담당자와 의논하는 비율이 20.5%, 가족 또는 친인척과 의논하는 경우가 12.6%, 친구를 포함한 지인과 의논하는 비율이 4.9%, 기타 3.3% 순이었다.

보호유형별로 살펴보면, 모든 보호체계의 보호종결아동은 자립정착금을 사용하는데 스스로 결정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스스로 결정하는 비율이 시설담당자와 의논하는 경우보다 3배 정도 높게 나타났고, 공동생활 가정은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가 42.0%, 시설담당자와 의논하는 경우가 36.0%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대규모시설인 아동양육시설과 소규모시설인 공동생활가정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가정위탁 또한 스스로 결정하는 비율이 52.3%로 가장 높았으나, 다음으로 가족 또는 친인척과 의논하는 비율이 36.4%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과 친인척과의 거리가 가까운 가정위탁의 특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보여 진다.

〈표 31〉 자립정착금 사용 시 주된 의논 상대

(단위: 명, %)

구분	스스로 결정	가족 또는 친인척	지인 (친구포함)	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기타	계	χ^2
전체	481(58.7)	103(12.6)	40(4.9)	168(20.5)	27(3.3)	819(100)	
아동양육시설	437(60.3)	82(11.32)	38(5.2)	147(20.3)	21(2.9)	725(100)	42.82***
공동생활가정	21(42.0)	5(10.0)	1(2.0)	18(36.0)	5(10.0)	50(100)	
가정위탁	23(52.3)	16(36.4)	1(2.3)	3(6.8)	1(2.3)	44(100)	

***p<.001

다음은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 시 주된 의논상대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가 55.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와 의논하는 경우가 23.7%, 가족 또는 친인척과 의논하는 경우가 11.1%, 친구를 포함한 지인과 의논하는 경우가 4.9%, 기타 4.5%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 시 주된 의논 상대

(단위: 명, %)

구분	스스로 결정	가족 또는 친인척	지인 (친구포함)	시설 및 가정위탁 지원센터	기타	계	χ^2
전체	362(55.8)	72(11.1)	32(4.9)	154(23.7)	29(4.5)	649(100)	
아동양육시설	337(56.3)	64(10.7)	32(5.3)	143(23.9)	23(3.8)	599(100)	26.82**
공동생활가정	19(50.0)	3(7.9)	-	10(26.3)	6(15.8)	38(100)	
가정위탁	6(50.0)	5(41.7)	-	1(8.3)	-	1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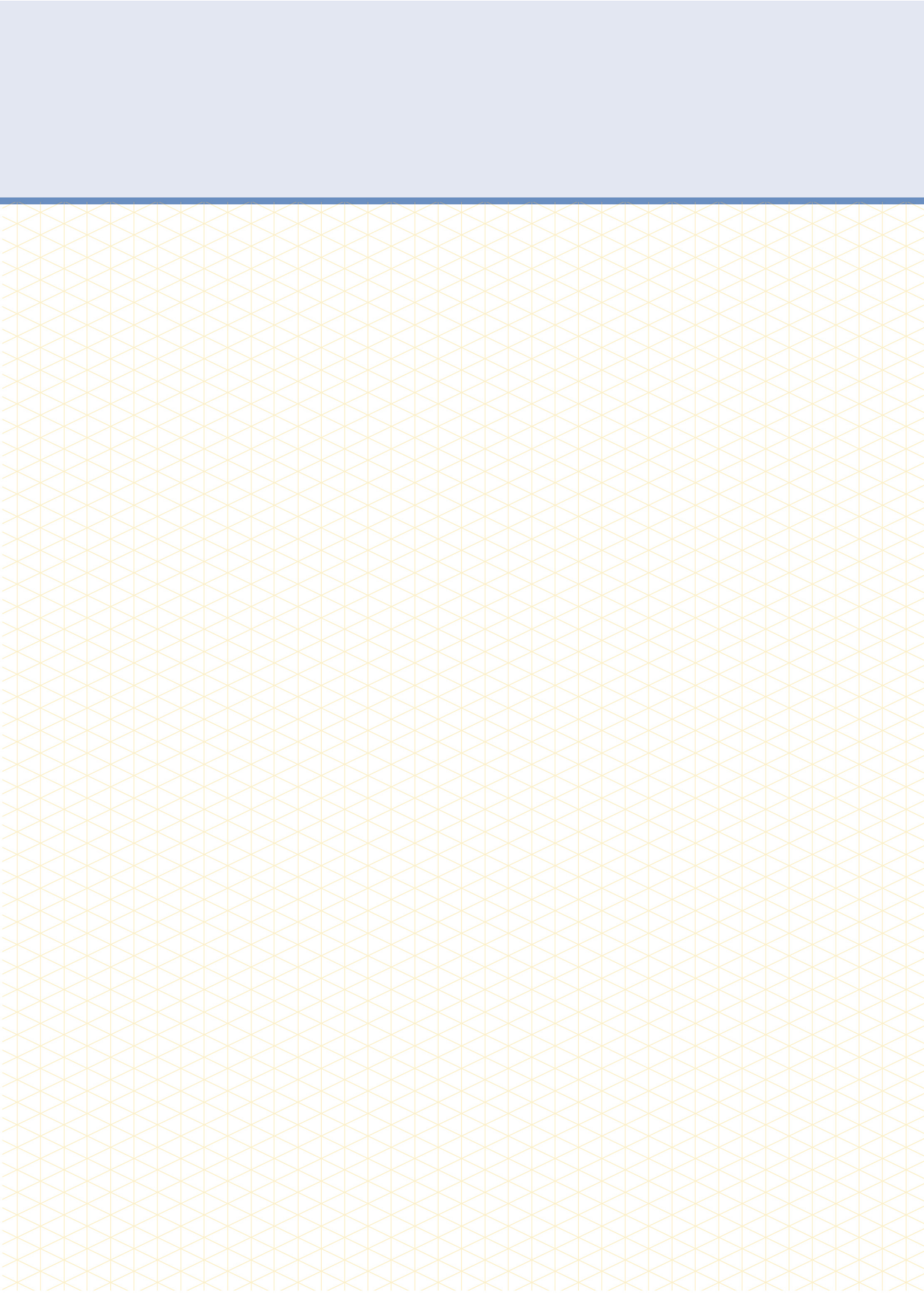
**p<.01

다음은 후원금 사용 시 주된 의논상대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외부 후원기관 또는 개인 후원자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또한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다음으로 시설담당자와 의논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후원금 사용 시 주된 의논 상대

(단위: 명, %)

구분	스스로 결정	가족 또는 친인척	지인 (친구포함)	시설 및 가정위탁 지원센터	기타	계	χ^2
전체	188(56.6)	33(9.9)	12(3.6)	87(26.2)	12(3.6)	332(100)	
아동양육시설	180(57.0)	33(10.4)	12(3.8)	81(25.6)	10(3.2)	316(100)	9.42
공동생활가정	8(53.3)	-	-	5(33.3)	2(13.3)	15(100)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제6장 주거현황

제1절 주거이용실태 및 욕구 100

제6장 주거현황



제1절 주거이용실태 및 욕구

보호종결아동에게 주거는 자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본 조사를 통해 보호종결아동의 주거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의 표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주거유형과 임차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대상자의 33.9%는 전세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월세가 28.1%, 자립지원시설 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도 자립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장 많은 주거형태가 월세(24.5%)였고, 다음으로 자립지원시설(18.6%), 정부지원 전세주택(16.4%), 학교 또는 회사 기숙사(14.4%)의 순이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4년 전에 비해 정부지원 전세임대주택이 약 2배 정도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는 보호종결아동의 주거관련 정보력이 확장되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지며, 그에 따라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아직까지 신청연령 제한과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의 부재는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보여 진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월세의 비율은 이전보다 높아졌으며, 자립지원시설에 대한 비율은 이전보다 절반 이상 낮아졌다. 자립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주거 마련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다음의 표를 통해 각 주거유형에 대한 임차료를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전세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이 최소 3,750만원에서 최대 8,500만원까지였다. 일반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4,532만원이었고, 전세임대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6,56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전세의 경우 더 나은 자립을 위한 종자돈이 될 수 있는 반면,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지원종료와 함께 반환되는 비용으로써 전세임대주택 입주에 따라 자산형성을 위해서는 일반전세에 사는 대상자보다 명확한 경제관념을 통해 자산을 관리해 나가는 데에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더불어 월세나 고시원, 기숙사 등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보호종결아동에 대한 자산형성을 도울 실질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할 때이기도 하다.

〈표 34〉 주거유형 및 임차료

(단위: 명, %,)

구분		공공/영구/국민 임대 주택	전세 임대 주택	자립 지원 시설	그룹홈	일반 전세	월세 (보증금 있음)	월세 (보증금 없음)	자가	고시원, 고시텔	기숙사	친구	집친척	집	부모님 집	시설 또는 위탁 가정	기타
전체빈도		18 (1.7)	368 (33.9)	80 (7.4)	4 (.4)	41 (3.8)	289 (26.7)	15 (1.4)	14 (1.3)	9 (.8)	84 (7.7)	23 (2.1)	27 (2.5)	54 (5.0)	17 (1.6)	41 (3.8)	
아동 양육 시설 (만원)	보증금	2,174,950	-	-	-	3,976	485	-	-	-	-	-	208	-	-	-	
	월세	11.6	12.5	-	-	28.8	37.6	22.2	-	32.8	22.1	15.5	26.7	-	-	28.5	
	관리비	5	6	9.33	-	6	6.2	5.1	-	-	12.8	10	10	-	-	-	
공동 생활 가정 (만원)	보증금	225	6,230	-	-	5,871	408	-	-	-	-	300	-	-	-	-	
	월세	4	11.6	-	-	21	33.4	-	-	34	45	37.5	-	-	-	9	
	관리비	6	6.4	2	-	8.2	5.3	-	-	-	10	-	15	20	-	-	
가정 위탁 (만원)	보증금	7,000	8,500	-	-	3,750	862	-	-	-	-	200	300	-	-	-	
	월세	-	11	-	-	30	30	20	-	-	-	30	28	-	-	-	
	관리비	-	10	-	-	11	7	4	-	-	-	2.00	50	-	-	-	



〈표 35〉 2012년도 주거유형 및 2016년도 주거유형 조사결과 비교표
: 아동양육시설을 중심으로

(단위: 명, %)

구분	2012년도 주거유형		2016년도 주거유형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656	100	1,084	100
영구/공공/국민임대	8	1.3	18	1.7
LH, SH 등 전세주택	105	16.4	368	33.9
자립지원시설	119	18.6	80	7.4
그룹홈	10	1.6	4	0.4
일반전세	39	6.1	41	3.8
보증금 있는 월세	157	23.9	289	26.7
보증금 없는 월세	-	-	15	1.4
자가	7	1.1	14	1.3
고시원	15	2.3	9	0.8
기숙사(학교/회사)	92	14.4	84	7.7
부모님 집	24	3.8	23	2.1
친구 집	30	4.7	27	2.5
친척 집	12	1.9	54	5.0
시설 또는 위탁가정	-	-	17	1.6
기타	22	3.4	41	3.8

다음의 표는 보호종결 직후의 주거유형과 현재 주거유형을 비교한 결과이며, 아래의 항목 중 시설 또는 위탁가정에 대한 결과는 이전에 보호 중이었기 때문에 별로 분석은 하지 않았다.

보호종결 직후에는 월세의 비율이 20.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립지원시설 9.8%, 학교 또는 회사 기숙사 9.6%, LH, SH 등 전세임대주택 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후 현재는 LH, SH 등 전세임대주택이 33.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월세 28.4%, 학교 또는 회사 기숙사 7.7%, 자립지원시설 7.4%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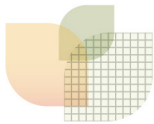
전세임대주택의 비율이 높아져 안정적인 주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월세에 거주하는 비율도 함께 높아져 더 나은 주거로의 전환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표 36〉 주거유형 전후 비교

(단위: 명, %)

구분	이전 주거유형		현재 주거유형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216	100	1,084	100
영구/공공/국민임대	7	.6	18	1.7
LH, SH 등 전세주택	109	9.0	368	33.9
자립지원시설	119	9.8	80	7.4
그룹홈	38	3.1	4	0.4
일반전세	21	1.7	41	3.8
보증금 있는 월세	233	19.2	289	26.7
보증금 없는 월세	20	1.6	15	1.4
자가	8	.7	14	1.3
고시원	24	2.0	9	0.8
기숙사(학교/회사)	117	9.6	84	7.7
부모님 집	59	4.9	23	2.1
친구 집	31	2.5	27	2.5
친척 집	32	2.6	54	5.0
시설 또는 위탁가정	349	28.7	17	1.6
기타	49	4.0	41	3.8

다음의 표는 주거비용을 마련했던 방법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기관에서 충당했다는 응답이 34.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자립정착금 26.4%, 기타 14.6%, 근로소득 13.6%, CDA(디딤씨앗통장) 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기관이 가장 높았다는 결과는 앞서 조사대상자 약 1/3 가량의 주거유형이 전세임대주택임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12년도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연히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지난 조사결과에서 주거마련방법으로 39.3%가 근로하여 스스로 마련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자립정착금으로 마련하였다는 응답이 27.0%였다. 6.6%에 불과하였던 정부기관의 지원이 4년 동안 약 5.1배 이상 증가되었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37〉 주거자금 마련방법(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정부 기관	자립 정착금	CDA	보호 중 후원금	친부모 및 친인척	금융 기관 이용	지인 등을 통해 대여	시설 또는 위탁 부모	민간 후원 단체	근로 소득	아동 자립 지원단	기타	계
전체	414 (34.2)	319 (26.4)	133 (11.0)	61 (5.0)	83 (6.9)	6 (.5)	9 (.7)	36 (3.0)	7 (.6)	165 (13.6)	70 (5.8)	177 (14.6)	1,480 -
아동 양육 시설	352 (33.9)	281 (27.1)	115 (11.1)	53 (5.1)	65 (6.3)	6 (.6)	6 (.6)	27 (2.6)	4 (.4)	152 (14.7)	64 (6.2)	144 (13.9)	1,037 -
공동 생활 가정	32 (36.8)	22 (25.3)	14 (16.1)	7 (8.0)	6 (6.9)	-	2 (.3)	7 (8.0)	1 (1.1)	8 (9.2)	4 (4.6)	14 (16.1)	87 -
가정 위탁	30 (35.3)	16 (18.8)	4 (4.7)	1 (1.2)	12 (14.1)	-	1 (1.2)	2 (2.4)	2 (2.4)	5 (5.9)	2 (2.4)	19 (22.4)	94 -

다음의 표는 조사대상자의 주거비용 부담정도를 나타낸 표이다. 주거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57.5%로 가장 높았지만,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2.5%로 비율상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아동복지시설의 종결유형을 살펴보면, 연장종료 중 주거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58.7%로 만기퇴소 56.5%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현재 상황으로 살펴보면, 진학 또는 취업준비 중인 조사대상자는(63.6%) 취업자 유형(53.3%)에 비해 주거비용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8〉 주거비용 부담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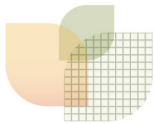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전혀 부담되지 않음	거의 부담되지 않음	약간 부담	매우 부담	χ^2
전체			184(15.1)	333(27.4)	466(38.4)	232(19.1)	
아 동 복 지 시 설	종결 유형	만기퇴소	131(17.9)	187(25.6)	276(37.8)	137(18.7)	13.09**
		연장종료	41(10.3)	124(31.1)	153(38.4)	81(20.3)	
		계	172(15.2)	311(27.5)	429(38.0)	218(19.3)	
	자립 연차	1년차	56(19.1)	79(26.9)	112(38.1)	47(16.0)	18.48
		2년차	41(15.7)	67(25.7)	98(37.6)	55(21.1)	
		3년차	28(13.3)	71(33.7)	77(36.5)	35(16.6)	
		4년차	30(16.3)	50(27.2)	61(33.2)	43(23.4)	
		5년차	17(9.9)	42(24.4)	76(44.2)	37(21.5)	
		계	172(15.3)	309(27.5)	424(37.8)	217(19.3)	
	현재 상황	재학 중	35(13.6)	70(27.2)	97(37.7)	55(21.4)	13.37*
		취업 중	107(18.3)	166(28.4)	212(36.2)	100(17.1)	
		진학/취업준비중	30(10.4)	75(26.0)	120(41.7)	63(21.9)	
		계	172(15.2)	311(27.5)	426(38.0)	218(19.3)	
가 정 위 탁	종결 유형	만기퇴소	5(11.4)	13(29.6)	21(47.7)	5(11.4)	2.78
		연장종료	7(17.1)	9(22.0)	16(39.0)	9(22.0)	
		계	12(14.1)	22(25.9)	37(43.5)	14(16.5)	
	자립 연차	1년차	7(15.9)	11(25.0)	17(38.6)	9(20.5)	5.04
		2년차	3(17.7)	5(29.4)	9(52.9)	-	
		3년차 이상	2(8.3)	6(25.0)	11(45.8)	5(20.8)	
		계	12(14.1)	22(25.9)	37(43.5)	14(16.5)	
	현재 상황	재학 중	1(5.6)	5(27.8)	10(55.6)	2(11.1)	2.78
		취업 중	5(19.2)	6(23.1)	10(38.5)	5(19.2)	
		진학/취업준비중	6(14.6)	11(26.8)	17(41.5)	7(17.1)	
		계	12	22	37	14	

*p<.05, **p<.01

제6장

주거현황



다음의 표는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6.1%는 재개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은 주거지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이며, 그에 따라 거주 불안 정도가 높음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39〉 재개발 지역 거주 여부

(단위: 명, %)

구분	거주	비거주	계
전체	74(6.1)	1,142(93.9)	1,216(100)
아동양육시설	60(5.8)	983(94.2)	1,043(100)
공동생활가정	7(8.1)	80(92.0)	87(100)
가정위탁	7(8.1)	79(91.9)	86(100)

다음의 표는 조사대상자의 현재 주거 위치를 조사한 표이다. 지상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94.4%로 월등히 높았으나, 5.6%가 반지하, 지하, 옥탑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의 위치는 주거 공간 내 곰팡이 등 습도, 태풍·지진·화재 등에 취약한 형태의 주거라고 볼 수 있어 주거의 안전을 담보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표 40〉 주거 위치

(단위: 명, %)

구분	지상	반지하	지하	옥상(옥탑)	계
전체	1,149(94.4)	54(4.4)	3(.2)	11(.9)	1,217(100)
아동양육시설	990(94.7)	44(4.2)	2(.2)	9(.9)	1,045(100)
공동생활가정	78(90.7)	6(7.0)	1(1.2)	1(1.2)	86(100)
가정위탁	81(94.2)	4(4.7)	-	1(1.2)	86(100)

다음은 보호종결 이후 주거 위치와 현재 주거 위치를 나타낸 표이다. 이전과 현재 주거 위치는 지상인 경우가 각각 93.0%, 94.4%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1〉 주거 위치 전후 비교

(단위: 명, %)

구분	이전 주거 위치		현재 주거 위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801	100	1,131	100
지상	745	93.0	1,068	94.4
반지하	44	5.5	50	4.4
지하	5	.6	3	.3
옥상(옥탑)	7	.9	10	.9

다음의 표는 주거계약기간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재개발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거의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써 주거계약기간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43.0%는 2년 계약기간으로 평이한 수준이었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 또는 1년 미만인 경우가 30.4%에 이르러 주거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취업 등 주거 이전의 용이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 거주지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자립생활 영위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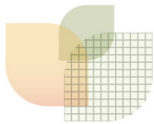
〈표 42〉 주거계약기간

(단위: 명, %)

구분	1년 미만	1년	2년	계약하지 않음	기타	계	χ^2
전체	82(6.8)	286(23.6)	522(43.0)	147(12.1)	176(14.5)	1,213(100)	23.16**
아동양육시설	78(7.5)	258(24.7)	443(42.5)	119(11.4)	145(13.9)	1,043(100)	
공동생활가정	3(3.6)	15(17.9)	42(50.0)	15(17.9)	9(10.7)	84(100)	
가정위탁	1(1.2)	13(15.1)	37(43.0)	13(15.1)	22(25.6)	86(100)	

**p<.01

다음은 보호종결 직후 주거계약기간과 현재 주거계약기간을 비교한 표이다. 보호종결 직후에는 2년이 안 되는 계약기간을 가진 응답자가 36.4%로 가장 높았고, 2년이 25.1%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주거계약기간의 경우 2년이 43.0%로 가장 높았고, 2년이 안 되는 계약기간이 31.4%로 나타났다. 기타는 이전에 보호 중이었던 관계로 주거지가 시설 또는 위탁가정인 대상자가 포함되었다.



이전 주거에 비해 현재 주거계약기간이 주거의 안정성에서는 조금 더 나아졌다고 사료된다. 더불어 2년이 되지 않았던 비율이 다소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조사대상자도 10명 중 3명을 차지하고 있어 주거 안정성을 해치고 있었다.

〈표 43〉 주거계약기간 전후 비교

(단위: 명, %)

구분	이전 주거계약기간		현재 주거계약기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796	100	1,127	100
1년 미만	80	10.1	81	7.2
1년	209	26.3	273	24.2
2년	200	25.1	485	43.0
기타	240	30.2	134	11.9
계약하지 않음	67	8.4	154	13.7

다음의 주거구조(1)에서는 원룸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아동복지 시설은 원룸의 형태에 거주하는 경우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아동양육시설 57.0%, 공동생활가정 51.2%), 가정위탁의 경우 친인척 또는 대리 형태의 위탁부모와 거주하는 경우가 있어 가정위탁 종결아동 중 75.9%가 원룸이 아닌 형태에서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4〉 주거구조 (1)

(단위: 명, %)

구분	원룸	원룸 아님	계	χ^2
전체	653(54.4)	548(45.6)	1,201(100)	33.98***
아동양육시설	591(57.0)	445(43.0)	1,036(100)	
공동생활가정	42(51.2)	40(48.8)	82(100)	
가정위탁	20(24.1)	63(75.9)	83(100)	

***p<.001

또한 주거구조(2)에서는 조사대상자의 방, 거실, 화장실, 부엌 개수를 살펴보았다.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의 주거는 방의 개수로 구분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방의 개수는 2.1개, 거실 1개, 화장실 1.1개, 부엌 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양육시설 방의 개수는 평균 2.1개, 공동생활가정은 1.9개로 아동복지시설의 평균 방 개수는 2개, 가정위탁 방 개수는 2.4개로 0.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주거구조 (2)

(단위: 개)

구분	방	거실	화장실(목욕시설)	부엌
전체	2.1	1.0	1.1	1.0
아동양육시설	2.1	1.0	1.1	1.0
공동생활가정	1.9	1.0	1.1	1.0
가정위탁	2.4	1.0	1.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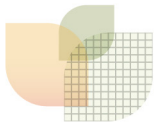
다음의 표는 현재 살고 있는 주거의 환경 및 상태에 대한 만족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방수, 난방, 환기, 방음상태 등 주거상태, 시장, 마트, 병원, 공공기관 등 접근성과 방법, 청결상태 등 주거환경, 방, 화장실, 거실 등 주거구조, 총 3가지에 대한 만족정도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주거의 환경 및 상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주거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5점 만점 중 평균 3.2점이었다. 주거상태를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은 41.5%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4%, 불만족 응답이 23.7%이었다.

주거환경 만족도는 전체 5점 만점 중 평균 3.5점이었다. 주거환경에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은 41.5%로 가장 높았고,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은 33.4%, 불만족 응답이 24.2%이었다.

마지막으로 주거구조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5점 만점 중 평균 3.4점이었다. 주거구조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은 47.6%로 가장 높았고,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은 35.9%, 불만족 응답이 16.5%로 나타났다.

보호유형별로 살펴본 주거상태, 주거환경, 주거구조에서 아동복지시설은 가정위탁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표 46〉 주거상태 및 주거환경

(단위: 명,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	평균
주거 상태	전체	84(6.9)	211(17.3)	417(34.3)	348(28.6)	157(12.9)	1,217(100)	3.2
	아동양육시설	67(6.4)	185(17.7)	359(34.4)	295(28.3)	138(13.2)	1,044(100)	3.2
	공동생활가정	6(6.9)	11(12.6)	32(36.8)	28(32.2)	10(11.5)	87(100)	3.3
	가정위탁	11(12.8)	15(17.4)	26(30.2)	25(29.1)	9(10.5)	86(100)	3.1
주거 환경	전체	48(3.9)	114(9.4)	407(33.4)	430(35.3)	219(18.0)	1,218(100)	3.5
	아동양육시설	38(3.6)	99(9.5)	350(33.5)	368(35.2)	190(18.2)	1,045(100)	3.6
	공동생활가정	4(4.6)	6(6.9)	28(32.2)	35(40.2)	14(16.1)	87(100)	3.6
	가정위탁	6(7.0)	9(10.5)	29(33.7)	27(31.4)	15(17.4)	86(100)	3.4
주거 구조	전체	56(4.6)	145(11.9)	437(35.9)	400(32.8)	180(14.8)	1,218(100)	3.4
	아동양육시설	45(4.3)	123(11.8)	375(35.9)	344(32.9)	158(15.1)	1,045(100)	3.4
	공동생활가정	5(5.7)	10(11.5)	24(27.6)	37(42.5)	11(12.6)	87(100)	3.5
	가정위탁	6(7.0)	12(14.0)	38(44.2)	19(22.1)	11(12.8)	86(100)	3.2

다음은 현재 주거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나타낸 표이다. 현재 주거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이 4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6.9%, 불만족 응답은 14.4% 순이었다.

보호유형별로 살펴본 전반적인 주거만족도는 아동양육시설이 3.5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정위탁이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표 47〉 전반적 주거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	평균
전체	53(4.4)	122(10.0)	450(36.9)	429(35.2)	164(13.5)	1,219(100)	3.4
아동양육시설	42(4.0)	105(10.0)	383(36.7)	370(35.4)	145(13.9)	1,045(100)	3.5
공동생활가정	6(6.9)	6(6.9)	31(35.6)	34(39.1)	10(11.5)	87(100)	3.4
가정위탁	5(5.8)	11(12.8)	36(41.9)	25(29.1)	9(10.5)	86(100)	3.3

다음은 주거면적을 나타낸 표이다. 가정위탁은 평균 61.8㎡(18.7평)로 주거 면적이 가장 넓었고, 아동복지시설은 평균 47.1㎡(14.3평), 공동생활가정은 평균 45.4㎡(13.8평) 순이었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동거인 수를 조사한 결과에서 가정위탁은 평균 2.6명으로 동거인 수가 가장 많았고, 아동양육시설은 2.1명, 공동생활가정 1.7명의 순이었다.

앞서 제시한 주거구조 결과에서는 아동양육시설의 평균 방 개수는 2.1개, 공동생활가정도 1.9개, 가정위탁 2.4개이었다. 다른 보호유형에 비해 가정위탁은 동거인 수가 많았다.

본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최저주거기준¹⁾에 준하여 살펴보았을 때, 아동양육시설은 최저기준인 7.9평보다 1.8배, 공동생활가정은 1.7배 더 넓은 면적의 주거공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가정위탁의 경우 최저기준인 10.9평보다 1.7배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나 열악한 주거구조에서는 다소 벗어난 것으로 보여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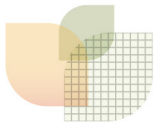
〈표 48〉 주거면적

(단위: 명, ㎡)

구분	N	평균	최소값	최대값
전체	1,100	48.1	3	330
아동양육시설	945	47.1	3	330
공동생활가정	74	45.4	3	198
가정위탁	81	61.8	3	185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1-490호, 최저주거기준

인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방 개수	1개	1개	2개	3개	3개	4개
면적	4.2	7.9	10.9	13	13.9	16.6



다음의 표는 동거인 유형에 관한 조사결과이다. 전체 응답자 중 혼자 살고 있는 경우가 51.0%로 절반가량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부모형제와 살고 있는 경우가 16.9%, 친구와 살고 있는 경우가 8.2%, 기타 7.9%, 시설선후배 6.1%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평균 동거인 수는 2.1명이었다.

보호유형으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혼자살고 있는 경우가 각각 52.9%, 5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던 반면, 가정위탁은 친인척 및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거나 부모형제와 살고 있는 경우가 각각 40.7%, 37.2%로 나타났다.

〈표 49〉 평균 동거인 수

(단위: 명)

구분	N	평균	SD
전체	1,207	2.1	2.7
아동양육시설	1,036	2.1	2.9
공동생활가정	86	1.7	1.2
가정위탁	85	2.6	1.4

〈표 50〉 동거인 유형

(단위: 명)

구분	혼자	부모 형제	친인척 조부모	배우자	이성 친구	시설 선후배	직장 동료	친구	기타
전체	621 (51.0)	206 (16.9)	57 (4.7)	31 (2.5)	24 (2.0)	74 (6.1)	64 (5.3)	100 (8.2)	96 (7.9)
아동양육시설	553 (52.9)	160 (15.3)	17 (1.6)	30 (2.9)	20 (1.9)	71 (6.8)	56 (5.4)	90 (8.6)	84 (8.0)
공동생활가정	51 (59.3)	14 (16.3)	5 (5.8)	1 (1.2)	2 (2.3)	3 (3.5)	5 (5.8)	4 (4.7)	5 (5.8)
가정위탁	17 (19.8)	32 (37.2)	35 (40.7)	-	2 (2.3)	-	3 (3.5)	6 (7.0)	7 (8.1)

다음의 표는 보호종결 이후 이주 횟수를 조사한 결과이다. 이전에 주거형태가 시설 또는 위탁가정이었다면, 기본적으로 1회를 이주 한 것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55.6%는 1회 이주하였고, 24.2%는 2회, 20.2%는 3회 이상 이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보호종결 이후 이주 횟수

(단위: 명, %)

구분	1회	2회	3회 이상	계	χ^2
전체	672(55.6)	292(24.2)	244(20.2)	1,208(100)	20.0***
아동양육시설	553(52.8)	267(25.5)	228(21.8)	1,048(100)	
공동생활가정	54(62.1)	14(16.1)	19(21.8)	87(100)	
가정위탁	65(75.6)	11(12.8)	10(11.6)	86(100)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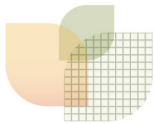
다음은 보호종결 이후 주거지를 옮긴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전체 응답자의 21.6%는 취직과 이직을 위해 이주하였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직장의 계약만료가 20.3%, 기타사유 20.2%, 학업을 위해 8.3%, 더 나은 환경을 위해 7.2% 등의 사유로 인해 주거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보호종결아동의 이주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이에 따른 이주계획을 세우고, 주거지를 옮기기 위한 행정절차 및 올바르게 집을 구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표 52〉 보호종결 이후 주거지를 옮긴 이유

(단위: 명, %)

구분	세대 독립	취직/이직	학업	계약 만료	집주인의 요구	집값, 집세 부담	더 나은 환경	주택 규모 확대	주택 규모 축소	부모, 형제와 근거리 거주	교통 편리	기타	계
빈도	81	257	99	241	25	68	86	10	1	48	32	240	1,188
비율	6.8	21.6	8.3	20.3	2.1	5.7	7.2	.8	.1	4.0	2.7	20.2	100



다음은 조사대상자의 이사계획 여부와 이사 이유를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 응답자 중 56.5%는 이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43.5%는 계획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직업의 계약만료로 인해 이사를 계획하는 경우가 30.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6%는 더 나은 환경을 위해, 14.6%는 취직이나 이직으로 인해, 7.9%는 집값이나 집세 부담 등 다양한 이유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다.

〈표 53〉 추후 이사계획 여부

(단위: 명, %)

구분	있음	없음	계
전체	688(56.5)	529(43.5)	1,217(100)
아동양육시설	607(58.1)	437(41.9)	1,044(100)
공동생활가정	42(48.3)	45(51.7)	87(100)
가정위탁	39(45.3)	47(54.7)	86(100)

〈표 54〉 이사계획 이유

(단위: 명, %)

구분	세대 독립	취직 /이직	학업	계약 만료	집주인 의 요구	집값, 집세 부담	더 나은 환경	주택 규모 확대	주택 규모 축소	부모, 형제와 근거리 거주	교통 편리	기타	계
빈도	41	100	31	209	4	54	141	25	3	9	22	47	686
비율	6.0	14.6	4.5	30.5	.6	7.9	20.6	3.6	.4	1.3	3.2	6.9	100

다음은 보호종결 이후 집이 없어서 노숙을 하거나 일시보호쉼터, 친구 집 등에서 일시적으로 머무른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83.6%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회 7.3%, 3회 이상 5.8%, 2회 3.3% 순이었고, 이를 통해 1회 이상의 취약주거를 경험한 비율은 16.4%로 나타났다.

아동양육시설은 1회 이상 취약주거를 경험한 비율은 17.2%, 공동생활가정은 12.6%, 가정위탁은 9.4%로 나타났다.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이 취약한 주거형태를 경험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다.

지난 2012년도 아동양육시설 대상 자립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2012년도 조사에서는 취약주거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19.0%로 높게 나타났으나, 2016년도 조사에서는 1회 이상 취약한 주거를 경험한 비율이 16.4%로 나타나 취약주거를 경험한 비율이 다소 줄어들었다.

〈표 55〉 취약주거 경험여부

(단위: 명, %)

구분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계	χ^2
전체	1,017(83.6)	89(7.3)	40(3.3)	71(5.8)	1,217(100)	6.3
아동양육시설	864(82.7)	81(7.8)	38(3.6)	62(5.9)	1,045(100)	
공동생활가정	76(87.4)	4(4.6)	2(2.3)	5(5.7)	87(100)	
가정위탁	77(90.6)	4(4.7)	-	4(4.7)	85(100)	

다음은 위의 취약한 주거지를 경험했었던 거주기간을 조사한 표이다.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이 24.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이 20.0%, 1주 미만이 17.0%, 1주에서 2주 미만이 14.5%, 6개월 이상이 13.0%, 2주에서 4주 미만이 11.0%이었다.

지난 2012년도 아동양육시설 대상 조사결과에 의하면, 취약주거를 경험한 기간 중 3개월 이상이 24.0%이었다.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33.0%로 나타나 이전보다 취약주거를 경험하는 기간이 다소 길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보호종결아동이 비록 취약한 주거를 경험하더라도 그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대응하는 차원에서 필요 시 임시거처를 마련해주거나 지원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표 56〉 취약주거 평균 거주기간

(단위: 명, %)

구분	1주 미만	1-2주 미만	2-4주 미만	1-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계
빈도	34	29	22	49	40	26	200
비율	17.0	14.5	11.0	24.5	20.0	13.0	100



다음은 보호종결 이후 자립지원시설을 제외한 타 시설의 입소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조사대상자의 96.7%는 입소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타 시설 입소 경험이 없는 경우가 97.8%로 현재의 조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표 57〉 타 시설 입소 경험

(단위: 명, %)

구분	없음	중장기 쉼터	요양시설	구치소	부랑인 시설	기타	계
빈도	1,175	6	3	2	1	28	1,215
비율	96.7	.5	.2	.2	.1	2.3	100

다음은 현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전세자금지원이 36.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월세지원이 24.4%, 공공임대주택이 12.3%, 필요 없다 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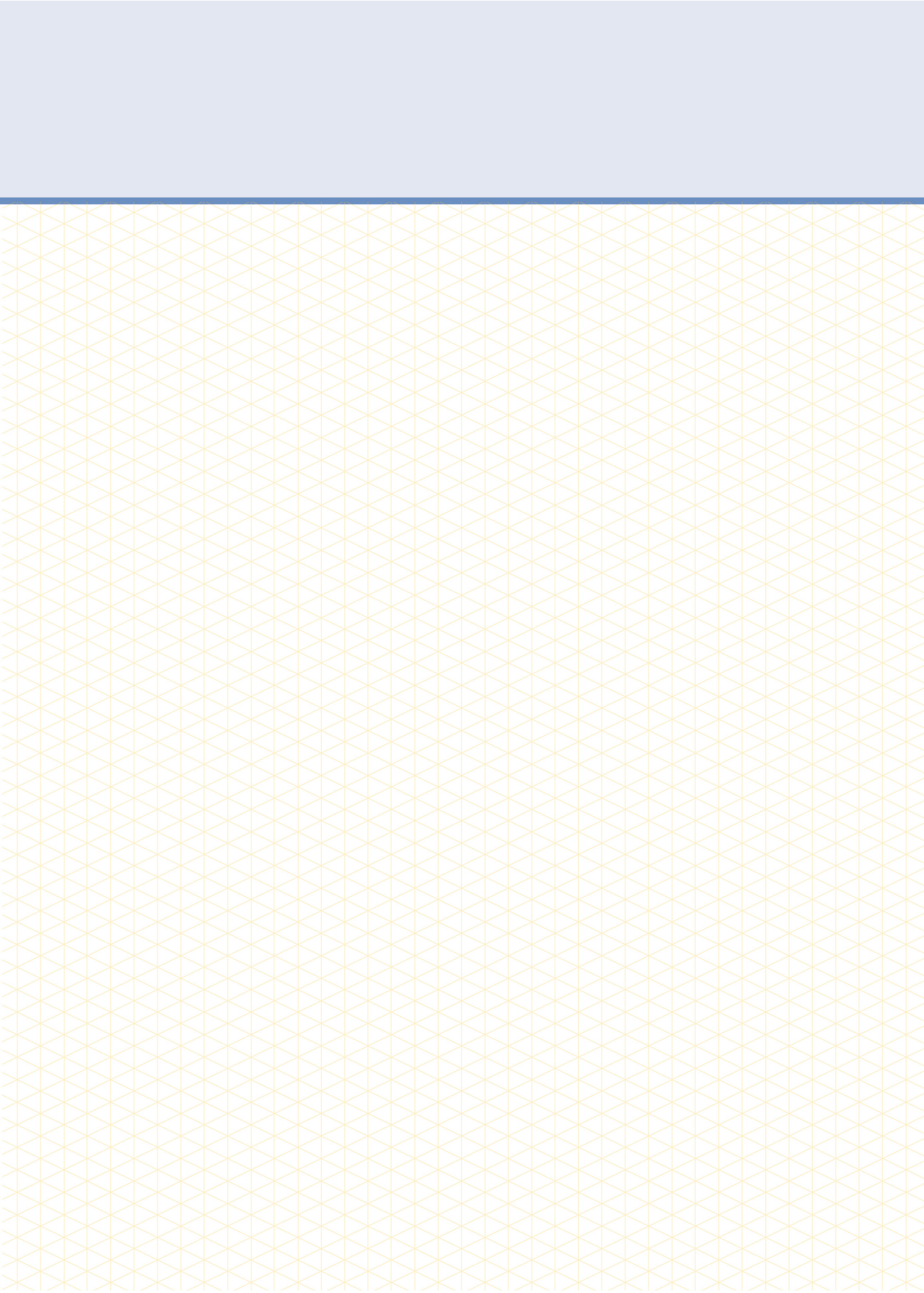
보호유형별로 살펴보면, 주거지원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가정위탁이 15.1%, 공동생활가정 13.8%, 아동양육시설 11.0% 순이었다.

현재 가장 많은 주거유형이 전세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세자금지원에 대한 욕구가 컸던 것은 정부지원의 전세임대주택은 직접적인 자산으로 축적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전세난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기타지역 5,000만원의 지원한도액 내에서 부족한 보증금 또는 일부 임대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데에서 비롯한 결과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58〉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단위: 명, %)

구분	필요 없음	월세 지원	전세 자금 지원	주택 개보수 비용	공공 임대 주택	이사 비용	정보 제공 및 상담	긴급 주거 공간	기타	계
전체	140	297	445	17	150	46	41	30	50	1,216
	(11.5)	(24.4)	(36.6)	(1.4)	(12.3)	(3.8)	(3.4)	(2.5)	(4.1)	(100)
아동 양육 시설	115	257	384	14	132	39	33	28	41	1,043
	(11.0)	(24.6)	(36.8)	(1.3)	(12.7)	(3.7)	(3.2)	(2.7)	(3.9)	(100)
공동 생활 가정	12	20	32	1	7	4	5	1	5	87
	(13.8)	(23.0)	(36.8)	(1.1)	(8.0)	(4.6)	(5.7)	(1.1)	(5.7)	(100)
가정 위탁	13	20	29	2	11	3	3	1	4	86
	(15.1)	(23.3)	(33.7)	(2.3)	(12.8)	(3.5)	(3.5)	(1.2)	(4.7)	(100)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제7장 경제현황

제1절 지출 및 소득실태 120

제7장 경제현황



제1절 지출 및 소득실태

이번 장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소득 등 경제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보호종결아동은 보호 중 보장시설수급자로서 다양한 지원을 받고 성장하게 된다. 보호종결 이후에는 그 중 일부만 지원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다음의 표는 보호종결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원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보호종결 이후 기초생활수급 경험이 없는 경우(59.3%)가 경험이 있는 경우(40.7%)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보호종결 이후 기초생활수급을 경험하는 비율이 아동양육시설(38.6%)보다는 공동생활가정(52.9%)이나 가정위탁(53.5%)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도 아동양육시설 대상 조사결과에서는 보호종결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급여를 제공받은 적이 있었던 경우가 15.2%,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15.4%로 전체적으로 수급을 경험한 비율은 30.4%이었다. 한편 수급경험이 없는 비율은 69.4%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12년도 조사결과보다 기초생활수급자를 경험한 비율이 8.2% 정도 높아져 정부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여 질 수 있다. 또한 지난 2015년 7월 1일에 시행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으로 생계·의료급여 선정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많은 대상자가 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표 59〉 보호종결 이후 기초생활수급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수급	비수급	계	χ^2
전체	495(40.7)	722(59.3)	1,217(100)	13.0**
아동양육시설	404(38.6)	642(61.4)	1,046(100)	
공동생활가정	45(52.9)	40(47.1)	85(100)	
가정위탁	46(53.5)	40(46.5)	86(100)	

**p<.01

다음은 조사대상자가 현재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이다. 현재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71.8%로 높게 나타났고, 현재 수급자로 지원을 받고 있는 비율은 28.2%이었다.

보호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26.4%)보다는 공동생활가정(38.8%)과 가정위탁(39.5%)이 현재 수급 중인 경우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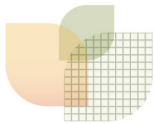
아동복지시설은 퇴소한 지 오래될수록 현재 수급 중인 경우가 높았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 개정에 의해 기준 중위소득이 160여만 원으로 늘었다고 하더라도 자립생활 5년 후에도 최저 소득이 160여만 원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여 보다 안정적인 수입창출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퇴소 후 자립시기가 더 견고해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시선과는 달리 자립 5년차에 정부지원의 의존 정도가 더 큰 것은 대상자에 대한 자립 동기 향상과 실질적인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 이어져야 함을 보여 준다.

〈표 60〉 현재 기초생활수급 여부

(단위: 명, %)

구분	수급	비수급	계	χ^2
전체	343(28.2)	873(71.8)	1,221(100)	11.8**
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276(26.4)	769(73.6)	
	공동생활가정	33(38.8)	52(61.2)	
	가정위탁	34(39.5)	52(60.5)	
	계	343(28.2)	873(71.8)	



구분		수급	비수급	계	χ^2
아동복지시설 종결연차별	1년차	33(19.0)	141(81.0)	174(100)	41.7***
	2년차	27(14.7)	157(85.3)	184(100)	
	3년차	55(26.2)	155(73.8)	210(100)	
	4년차	78(29.9)	183(70.1)	261(100)	
	5년차	114(38.9)	179(61.1)	293(100)	
	계	307(100)	815(100)	1,122(100)	
가정위탁 종결연차별	1년차	4(66.7)	2(33.3)	6(100)	41.7
	2년차	5(71.4)	2(28.6)	7(100)	
	3년차 이상	37(50.7)	36(49.3)	73(100)	
	계	46(100)	40(100)	86(100)	

p<.01, *p<.001

다음의 표는 조사대상자의 보호종결 상황과 현재 상황을 비교하여 수급여부를 살펴본 결과이다. 여기에서 보호종결 상황이나 현재 상황을 대학재학 중, 취업 중, 재학 또는 취업 준비 중, 3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호종결 직후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비율은 40.7%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상황의 기초생활수급비율은 보호종결 직후 보다 줄어든 28.2%이었다.

보호종결 상황에서 수급 받는 대상자 중 재학 중인 경우가 70.5%로 가장 높았고, 재학 또는 취업준비 중인 경우가 42.3%, 취업 중인 경우가 26.4%로 나타났다. 현재 상황에서 수급을 받는 대상자 중 재학 중인 경우가 65.8%로 가장 높았고, 재학 또는 취업 중인 경우가 30.9%, 취업 중인 경우가 9.8%로 나타났다.

다음의 결과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재학 중인 대상자가 가장 많이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었다. 취업자 중 보호종결 당시 수급 받았던 비율이 26.4%에서 현재 9.8%로 약 1/3로 줄어들기는 했으나, 취업자 중에 약 10%는 아직 수급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입과 일자리 환경을 만듦으로써 다시금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재학 또는 취업준비 중인 무직자에 대해서는 진로와 자기계발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보이지 않는 이들에 대한 진로·취업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표 61〉 보호종결 당시 및 현재 상황에 따른 수급경험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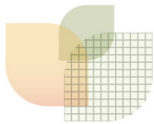
구분	보호종결 상황		현재 상황	
	수급	비수급	수급	비수급
전체	495(40.7)	722(59.3)	343(28.2)	873(71.8)
재학 중	194(70.5)	81(29.5)	181(65.8)	94(34.2)
취업 중	161(26.4)	450(73.6)	60(9.8)	551(90.2)
재학/취업준비 중	140(42.3)	191(57.7)	102(30.9)	228(69.1)
χ^2	154.0***		295.3***	

***p<.001

다음의 표는 지난 1년간 연간 평균 소득액을 나타낸 것이다. 조사대상자는 근로/사업소득으로 연평균 1,483만원을 벌어들였다. 이는 월평균 123만원으로 최저시급 6,030원을 일평균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약 25일 동안 근로를 했을 때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한 달 급여로 계산했을 때에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부보조금으로 발생한 수입은 연평균 469만원으로 월평균 39만원이었으며, 민간보조금으로 발생한 수입은 연평균 233만원으로 월평균 19만원이었다.

보호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의 근로/사업소득 1,540만원과 공동생활 가정 1,444만원에 비하면 가정위탁의 근로/사업소득이 813만원으로 다소 적었다. 그에 반해 정부보조금의 경우에는 아동양육시설 467만원과 공동생활가정 464만원에 비해 가정위탁 493만원이 약 30만 원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동생활가정 민간보조금 493만원으로, 가정위탁 270만원, 아동양육시설 217만원 보다 높았다.



〈표 62〉 지난 1년간 연평균 소득액

(단위: 명, 만원)

구분	근로/사업소득		정부보조금		민간보조금		기타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전체	332	1,483	249	469	71	233	31	244
아동양육시설	286	1,540	208	467	62	217	30	264
공동생활가정	23	1,444	16	464	3	493	2	70
가정위탁	23	813	25	493	6	270	1	10

다음은 조사대상자의 지난 1년간 월평균 지출액을 항목별로 나타낸 표이다.

지난 1년간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 지출항목은 교통비 및 핸드폰 요금 등 교통통신비 772명이었고, 다음으로 주·부식 등 식료품비 732명, 주민세 및 피복구입 등 기타생활비 638명, 광열·수도비 616명, 월세 등 주거비 516명, 이사비 및 시설정비 등 370명, 입원 및 약값 등 보건의료비 299명, 학원등록 및 해외연수 등 교육비 200명 순이었다.

또한 지난 1년간 항목별 월평균 지출액을 살펴보면, 식료품비로 월평균 38만원을 사용하였고, 다음으로 월세로 월평균 34만원, 기타생활비 월평균 30만원, 교통통신비 월평균 26만원, 교육비 월평균 25만원, 보건의료비 월평균 18만원, 이사비용 및 시설정비 등 주거관리 시 필요비용 월평균 14만원, 광열·수도비 월평균 1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종결아동은 자립 후 월세(주거비), 광열·수도비, 식료품비, 교통통신비, 기타 생활비는 사용하게 되는 비용으로써 월평균 138만원의 최소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위의 〈표 62〉에 의하면, 근로/사업소득이 월평균 123만원으로 이보다는 15만원이 부족하였고, 위의 정부보조금을 포함한 162만원으로도 자산형성 기반을 다지기에 매우 부족한 금액으로 보여 진다.

〈표 63〉 지난 1년간 월평균 항목별 지출액

(단위: 명, 만원)

구분	(월세)주거비		주거관리(시설 등)		광열수도비		식료품비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전체	516	34	370	14	616	10	732	38
아동양육시설	444	34	313	13	533	9	624	36
공동생활가정	36	35	34	17	41	18	57	50
가정위탁	36	33	23	15	42	9	51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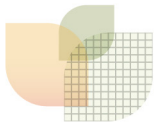
구분	교통통신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기타생활비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전체	772	26	200	25	299	18	638	30
아동양육시설	661	26	167	22	259	17	552	30
공동생활가정	55	34	17	51	22	38	45	35
가정위탁	56	23	16	21	18	8	41	27

다음은 조사대상자가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의 종류에 대한 조사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직장가입자가 44.0%로 가장 높았고, 의료급여자가 41.1%, 지역가입자가 14.9% 순이었다. 다음의 결과를 통해 직장가입자와 의료급여자 비율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2015년 7월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관련하여 수급자가 늘어난 이유와 동일한 이유라고 보여 진다.

지난 2012년도 아동양육시설 대상 조사결과와 2016년도 조사결과를 비교해보면, 직장가입자는 2012년도 51.8%에서 5.8% 정도 낮아져 2016년도에는 46.0%로 나타났고, 지역가입자는 2012년도 19.4%에서 4.5% 정도 낮아져 2016년도 14.9%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급여자의 경우 2012년도 조사결과에서는 28.8%이었으나 2016년도 조사결과에서는 10.3% 높아져 39.1%이었다.

또한 다음의 표를 통해 우리는 지역가입자 14.9%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2년도 조사결과보다 지역가입자가 다소 줄었지만 건강보험 의무가입이 필요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건강보험료를 연체하게 된다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재산을 압류, 환가, 청산하여 보험료로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절차를 밟게 될 수도 있다. 건강은 삶의 질에 매우 밀접한 요인으로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체납자 또는 지역가입자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표 64〉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 종류

(단위: 명, %)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	계	χ^2
전체	531(44.0)	180(14.9)	496(41.1)	1,207(100)	17.4**
아동양육시설	477(46.0)	154(14.9)	405(39.1)	1,036(100)	
공동생활가정	33(38.4)	11(12.8)	42(48.8)	86(100)	
가정위탁	21(24.7)	15(17.6)	49(57.6)	85(100)	

**p<.01

〈표 65〉 2012년도 및 2016년도 건강보험 종류 조사결과 비교표
: 아동양육시설을 중심으로

(단위: 명, %)

구분	2012년도 건강보험 종류	2016년도 건강보험 종류
전체	656(100)	1,036(100)
직장가입자	315(51.8)	477(46.0)
지역가입자	118(19.4)	154(14.9)
의료급여	175(28.8)	405(39.1)

다음은 조사대상자의 부채여부 및 부채액에 대한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채가 없는 경우가 86.5%로 높게 나타났고, 부채가 있는 경우는 13.5%이었다. 평균 부채액은 830만원으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2천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동생활가정이 1,74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동양육시설이 792만원, 가정위탁이 439만원이었다.

위의 부채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생활비 마련이 33.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의료비 마련이 32.9%, 기타 22.6%, 학자금마련 21.3%, 주거마련 14.0% 순이었다.

다음의 결과를 통해 자립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비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금까지의 지원서비스를 살펴보면, 취업준비를 위한 자격증 취득, 교육, 주거 등에 집중하고 있어 해당 자립영역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었다고 보여 진다. 하지만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안정자금의 부족은 이들을 부채라는 굴레 안에 가두고, 자립을 해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표 66〉 부채 상황

(단위: 명, %)

구분	있음	없음	계
전체	164(13.5)	1,054(86.5)	1,218(100)
아동양육시설	141(13.5)	905(86.5)	1,046(100)
공동생활가정	11(12.8)	75(87.2)	86(100)
가정위탁	12(14.0)	74(86.0)	86(100)

〈표 67〉 평균 부채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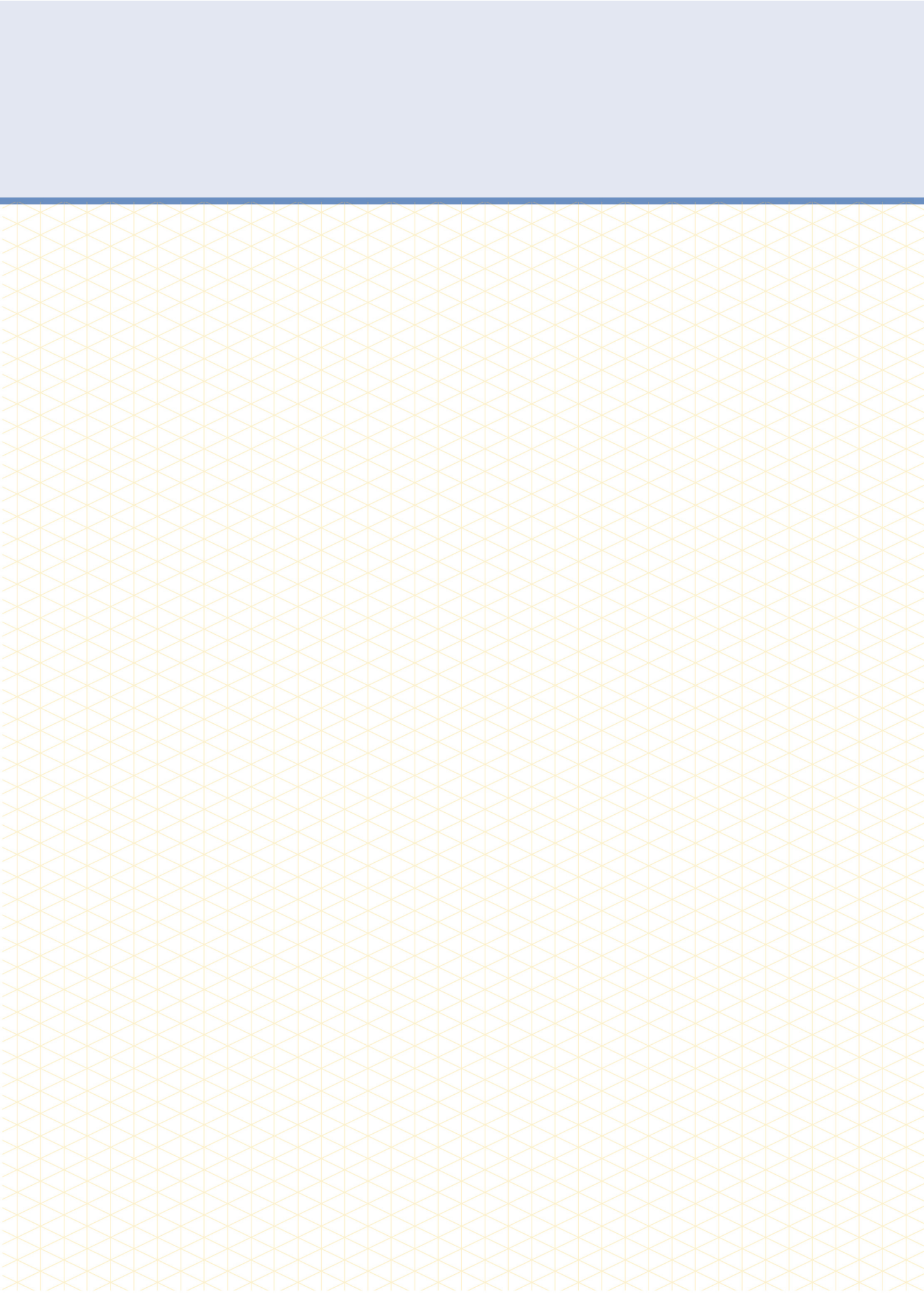
(단위: 명, 만원)

구분	N	평균	최소값	최대값
전체	164	830	10	12,000
아동양육시설	141	792	10	6,000
공동생활가정	11	1,740	250	12,000
가정위탁	12	439	72	1,000

〈표 68〉 부채발생사유(중복응답가능)

(단위: 명, 만원)

구분	주거마련	학자금마련	생활비마련	의료비마련	기타	계
전체	23(14.0)	35(21.3)	55(33.5)	54(32.9)	37(22.6)	204(100)
아동양육시설	20(14.2)	31(22.0)	50(35.5)	42(29.8)	32(22.7)	141
공동생활가정	3(27.3)	3(27.3)	4(36.4)	3(27.3)	2(18.2)	11
가정위탁	-	1(8.3)	1(8.3)	9(75.0)	3(25.0)	12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제8장 진학현황

제8장 진학현황



다음은 대학 진학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대학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는 57.2%로 높게 나타났고, 42.8%는 대학에 진학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동생활가정은 59.8%가 대학에 진학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아동양육시설 57.7%, 가정위탁 48.2%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아동복지시설인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보다 가정위탁의 진학률이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69〉 대학 진학 여부

(단위: 명, %)

구분	있음	없음	계	χ^2
전체	693(57.2)	518(42.8)	1,211(100)	3.15
아동양육시설	600(57.7)	439(42.3)	1,039(100)	
공동생활가정	52(59.8)	35(40.2)	87(100)	
가정위탁	41(48.2)	44(51.8)	85(100)	

다음의 표는 대학재학 중 등록금 마련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조사대상자의 76.2%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장학금 24.2%, 아르바이트 17.4%, 시설후원 13.2%, 자립정착금 12.3%,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9.7%, 기타 7.0%, 지방자치단체 지원 3.6%, 부모/형제지원 3.5%, 조부모/친인척 지원 1.4%, 금융기관대출 0.4% 순이었다.

아동양육시설의 77.9%는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장학금으로 25.3%, 아르바이트로 17.6%, 시설 후원으로 13.2%, 자립정착금으로 12.6%,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8.5%, 기타로 6.0% 등의 순이었다.

지난 2012년도 아동양육시설 조사결과와 2016년도 조사결과를 비교해보면, 2012년도에 등록금 마련방법으로 한국장학재단이 59.9%로 가장 높았고, 아르바이트

53.6%, 학교장학금 48.4% 등의 순이었다. 이번 실태조사결과에서도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이 가장 높았으나, 2012년도 조사결과보다 18.0%가 증가하여 해당비중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등록금 방법은 아르바이트이었으며, 2012년도 53.6%에서 2016년도 17.6%로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보여 진다.

공동생활가정도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이 65.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과 학교장학금으로 각각 21.2%로 나타났고, 시설후원이 17.3%, 자립정착금 13.5%, 기타 11.5%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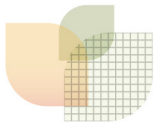
가정위탁도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이 65.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아르바이트 24.4%, 조부모 및 친인척지원과 기타의 방법으로 각각 14.6%, 학교장학금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로 각각 12.2% 등이었다.

위의 결과를 통해, 대부분의 보호종결아동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에 대해 잘 알고 활용하고 있었다. 특히 가정위탁은 국가장학금 외에는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마련하거나 조부모와 친인척의 지원으로 등록금을 마련하는 비율이 39.0%로 높았다.

〈표 70〉 대학재학 중 등록금 마련방법(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지방 자치 단체 지원	장학 재단 국가 장학금	한국 장학 재단 학자금 대출	자립 정착금	(시설/ 기관) 후원	금융 기관 대출	조부모/ 친인척 지원	부모/ 형제 지원	아르 바이트	학교 장학금	기타	계
전체	25	526	67	85	91	3	10	24	120	167	48	690
	(3.6)	(76.2)	(9.7)	(12.3)	(13.2)	(.4)	(1.4)	(3.5)	(17.4)	(24.2)	(7.0)	(100)
아동 양육 시설	22	465	51	75	79	2	4	22	105	151	36	597
	(3.7)	(77.9)	(8.5)	(12.6)	(13.2)	(.3)	(.7)	(3.7)	(17.6)	(25.3)	(6.0)	-
공동 생활 가정	1	34	11	7	9	1	-	-	5	11	6	52
	(1.9)	(65.4)	(21.2)	(13.5)	(17.3)	(1.9)	-	-	(9.6)	(21.2)	(11.5)	-
가정 위탁	2	27	5	3	3	-	6	2	10	5	6	41
	(4.9)	(65.9)	(12.2)	(7.3)	(7.3)	-	(14.6)	(4.9)	(24.4)	(12.2)	(14.6)	-



〈표 71〉 2012년도 및 2016년도 대학등록금 마련방법 조사결과 비교표
: 아동양육시설을 중심으로

(단위: 명, %)

구분	2012년도 대학등록금 마련방법	2016년도 대학등록금 마련방법
1순위	한국장학재단(59.9%)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77.9%)
2순위	아르바이트(53.6%)	학교장학금(25.3%)
3순위	학교장학금(48.4%)	아르바이트(17.6%)

다음은 대학재학 중 생활비 마련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조사대상자의 55.2%는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시설후원 19.3%, 자립정착금 17.1% 기타 11.9%, 지방자치단체 지원 10.0%, 부모/형제지원 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결과로 미루어 살펴본다면, 대부분의 보호종결아동에게 생활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는 필수적인 것으로 보여 진다.

아동양육시설 응답자 중 55.9%는 대학재학 중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하였고, 다음으로 시설후원으로 20.0%, 자립정착금으로 17.8%, 기타로 11.6%, 부모/형제 도움으로 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도 아동양육시설 대상 조사결과에서는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이 90.5%로 가장 높았고, 시설후원으로 38.2%, 부모/형제도움으로 30.1% 등의 순이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보호종결아동은 생활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를 여전히 지속하고 있었으나 90.5%에서 55.2%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도 아르바이트로 48.1%가 생활비를 마련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자립정착금, 시설후원으로 각각 21.2%,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등의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였다.

가정위탁 응답자 또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한 경우가 53.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19.5%, 조부모 및 친인척 지원이 17.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과 기타가 각각 14.6%로 나타났다.

〈표 72〉 대학재학 중 생활비 마련방법(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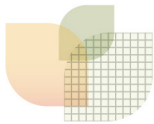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지방 자치 단체 지원	장학 재단 국가 장학금	한국 장학 재단 학자금 대출	자립 정착금	시설 후원	금융 기관 대출	조부모/ 친인척 지원	부모/ 형제 지원	아르 바이트	학교 장학금	기타	계
전체	69	53	43	106	119	5	7	58	333	33	69	596
	(10.0)	(8.9)	(8.0)	(17.1)	(19.3)	(1.0)	(2.3)	(9.3)	(55.2)	(5.2)	(11.9)	(100)
아동 양육 시설	50	53	43	106	119	5	7	58	333	33	69	596
	(8.4)	(8.9)	(7.2)	(17.8)	(20.0)	(.8)	(1.2)	(9.7)	(55.9)	(5.5)	(11.6)	-
공동 생활 가정	11	6	6	11	11	1	2	3	25	-	7	52
	(21.2)	(11.5)	(11.5)	(21.2)	(21.2)	(1.9)	(3.8)	(5.8)	(48.1)	-	(13.5)	-
가정 위탁	8	2	6	1	3	1	7	3	22	3	6	41
	(19.5)	(4.9)	(14.6)	(2.4)	(7.3)	(2.4)	(17.1)	(7.3)	(53.7)	(7.3)	(14.6)	-

〈표 73〉 2012년도 및 2016년도 생활비 마련방법 조사결과 비교표
: 아동양육시설을 중심으로

(단위: 명, %)

구분	2012년도 생활비 마련방법	2016년도 생활비 마련방법
1순위	아르바이트(90.5%)	아르바이트(55.2%)
2순위	시설후원(38.2%)	시설후원(19.3%)
3순위	부모/형제도움(30.1%)	자립정착금(17.1%)



다음의 표는 대학진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을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진학 중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경우는 76.6%로 높았고, 23.4%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진학 중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대상자를 보호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정위탁이 78.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아동양육시설은 77.3%, 공동생활가정이 67.3% 순이었다.

지난 2012년도 아동양육시설 대상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88.3%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2016년도에는 11.0%가 낮아진 77.3%로 나타났다.

〈표 74〉 대학진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있음	없음	계
전체	530(76.6)	162(23.4)	692(100)
아동양육시설	463(77.3)	136(22.7)	599(100)
공동생활가정	35(67.3)	17(32.7)	52(100)
가정위탁	32(78.0)	9(22.0)	41(100)

다음의 표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자의 77.4%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용돈 부족이 11.2%, 등록금 마련이 5.3%, 사회경험이 4.2%, 기타 1.5%, 호기심 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양육시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78.0%가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용돈부족 11.3%, 등록금마련 5.7%, 사회경험 3.5%, 기타 1.1%, 호기심 0.4%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생활가정은 68.6%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사회경험을 위해 14.3%, 용돈부족 8.6%, 기타 5.7%, 등록금마련을 위해 2.9%의 순이었다.

가정위탁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78.1%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용돈부족 12.5%, 등록금마련, 사회경험, 기타의 사유로 3.1% 순이었다.

〈표 75〉 아르바이트 경험 이유

(단위: 명, %)

구분	생활비 마련	등록금 마련	용돈부족	사회경험	호기심	기타	계
전체	408(77.4)	28(5.3)	59(11.2)	22(4.2)	2(.4)	8(1.5)	527(100)
아동양육시설	359(78.0)	26(5.7)	52(11.3)	16(3.5)	2(.4)	5(1.1)	460(100)
공동생활가정	24(68.6)	1(2.9)	3(8.6)	5(14.3)	-	2(5.7)	35(100)
가정위탁	25(78.1)	1(3.1)	4(12.5)	1(3.1)	-	1(3.1)	32(100)

다음의 표는 조사대상자가 경험한 아르바이트 평균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5.4시간으로, 일평균 3.6일에 해당한다. 이들은 주당 최소 2시간에서 최대 98시간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6.1시간으로(일평균 3.7시간), 주당 최소 2시간에서 최대 98시간(일평균 14시간)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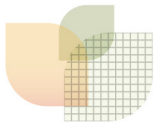
공동생활가정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1.4시간으로(일평균 3시간), 주당 최소 2시간에서 최대 72시간(일평균 10시간)을 일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정위탁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0.6시간으로(일평균 2.9시간), 주당 최소 4시간에서 최대 72시간(일평균 10시간)이었다.

〈표 76〉 주당 아르바이트 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원)

구분	N	주당 평균 근로시간	최소값	최대값
전체	523	25.4	2	98
아동양육시설	457	26.1	2	98
공동생활가정	35	21.4	2	72
가정위탁	31	20.6	4	72



다음은 조사대상자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할 때에 시간당 평균임금을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시간당 평균임금은 6,291원으로 최소 2,600원에서 최대 60,000원으로 최대 57,400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양육시설 대상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6,164원으로 최소 2,600원에서 최대 60,000원으로 최대 57,400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대략 23배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생활가정 대상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7,011원으로 최소 4,500원에서 최대 32,500원으로 최대 28,000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대략 7.2배의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위탁의 경우 시간당 평균임금은 7,257원으로 다른 보호유형에 비해 높았으며, 최소 4,580원에서 최대 50,000원으로 최대 45,420원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대략 10.9배 정도의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나타난 결과를 통해 본 조사대상자의 보호종결 연도가 2012년도부터 2016년도임을 감안하여 위의 시간당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2012년도 최저시급인 4,580원과 2016년도 최저시급인 6,030원보다 높았지만, 평균임금의 최소값은 최저시급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7〉 아르바이트 시간당 평균 임금

(단위: 시간, 원)

구분	N	시간당 평균 임금	최소값	최대값
전체	509	6,291	2,600	60,000
아동양육시설	442	6,164	2,600	60,000
공동생활가정	35	7,011	4,500	32,500
가정위탁	32	7,257	4,580	50,000

다음의 표는 가장 오래 일했던 아르바이트 유형을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식당, 카페 서빙이 49.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옷가게, 편의점 판매원 17.1%, PC방, 비디오방 등 서빙과 기타 아르바이트가 각 14.1%, 사무업무 12.6%,

건설현장노동 5.6%, 과외, 학원강사 등 5.5%, 물건포장 및 운반 4.1%, 신문, 음식 등 배달 2.2%, 아기 또는 노인 돌봄 1.3%, 전단지 0.9%, 주유소 주유원 0.6% 순이었다.

아동복지시설은 식당, 카페 서빙으로 가장 오래 일한 경우가 49.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옷가게, 편의점 등 판매원 17.1%, 기타 및 PC방, 비디오방, 만화방, 노래방 서빙으로 일한 경험이 각각 14.1%, 사무업무 1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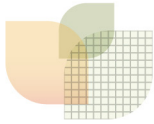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식당, 카페 서빙으로 가장 오래 일한 경우가 57.1%로 가장 높았고, 옷가게, 편의점 등 판매원 및 PC방, 비디오방, 만화방, 노래방 서빙으로 일한 경우가 각각 14.3%, 사무업무 및 기타 아르바이트로 11.4%, 과외, 학원강사 8.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가정위탁의 65.6%가 식당, 카페 서빙으로 가장 오래 일하였다고 응답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기타 아르바이트로 18.8%, 옷가게, 편의점 판매원으로 12.5%, 사무업무 및 PC방, 비디오방, 만화방, 노래방 서빙으로 일한 경우가 각각 9.4%, 물건포장 및 운반 6.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78〉 가장 오래 일한 아르바이트 유형(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무 업무	PC방, 비디오 방, 만화방, 노래방 서빙	식당, 레스 토랑, 카페 서빙	옷가게, 편의점 판매원	신문, 우유, 피자, 음식 등 배달	전단지 돌리기	물건 포장 및 운반	건설 현장 노동	주유소 주유원	아기 또는 노인 돌봄	과외, 학원강 사 등 교육	기타	계
전체	58 (12.6)	65 (14.1)	227 (49.1)	79 (17.1)	10 (2.2)	4 (.9)	19 (4.1)	26 (5.6)	3 (.6)	6 (1.3)	23 (5.0)	65 (14.1)	462 -
아동 양육 시설	58 (12.6)	65 (14.1)	227 (49.1)	79 (17.1)	10 (2.2)	4 (.9)	19 (4.1)	26 (5.6)	3 (.6)	6 (1.3)	23 (5.0)	65 (14.1)	462 -
공동 생활 가정	4 (11.4)	5 (14.3)	20 (57.1)	5 (14.3)	- -	1 (2.9)	2 (5.7)	2 (5.7)	2 (5.7)	- -	3 (8.6)	4 (11.4)	35 -
가정 위탁	3 (9.4)	3 (9.4)	21 (65.6)	4 (12.5)	- -	- -	2 (6.3)	- -	- -	- -	- -	6 (18.8)	32 -



다음의 표는 아르바이트 중 경험했었던 문제 상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아르바이트 중 1회 이상 경험했던 문제 상황으로 다쳤던 경우가 28.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용주로부터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16.2%,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던 경우가 14.5%, 고용주가 처음에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던 경험이 13.2%, 고용주로부터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는 경험이 11.1%, 고용주로부터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2.5%,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1.9% 순으로 나타났다.

많은 조사대상자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 문제 상황을 겪지는 않았지만, 자립 이후 경험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문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이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표 79〉 아르바이트 중 경험한 문제

(단위: 명, %)

구분	없었다	1-2회	3회 이상	계
고용주로부터 일을 하고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453 (85.5)	67 (12.6)	10 (1.9)	530 (100)
고용주는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444 (83.8)	52 (9.8)	34 (6.4)	530 (100)
고용주는 처음에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	460 (86.8)	52 (9.8)	18 (3.4)	530 (100)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	380 (71.7)	116 (21.9)	34 (6.4)	530 (100)
고용주로부터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	471 (88.9)	45 (8.5)	14 (2.6)	530 (100)
고용주로부터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521 (98.3)	9 (1.5)	4 (.2)	530 (100)
고용주로부터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	517 (97.5)	9 (1.7)	4 (.8)	530 (100)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적이 있다.	520 (98.1)	10 (1.9)	-	530 (100)

다음의 표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생활(학업유지)이 얼마나 어려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르바이트가 학교생활(학업유지)에 어려웠다고 응답한 비율은 67.5%로 높게 나타났고, 어렵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2.6%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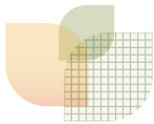
아동양육시설은 조사대상자의 66.5%가 아르바이트로 인한 학교생활(학업유지)가 어렵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33.5%는 어렵지 않다고 하였다. 공동생활가정은 71.4%가 아르바이트로 인한 학교생활(학업유지)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으며, 38.6%가 어렵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가정위탁의 경우에는 78.1%가 학교생활(학업유지)의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21.9%가 어려움이 없다고 하였다.

보호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의 순으로 아르바이트를 함으로써 학교생활(학업유지)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80〉 아르바이트로 인한 학교생활(학업유지)의 어려움 정도

(단위: 명, %)

구분	전혀 어렵지 않음	어렵지 않음	다소 어려움	매우 어려움	계
전체	49(9.3)	123(23.3)	274(51.8)	83(15.7)	529(100)
아동양육시설	44(9.5)	111(24.0)	236(51.1)	71(15.4)	462(100)
공동생활가정	4(11.4)	6(17.1)	18(51.4)	7(20.0)	35(100)
가정위탁	1(3.1)	6(18.8)	20(62.5)	5(15.6)	32(100)



다음의 표를 통해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경험이 직업이나 자립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83.3%는 직업준비나 자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16.6%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표 81〉 아르바이트가 미래의 직업 및 자립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	약간 도움이 될 것임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임	계
전체	14(2.6)	74(14.0)	333(62.9)	108(20.4)	529(100)
아동양육시설	14(3.0)	65(14.1)	290(62.8)	93(20.1)	462(100)
공동생활가정	-	6(17.1)	22(62.9)	7(20.2)	35(100)
가정위탁	-	3(9.4)	21(65.6)	8(25.0)	32(100)

다음은 대학진학자를 대상으로 대학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대학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경우가 77.7%로 높게 나타났고, 만족하고 있지 못한 경우는 22.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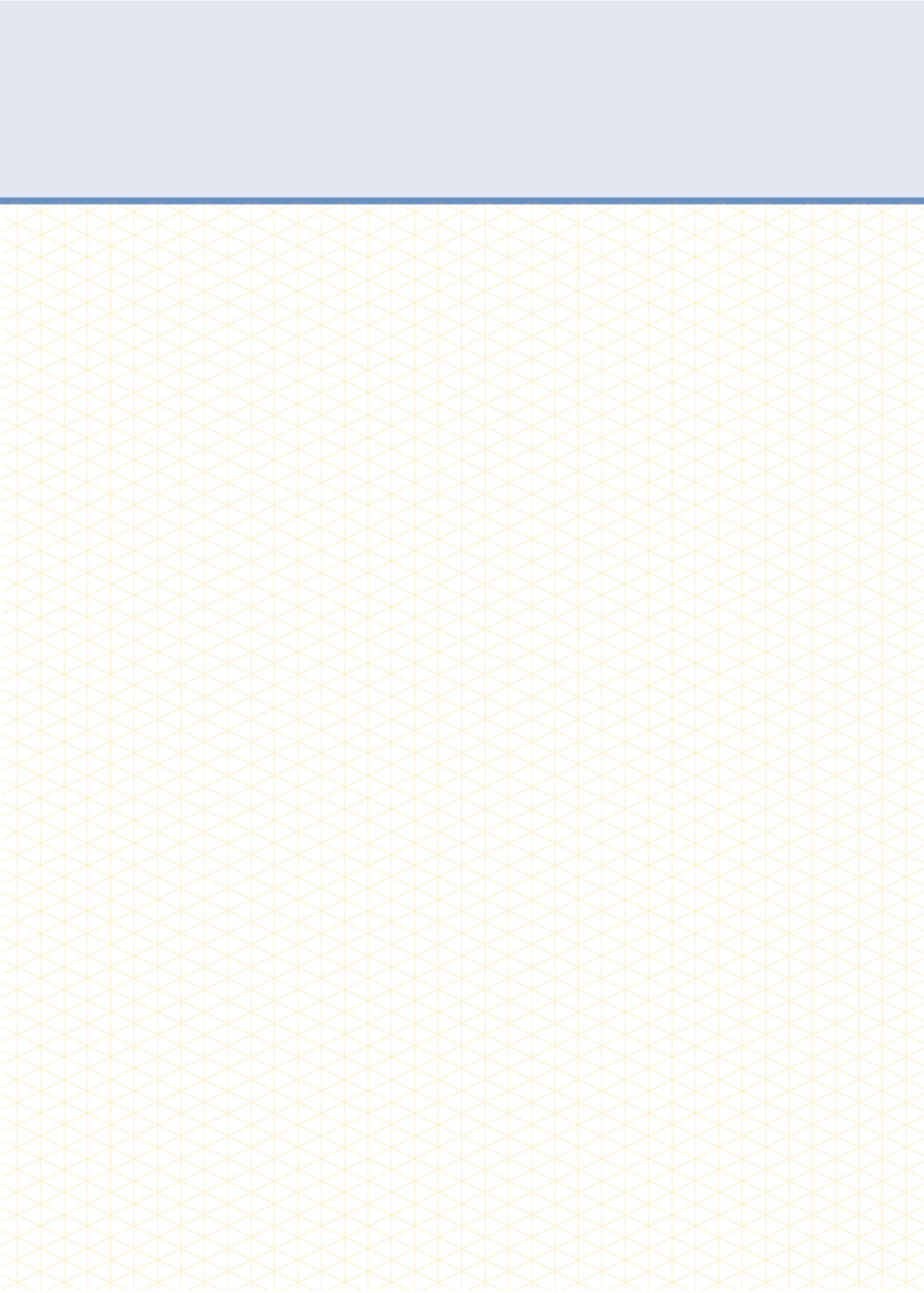
아동양육시설은 78.3%가 만족하고 있었고, 21.7%가 불만족 한다고 응답하였다. 공동생활가정도 78.9%가 만족하였으며, 21.1%가 불만족 한다고 응답하였다. 가정위탁 또한 68.3%로 만족도가 높았고, 31.7%가 불만족 한다고 하였다.

보호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2〉 대학생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계
전체	23(3.3)	131(18.9)	461(66.6)	77(11.1)	692(100)
아동양육시설	22(3.7)	108(18.0)	401(66.9)	68(11.4)	599(100)
공동생활가정	1(1.9)	10(19.2)	38(73.1)	3(5.8)	52(100)
가정위탁	-	13(31.7)	22(53.7)	6(14.6)	41(100)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제9장 취업현황

제9장 취업현황



다음은 조사대상자의 취업상태를 조사한 결과이다. 응답자 중 51.1%는 취업 중이었으며, 48.9%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양육시설의 53.4%는 취업 중이었으며, 46.6%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생활가정은 취업자(43.5%)보다 취업준비중인 경우(56.5%)가 더 많았으며, 가정위탁 또한 취업자(31.4%)보다 취업준비중인 경우(68.6%)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통해 아동양육시설은 공동생활가정과 가정위탁보다 취업 중인 경우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 취업상태

(단위: 명, %)

구분	취업준비 중	취업 중	계	χ^2
전체	591(48.9)	618(51.1)	1,209(100)	17.5***
아동양육시설	484(46.6)	554(53.4)	1,038(100)	
공동생활가정	48(56.5)	37(43.5)	85(100)	
가정위탁	59(68.6)	27(31.4)	86(100)	

***p<.001

다음은 취업준비중이라고 응답한 5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조사대상자의 26.4%는 취업을 위해 자격증 및 어학공부를 하였으며, 다음으로 구직정보를 탐색한 경우가 19.8%, 경험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선택한 경우가 19.0%, 기타 14.7%, 준비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10.3%, 직업훈련을 선택한 경우가 9.7%이었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취업을 위해 자격증과 어학공부를 하는 경우가 28.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구직정보 탐색이 20.7%, 아르바이트 18.2%, 기타 14.7%, 직업훈련 9.5%, 준비하지 않은 경우가 8.5%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생활가정의 25.0%는 취업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기타의 방법과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가 각각 20.8%, 구직정보 탐색 14.6%, 직업훈련 6.3%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위탁은 취업을 위해 자격증 및 어학공부를 하는 경우가 22.0%로 가장 높았고, 아르바이트 20.3%, 구직정보탐색과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가 각 16.9%, 직업훈련 13.6%, 기타 10.2%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10.3%는 아무런 준비 없이 구직을 포기한 니트족과 동일한 형태로 볼 수 있다. 특히 공동생활가정과 가정위탁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자립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표 84〉 취업을 위한 노력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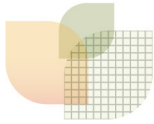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직업훈련	자격증 및 어학공부	아르바이트 (경험축적)	구직정보 탐색	준비하지 않음	기타	계	χ^2
전체	57(9.7)	156(26.4)	112(19.0)	117(19.8)	61(10.3)	87(14.7)	590(100)	19.6*
아동양육시설	46(9.5)	137(28.4)	88(18.2)	100(20.7)	41(8.5)	71(14.7)	483(100)	
공동생활가정	3(6.3)	6(12.5)	12(25.0)	7(14.6)	10(20.8)	10(20.8)	48(100)	
가정위탁	8(13.6)	13(22.0)	12(20.3)	10(16.9)	10(16.9)	6(10.2)	59(100)	

*p<.05

다음은 취업준비중이라고 응답한 585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직업을 조사한 결과이다.

본 조사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근거하여 직업을 총 9가지로 분류하였고, 세부적으로 관리직,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로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의 23.8%는 법률, 컴퓨터, 건축가, 상담자 등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3.4%, 경찰관, 경호원, 손톱관리사, 승무원, 주방장 등 서비스종사자 19.8%, 사무직원, 비서, 집배원, 은행원 등 사무 종사자 9.7%, 입법공무원, 고위직공무원, 각종 단체 관리자 등 관리직 종사자 7.5%, 운전기사, 기관사 등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5.5%, 판매종사자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3.8%, 단순노무종사자 2.1%,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0.7% 순이었다.

보호유형별로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에서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4.4%), 없음(23.6%), 서비스종사자(19.6%)이었고,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없음 (23.6%), 서비스종사자(18.8%), 관리직종사자(14.6%),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4.6%)이었다. 가정위탁의 경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5.9%), 없음(22.4%), 서비스종사자(22.4%)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통해 취업하고자 하는 직업이 없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 직업탐색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상담, 그 과정에서의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표 85〉 취업하고자 하는 직업

(단위: 명, %)

구분	관리직 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없음	계
전체	44 (7.5)	139 (23.8)	57 (9.7)	116 (19.8)	22 (3.8)	4 (.7)	22 (3.8)	32 (5.5)	12 (2.1)	137 (23.4)	585 (100)
아동 양육 시설	34 (7.1)	117 (24.4)	50 (10.4)	94 (19.6)	17 (3.5)	2 (.4)	16 (3.3)	25 (5.2)	11 (2.3)	113 (23.6)	479 (100)
공동 생활 가정	7 (14.6)	7 (14.6)	3 (6.3)	9 (18.8)	2 (4.2)	1 (2.1)	2 (4.2)	5 (10.4)	1 (2.1)	11 (22.9)	48 (100)
가정 위탁	3 (5.2)	15 (25.9)	4 (6.9)	13 (22.4)	3 (5.2)	1 (1.7)	4 (6.9)	2 (3.4)	- (-)	13 (22.4)	58 (100)

다음은 취업자라고 응답한 대상자 중 현재의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구직활동기간에 대한 조사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구직활동기간은 25.6개월로, 이는 약 2년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최소 13개월에서 최대 78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양육시설은 26.1개월로 약 2년 동안을 구직활동 하였으며, 최소 13개월(약 1년)에서 최대 78개월(약 6.5년)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2년도 아동양육시설 대상 조사결과에 의하면, 평균 구직활동기간은 10.49개월이었다. 이번 2016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지난 2012년도에 비해 구직활동기간이 2.4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공동생활가정은 22.8개월로 약 1.8년 동안을 구직활동 하였으며, 최소 13개월(약 1년)에서 최대 39개월(약 3.3년)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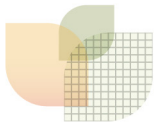
가정위탁은 15.9개월로 약 1.3년 동안 구직활동 하였으며, 최소 13개월(약 1년)에서 최대 39개월(약 3.3년)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아동양육시설에 비해 공동생활가정과 가정위탁이 구직활동기간이 더 짧았던 것으로 보여 진다.

〈표 86〉 현재 일하기까지 구직활동기간

(단위: 개월)

구분	N	평균(SD)	최소값	최대값
전체	235	25.6(14.3)	13	78
아동양육시설	214	26.1(14.6)	13	78
공동생활가정	12	22.8(9.8)	13	39
가정위탁	9	15.9(8.7)	13	39



다음은 구직활동을 통해 현재 일하고 있는 직업유형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본 조사에도 한국표준직업분류에 근거하여 직업을 총 9가지로 분류하였고, 세부적으로 관리직,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로 구성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직업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직업은 25.0%로 서비스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7.3%,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4.9%, 사무종사자 12.8%, 단순노무종사자 11.0%, 판매종사자 8.6%,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6.5%, 관리직 종사자 3.4%,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0.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취업준비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 희망직업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로 나타났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실에서는 서비스종사자가 더 많았다. 이는 취업준비자 중 희망직업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높았던 이유가 원하는 직업과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직업에 대한 괴리감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진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가 20.7%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종사자가 19.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4.3%, 단순노무종사자가 13.7%,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10.2%, 판매종사자 9.9%, 사무종사자 7.3%, 관리직종사자 4.1%,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0.9% 순이었다.

여성의 경우 서비스종사자가 32.6%로 월등히 높았고, 다음으로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1.0%, 사무종사자 19.6%,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가 각각 7.6%, 판매종사자 6.9%, 관리직종사자 2.5%,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8%,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0.4%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서비스 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등의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고, 남성은 여성에 비해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의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7〉 현재 직업유형

(단위: 명, %)

구분	관리직 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계	χ^2
전체	21 (3.4)	107 (17.3)	79 (12.8)	155 (25.0)	53 (8.6)	4 (.6)	40 (6.5)	92 (14.9)	68 (11.0)	619 (100)	
성 별	남성	14 (4.1)	49 (14.3)	25 (7.3)	65 (19.0)	34 (9.9)	3 (.9)	35 (10.2)	71 (20.7)	47 (13.7)	76.2***
	여성	7 (2.5)	58 (21.0)	54 (19.6)	90 (32.6)	19 (6.9)	1 (.4)	5 (1.8)	21 (7.6)	21 (7.6)	
보 호 유 형	아동 양육 시설	19 (3.4)	98 (17.7)	71 (12.8)	138 (24.9)	48 (8.6)	3 (.5)	33 (5.9)	83 (15.0)	62 (11.2)	13.9
	공동 생활 가정	-	4 (10.8)	4 (10.8)	11 (29.7)	2 (5.4)	-	5 (13.5)	7 (18.9)	4 (10.8)	
	가정 위탁	2 (7.4)	5 (18.5)	4 (14.8)	6 (22.2)	3 (11.1)	1 (3.7)	2 (7.4)	2 (7.4)	2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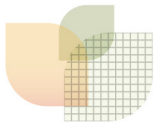
***p<.001

다음의 표는 취업자의 고용형태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자의 72.7%가 정규직이었고, 비정규직이 27.3%로 나타나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2.6배정도 높았다.

〈표 88〉 고용형태

(단위: 명, %)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계
전체	450(72.7)	169(27.3)	619(100)
아동양육시설	405(73.0)	150(27.0)	555(100)
공동생활가정	25(67.6)	12(32.4)	37(100)
가정위탁	20(74.1)	7(25.9)	27(100)



다음의 표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이다. 여기에서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 가족근로자, 1인 기업을 포함한 고용주이다. 취업 중인 자 중 88.9%는 임금근로자로 나타났고, 비임금근로자는 11.1%이었다.

〈표 89〉 임금근로자 여부

(단위: 명, %)

구분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계
전체	547(88.9)	68(11.1)	615(100)
아동양육시설	492(89.1)	60(10.9)	552(100)
공동생활가정	32(86.5)	5(13.5)	37(100)
가정위탁	23(88.5)	3(11.5)	26(100)

다음의 표는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종사상 지위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의 정규 또는 계약직인 상용직,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임시직,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직, 3개의 분류로 구분한다.

조사대상자의 83.8%는 상용직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임시직이 13.1%, 일용직이 3.1% 순이었다.

〈표 90〉 종사상 지위

(단위: 명, %)

구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계
전체		434(83.8)	68(13.1)	16(3.1)	518(100)
성별	남성	233(80.9)	45(15.6)	10(3.5)	288(100)
	여성	201(87.4)	23(10.0)	6(2.6)	230(100)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393(84.5)	58(12.5)	14(3.0)	465(100)
	공동생활가정	22(73.3)	6(20.0)	2(6.7)	30(100)
	가정위탁	19(82.6)	4(17.4)	-	23(100)

다음은 취업자의 월평균 급여를 조사한 결과표이다.

아동복지시설의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174만원, 여성은 163만원으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의 월평균 급여는 약 9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이들의 교육수준으로 구분해보면, 고등학교 이하는 165만원, 전문대는 168만원, 대학교 이상은 187만원으로 전문대 이하와 대학교 이상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고학력자일수록 급여도 최대 9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가정위탁의 경우 전체적으로 월 급여 수준이 아동복지시설보다 낮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132만원, 여성은 137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는 121만원, 전문대 153만원, 대학교 이상 150만원이었다. 가정위탁은 고등학교 이하와 전문대 이상에서의 약간의 급여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월평균 급여수준이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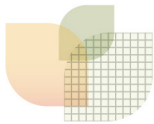
〈표 91〉 월 평균 급여

(단위: 만원)

구분			월 평균 급여			
			N	Mean	SD	t/F
아동 복지 시설	성별	남성	329	174.30	55.56	2.49*
		여성	256	163.70	47.17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334	165.88	49.93	5.62** (a,b(c)²)
		전문대	173	168.73	52.37	
		대학교 이상	78	187.68	58.57	
가정 위탁	성별	남성	9	132.80	37.17	-.24
		여성	18	137.20	47.66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15	121.93	46.95	1.78
		전문대	9	153.89	30.60	
		대학교 이상	3	150.00	50.00	

*p<.05, **p<.01

2) Scheffe's Test. a: 고등학교 이하, b: 전문대, c: 대학교 이상.



다음의 표는 현재 일자리에서 직장동료와의 관계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조사대상자의 92.4%는 직장동료와 관계가 좋다고 응답하고 있고, 7.6%는 관계가 좋지 않다고 나타났다.

〈표 92〉 현재 직장동료와의 관계

(단위: 명, %)

구분	매우 좋지 않음	좋지 않음	좋음	매우 좋음	계
전체	15(2.4)	32(5.2)	438(70.8)	134(21.6)	619(100)
아동양육시설	14(2.5)	29(5.2)	391(70.5)	121(21.8)	555(100)
공동생활가정	1(2.7)	2(5.4)	28(75.7)	6(16.2)	37(100)
가정위탁	-	1(3.7)	19(70.4)	7(25.9)	27(100)

다음의 표는 현재 일자리에서 직업생활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자의 80.3%는 직업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19.7%는 직업생활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3〉 현재 직업생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계
전체		16(2.6)	106(17.1)	424(68.5)	73(11.8)	619(100)
성별	남성	12(3.5)	59(17.2)	226(65.9)	46(13.4)	343(100)
	여성	4(1.4)	47(17.0)	198(71.7)	27(9.8)	276(100)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6(2.9)	97(17.5)	389(68.1)	64(11.5)	555(100)
	공동생활가정	－	4(10.8)	28(75.7)	5(13.5)	37(100)
	가정위탁	－	5(18.5)	18(66.7)	4(14.8)	27(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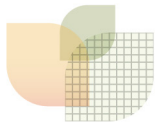
다음의 표는 조사대상자가 현재 직업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소개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아동복지시설의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스스로 알아보았다는 응답이 각 44.4%, 47.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기타가 각 23.4%, 26.5%이었다. 여기에서 기타응답은 학교 또는 교수님, 친구의 추천으로 현재 직업생활을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은 스스로 알아본 비율이 46.5%였으나 공동생활가정은 기타의 방법으로 현재 일자리를 찾게 된 비율이 37.8%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종결 유형으로 살펴보면, 만기퇴소와 연장종료 모두 스스로 알아보았던 경우가 각 41.1%, 52.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타의 방법에서 만기퇴소(30.1%)와 연장종료(16.0%)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만기퇴소는 연장종료보다 학교, 교수님, 친구 등 기타 소개로 현재 일자리를 갖게 된 경우가 약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위탁은 조사대상자의 절반이상인 55.6%가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보았고, 기타의 소개로 22.2, 선후배의 소개가 14.8%, 가족의 소개가 7.4%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94〉 직업소개 기관유형

(단위: 명, %)

구분			스스로	가족	아동복지 시설 또는 가정위탁 지원센터 담당자	선후배	기타	χ^2
아동 복지 시설	성별	남성	148 (44.4)	18 (5.4)	31 (9.3)	58 (17.4)	78 (23.4)	7.2
		여성	121 (47.1)	9 (3.5)	31 (12.1)	28 (11.0)	68 (26.5)	
		계	269 (45.6)	27 (4.6)	62 (10.5)	86 (14.6)	146 (24.8)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257 (46.5)	26 (4.70)	55 (10.0)	83 (15.0)	132 (23.9)	8.3
		공동생활가정	12 (32.4)	1 (2.7)	7 (18.9)	3 (8.1)	14 (37.8)	
		계	269 (45.6)	27 (4.6)	62 (10.5)	86 (14.6)	146 (24.8)	
	보호 종결 유형	만기퇴소	150 (41.1)	19 (5.2)	40 (11.0)	46 (12.6)	110 (30.1)	19.1***
		연장종료	119 (52.9)	8 (3.6)	22 (9.8)	40 (17.8)	36 (16.0)	
		계	269 (45.6)	27 (4.6)	62 (10.5)	86 (14.6)	146 (24.8)	
가정 위탁	성별	남성	4 (44.4)	2 (22.2)	-	2 (22.2)	1 (11.1)	5.6
		여성	11 (61.1)	-	-	2 (11.1)	5 (27.78)	
		계	15 (55.6)	2 (7.4)	-	4 (14.8)	6 (22.2)	
	보호 종결 유형	만기퇴소	7 (53.9)	-	-	2 (15.4)	4 (30.8)	2.7
		연장종료	8 (57.1)	2 (14.3)	-	2 (14.3)	2 (14.3)	
		계	15 (55.6)	2 (7.4)	-	4 (14.8)	6 (22.2)	

***p<.001

다음의 표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이직 또는 직업전환을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자의 56.3%는 이직 또는 직업을 바꾸려는 계획이 없었으나, 43.7%는 이직을 계획하고 있었다.

〈표 95〉 이직 또는 직업전환 계획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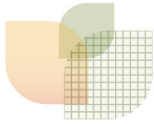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있음	없음	계	χ^2
전체	270(43.7)	348(56.3)	618(100)	1.5
아동양육시설	247(44.5)	308(55.5)	555(100)	
공동생활가정	13(35.1)	24(64.9)	37(100)	
가정위탁	10(38.5)	16(61.5)	26(100)	

다음의 표를 통해, 위의 이직 또는 직업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직을 고려하는 사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대상자는 더 나은 보수를 위해 36.8%,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16.4%, 적성에 맞지 않아서 11.5%, 근로환경이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 11.2%, 기타 9.7%,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7.8%, 직장상사 또는 직장동료와의 갈등과 계약만료 3.3%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의 3명 중 1명은 더 나은 보수를 위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35.4%), 새로운 기술 습득을 위해서 16.7%, 근로환경이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 12.2%, 적성에 맞지 않아서 11.4%, 기타 10.2% 등의 순이었다. 공동생활가정의 61.5%는 더 나은 보수를 위해 이직을 고려하고 있었으며, 적성과 새로운 기술습득을 위해 이직을 고려하는 경우도 각 15.4%이었다. 가정위탁의 40.4%도 더 나은 보수를 위해 이직을 고려하고 있었다.

이는 위의 〈표 88〉에서 정규직이 72.7%로 높게 나타났으며, 〈표 91〉에서 월평균 급여가 최소 120만 원대에서 최대 180만 원대였던 결과와 더불어 살펴보면, 이들의 일자리의 질이 그다지 높지 않아 더 나은 보수를 희망하며 이직 또는 직업전환을 계획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표 96〉 이직 또는 직업전환 계획 이유

(단위: 명, %)

구분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근로환경 이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 습득을 위해	더 나은 보수를 위해	직장상사 또는 직장동료 와 갈등	계약만료	기타	계
전체	31 (11.5)	30 (11.2)	21 (7.8)	44 (16.4)	99 (36.8)	9 (3.3)	9 (3.3)	26 (9.7)	269 (100)
아동 양육 시설	28 (11.4)	30 (12.2)	8 (7.3)	41 (16.7)	87 (35.4)	9 (3.7)	8 (3.3)	25 (10.2)	246 (100)
공동 생활 가정	2 (15.4)	-	1 (7.7)	2 (15.4)	8 (61.5)	-	-	-	13 (100)
가정 위탁	1 (10.0)	-	2 (20.0)	1 (10.0)	4 (40.0)	-	1 (10.0)	1 (10.0)	10 (100)

다음은 조사대상자의 실제로 이직 또는 실직 경험 여부와 횟수를 살펴보기 위한 결과표이다. 아직 이직이나 실직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9.9%로 가장 높았고, 1회 17.8%, 2회 11.8%, 3회 이상 10.5% 순으로 나타났다. 1회 이상의 이직 또는 실직을 경험한 경우 40.1%로 5명 중 2명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1회 이상 이직 또는 실직을 경험한 결과를 보호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은 41.7%, 공동생활가정은 24.1%, 가정위탁은 26.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97〉 이직 또는 실직 경험 횟수

(단위: 명, %)

구분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계	χ^2
전체	715(59.9)	213(17.8)	141(11.8)	128(10.5)	1,194(100)	16.2*
아동양육시설	598(58.3)	186(18.1)	131(12.8)	111(10.8)	1,026(100)	
공동생활가정	56(65.9)	13(15.3)	4(4.7)	12(4.1)	85(100)	
가정위탁	61(73.5)	14(16.9)	6(7.2)	2(2.4)	83(100)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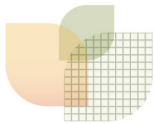
다음은 위의 이직 또는 실직을 경험하게 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자의 29.1%는 적성이 맞지 않아서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더 나은 보수를 위해서가 20.5%, 근로환경이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 15.8%, 기타의 사유와 직장상사 또는 직장동료와의 갈등 9.5%, 새로운 기술습득을 위해 7.4%, 계약만료 4.9%,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3.4%의 순이었다.

〈표 96〉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이직을 고려한 이유와 실제 이직 또는 실직의 이유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직 또는 직업전환을 고려하는 주요한 이유 중 더 나은 보수를 위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는 적성을 조금 더 고려하여 이직 또는 실직한 것으로 보여 진다.

〈표 98〉 이직 또는 실직 이유

(단위: 명, %)

구분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근로환경 이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 습득을 위해	더 나은 보수를 위해	직장상사 또는 직장동료 와 갈등	계약만료	기타	계
전체	138	75	16	35	97	45	23	45	474
	(29.1)	(15.8)	(3.4)	(7.4)	(20.5)	(9.5)	(4.9)	(9.5)	(100)
아동 양육 시설	120	65	15	33	878	41	23	38	422
	(28.4)	(15.4)	(3.6)	(7.8)	(20.6)	(9.7)	(5.5)	(9.0)	(100)
공동 생활 가정	10	6	-	1	6	1	-	5	29
	(34.5)	(20.7)	-	(3.4)	(20.7)	(3.4)	-	(17.2)	(100)
가정 위탁	8	4	1	1	4	3	-	1	23
	(34.8)	(17.4)	(4.3)	(4.3)	(17.4)	(13.0)	-	(8.7)	(100)



다음의 표는 취업 시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자의 24.1%는 취업할 때에 자신이 가진 학력, 기술, 자격의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적성을 모르는 경우,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각 18.0%, 취업정보의 부족 11.8%, 근로환경 및 시간이 맞지 않아서 10.0%, 기타 8.8%, 보수가 맞지 않아서 7.3%, 외모 또는 신체적 결함 1.8%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은 학력, 기술, 자격이 부족하여 취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23.1%), 다음으로 적성을 몰라서(19.6%), 경험의 부족(18.2%), 취업정보의 부족(12.6%), 근로환경 및 시간이 맞지 않아서(10.2%) 등의 순이었다.

공동생활가정은 학력, 기술, 자격이 부족함에 따라 취업이 어려웠다고 응답하고 있으며(29.4%), 다음으로 경험부족(21.2%), 기타(16.5%), 적성을 몰라서(15.3%)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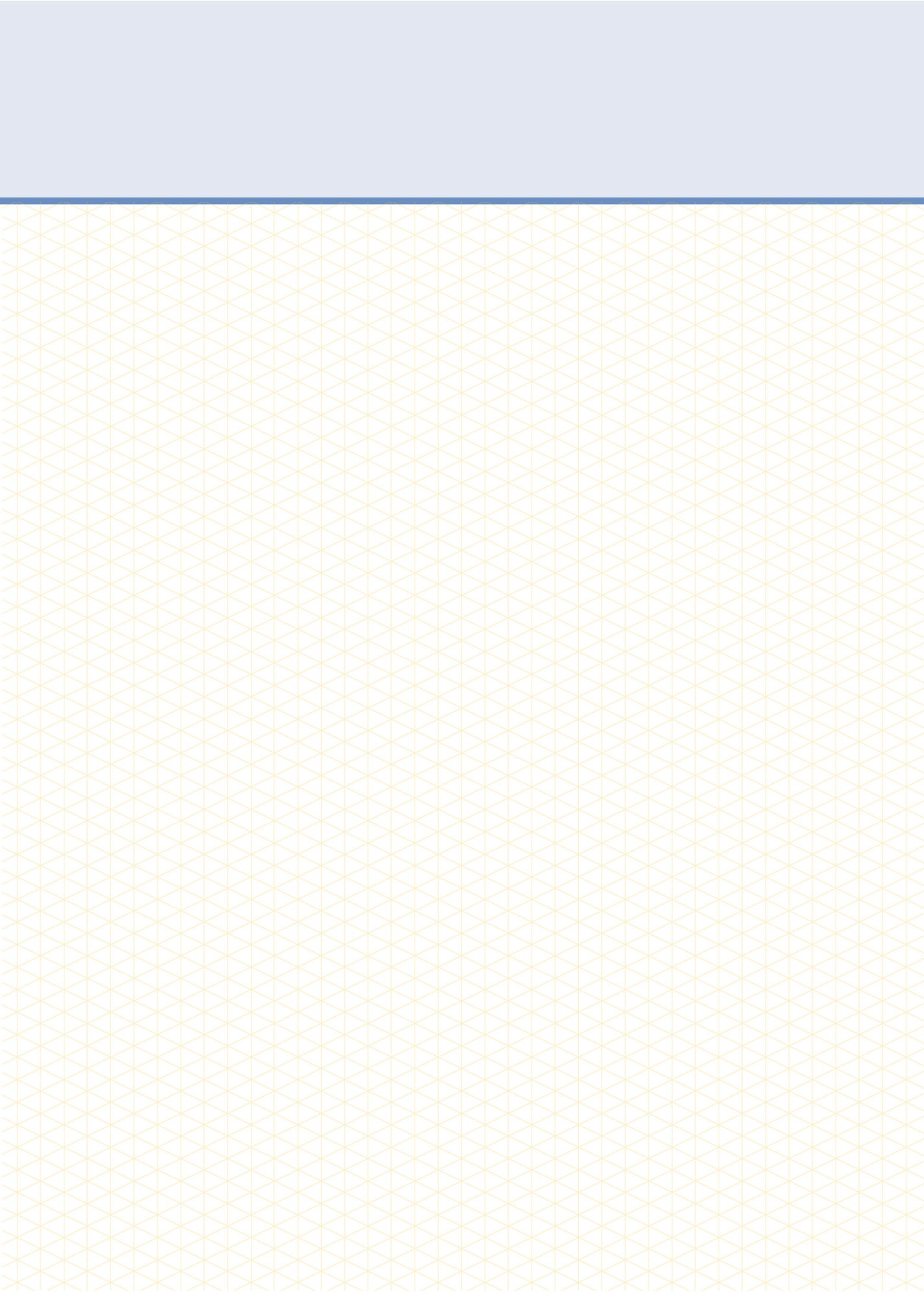
가정위탁은 학력, 기술, 자격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31.0%), 다음으로 경험부족(15.5%), 적성을 몰라서(14.3%), 근로환경 및 시간이 맞지 않아서(11.9%), 취업정보의 부족과 보수가 맞지 않아서(각 9.5%) 등의 순이었다.

이를 통해 보호종결아동의 직업을 준비할 때에 개별 적성을 고려하여 관련 지식과 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나은 근로환경과 보수를 고려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종결 전 실질적인 직업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적극적 환경조성과 관련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표 99〉 취업 시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취업정보 부족	적성을 몰라서	경험 부족	근로환경 및 시간이 맞지 않아서	학력, 기술, 자격 부족	보수가 맞지 않아서	외모 또는 신체적 결함	기타	계
전체	141	215	217	119	288	87	21	105	1,193
	(11.8)	(18.0)	(18.2)	(10.0)	(24.1)	(7.3)	(1.8)	(8.8)	(100)
아동 양육 시설	129	190	186	104	237	75	18	85	1,024
	(12.6)	(18.6)	(18.2)	(10.2)	(23.1)	(7.3)	(1.8)	(8.3)	(100)
공동 생활 가정	4	13	18	5	25	4	2	14	85
	(4.7)	(15.3)	(21.2)	(5.9)	(29.4)	(4.7)	(2.4)	(16.5)	(100)
가정 위탁	8	12	13	10	26	8	1	6	84
	(9.5)	(14.3)	(15.5)	(11.9)	(31.0)	(9.5)	(1.2)	(7.1)	(100)



제10장 건강 및 심리사회적 현황

제1절 건강	162
제2절 정서 및 사회성	166
제3절 원가족	178
제4절 보호기관과의 전반적 관계	186

제10장 건강 및 심리사회적 현황



제1절 건강

다음은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자의 85.9%는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지하고 있었고, 14.1%는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하였다.

〈표 100〉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명, %)

구분			나쁘다	좋다	χ^2
전체			172(14.1)	1,046(85.9)	
아동 복지 시설	성별	남성	78(12.8)	532(87.2)	.75
		여성	76(14.6)	446(85.4)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42(13.6)	903(86.4)	.00
		공동생활가정	12(13.8)	75(86.2)	
가정 위탁	성별	남성	5(17.9)	23(82.1)	1.5
		여성	13(22.4)	45(77.6)	

다음의 표는 지난 1년간 앓았던 질병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자의 46.1%는 지난 1년간 질병을 앓은 적이 없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내과질환이 31.4%, 치과질환이 20.3%, 피부과질환이 14.5%, 이비인후과질환이 11.8%, 정형외과질환이 8.5%, 안과질환이 6.7%, 정신과질환이 4.5%, 기타 2.5%, 흉부외과질환이 0.9%, 신경과질환이 0.7%의 순이었다.

아동복지시설은 지난 1년간 질병이 없었던 경우가 32.1%로 가장 높았고, 내과질환이 20.7%, 치과질환이 13.7%, 피부과질환이 10.0%, 이비인후과 질환 7.6%, 정형외과 질환 5.5%, 안과질환 4.6%, 정신과 질환 3.2%, 기타 1.7%, 흉부외과 질환 1.0%, 신경과 질환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위탁은 지난 1년간 앓았던 질병이 내과질환으로 27.3%로 가장 높았고, 질환이 없었던 경우가 20.9%, 치과질환이 14.4%, 이비인후과 질환 12.2%, 정형외과 질환 8.6%, 피부과 질환 7.9%, 안과질환 5.0%, 정신과 및 기타 질환으로 각 1.4%, 신경과 질환 0.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1〉 질병여부(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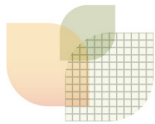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없음	정형 외과 질환	이비 인후 과 질환	내과 질환	치과 질환	안과 질환	흉부 외과 질환	피부 과 질환	신경 과 질환	정신 과 질환	기타	계
전체	562 (46.1)	103 (8.5)	144 (11.8)	382 (31.4)	247 (20.3)	81 (6.7)	11 (.9)	177 (14.5)	9 (.7)	55 (4.5)	30 (2.5)	1,801 -
아동 복지 시설	533 (32.1)	91 (5.5)	127 (7.6)	344 (20.7)	227 (13.7)	74 (4.6)	11 (1.0)	166 (10.0)	8 (0.5)	53 (3.2)	28 (1.7)	1662 (100)
가정 위탁	29 (20.9)	12 (8.6)	17 (12.2)	38 (27.3)	20 (14.4)	7 (5.0)	- -	11 (7.9)	1 (0.7)	2 (1.4)	2 (1.4)	139 (100)

다음의 표는 지난 1년간 질병이 있었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해당 질병으로 입원했거나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자의 50.7%는 전부나을 때까지 치료를 받았거나 아직 치료 중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일부 치료만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1.6%, 전혀 치료받지 못한 비율이 7.8%이었다.

아동복지시설의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49.8%는 완치되었거나 아직 치료중이라고 응답하였고, 39.3%는 일부만 치료했고, 10.9%는 전혀 치료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52.3%는 완치되었거나 아직 치료 중이라고 응답하였고, 44.3%는 일부만 치료했고, 3.4%는 치료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중인 경우보다 아직 치료받지 못한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2〉 치료여부

(단위: 명, %)

구분			완치 또는 치료 중	일부 치료	치료 받지 못함	χ^2
전체			333(50.7)	273(41.6)	51(7.8)	
아동 복지 시설	성별	남성	137(49.8)	108(39.3)	30(10.9)	13.42**
		여성	170(52.3)	144(44.3)	11(3.4)	
		계	307(51.2)	252(42.0)	41(6.8)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285(51.5)	231(41.8)	37(6.7)	.49
		공동생활가정	22(46.8)	21(44.7)	4(8.5)	
		계	307(51.2)	252(42.0)	41(6.8)	
	소득 수준	수급	103(57.5)	68(38.0)	8(4.5)	5.01
		비수급	204(48.6)	183(43.6)	33(7.86)	
		계	307(51.25)	251(41.90)	41(6.84)	
	현재 상황	재학 중	74(54.0)	55(40.1)	8(5.8)	19.32**
		취업 중	169(56.7)	116(38.9)	13(4.4)	
		재학/취업준비 중	64(38.8)	81(49.1)	20(12.1)	
		계	307(51.2)	252(42.0)	41(6.8)	
가정 위탁	성별	남성	8(53.3)	2(13.3)	5(33.3)	6.21*
		여성	18(42.9)	19(45.2)	5(11.9)	
		계	26(45.6)	21(36.8)	10(17.5)	
	소득 수준	수급	8(42.1)	7(36.8)	4(21.1)	.28
		비수급	18(47.4)	14(36.8)	6(15.8)	
		계	26(45.6)	21(36.8)	10(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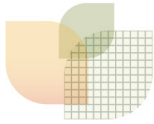
*p<.05, **p<.01

다음은 지난 1년간 앓았던 질병에 대해 치료받지 못한 주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자의 35.8%는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많이 아프지 않아서가 34.2%, 기타의 사유가 30.0%이었다. 기타사유로는 병원이 멀어서,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병원에 하객 갈 사람이 없어서, 치료가 무서워서, 귀찮아서, 몸이 불편해서 등이 있었다.

〈표 103〉 치료받지 못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많이 아프지 않아서	치료비가 없어서	기타	χ^2
전체			106(34.2)	111(35.8)	93(30.0)	
아동 복지 시설	성별	남성	41(31.5)	45(34.6)	44(33.8)	1.4
		여성	51(34.0)	58(38.7)	41(27.3)	
		계	92(32.7)	103(36.8)	85(30.4)	
	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83(32.4)	94(36.7)	79(30.9)	.42
		공동생활가정	9(37.5)	9(37.50)	6(25.0)	
		계	92(32.9)	103(36.8)	85(30.4)	
	소득수준	수급	27(36.5)	21(28.4)	26(35.1)	3.1
		비수급	65(31.6)	82(39.8)	59(28.6)	
		계	92(32.9)	103(36.8)	85(30.4)	
가정 위탁	성별	남성	4(57.1)	2(28.6)	1(14.3)	1.5
		여성	10(43.5)	6(26.1)	7(30.4)	
		계	14(46.7)	8(26.7)	8(26.7)	
	소득수준	수급	3(27.3)	4(36.4)	4(36.4)	8.0
		비수급	11(57.9)	4(21.1)	4(21.1)	
		계	14(46.7)	8(26.7)	8(26.7)	



제2절 정서 및 사회성

1. 자립생활기술

다음은 조사대상자 중 아동복지시설 중 자립생활기술 정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자립생활기술은 일상생활기술, 자기보호기술, 돈 관리 기술, 지역사회자원 활용 기술, 사회적 기술, 취업기술, 총 6개의 하위영역, 24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뢰도는 .933이다.

자립생활기술 하위영역 중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영역은 자기보호기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기나 간단한 상처에 대한 응급처치, 스트레스 해결방법, 술·담배 중독의 심각성 인식, 임심예방 및 증후 인식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이는 지난 2012년도 아동양육시설 대상 조사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보인 영역은 돈 관리 기술이었고, 다음으로 지역사회자원 활용기술이 낮게 나타났다. 돈 관리 기술은 장단기 예산계획, 소득공제를 위한 저축방법, 개인 신용관리와 신용카드 사용원칙 인식, 신용등급 상향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또한 지난 2012년도 아동양육시설 대상 조사결과와 동일하였다. 이미 개발된 매뉴얼과 교육은 진행되고 있으나, 보다 효과적인 교수방안을 찾는데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표 104〉 자립생활기술 평균점수

구분	N	Mean	SD
일상생활기술	1,221	3.11	.50
자기보호기술	1,220	3.23	.46
돈관리기술	1,219	2.81	.61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1,220	2.92	.56
사회적기술	1,221	3.16	.48
취업기술	1,219	3.04	.51

보호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은 자립생활기술 중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영역은 자기보호기술이었던 반면, 공동생활가정과 가정위탁은 사회적 기술 점수가 가장 높았다.

아동양육시설 조사대상자의 자립생활기술은 3.07점, 공동생활가정은 2.96점으로 공동생활가정보다 아동양육시설의 자립생활기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의 현재 상황에 따른 자립생활기술 결과를 살펴보면, 취업자의 자립생활기술이 3.09점으로 가장 높았고, 재학 중인 응답자는 3.07점, 진학 또는 취업준비 중인 응답자는 2.99점이었다. 취업자는 진학 또는 취업준비 중인 자보다 자립생활기술이 높게 나타났다.

〈표 105〉 보호유형별 자립생활기술 평균점수

구분	일상생활 기술	자기보호 기술	돈관리기술	지역사회 자원활용 기술	사회적기술	취업기술
아동양육시설	3.12	3.23	2.81	2.92	3.16	3.04
공동생활가정	3.01	3.10	2.68	2.86	3.12	2.94
가정위탁	3.03	3.15	2.69	2.70	3.23	3.00

〈표 106〉 아동복지시설 대상 자립생활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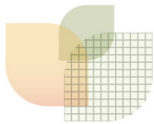
구분		N	Mean	SD	F
보호종결유형	만기퇴소	735	3.04	0.42	-1.37
	연장종료	400	3.08	0.41	
현재상황	재학 중	260	3.07	0.41	5.48** (b)>c) ³⁾
	취업 중	586	3.09	0.41	
	진학/취업준비중	289	2.99	0.43	

**p<.01

〈표 107〉 가정위탁 대상 자립생활기술

구분		N	Mean	SD	F
보호종결유형	만기퇴소	45	2.94	0.43	-.48
	연장종료	41	2.99	0.45	
현재상황	재학중	18	3.037	0.34	.39
	취업중	26	2.97	0.48	
	진학/취업준비중	42	2.93	0.45	

3) Scheffe's Test. b: 취업 중, c: 진학/취업준비 중.



2. 자율적 행동

다음은 조사대상자의 자율적 행동척도를 활용하였으며,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영역, 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영역, 권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 영역, 총 3개의 하위영역, 36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뢰도는 .956이다.

자율적 행동척도의 하위영역 중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영역은 권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관심 있는 하는 일을 알고 찾는 일, 현재 상황과 흐름을 파악하고 선택을 고려하는 것, 나의 권리를 적절하게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을 인지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반면에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보인 영역은 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영역이었고, 다음으로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영역에는 삶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보를 모으고 해낼 수 있는지, 또 그 일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계획을 수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인식하도록 돕고, 사회와 주변인에 대한 배려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표 108〉 자율적 행동 평균점수

구분	N	Mean	SD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1,221	3.67	.58
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1,221	3.60	3.80
권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	1,221	3.80	.59

아동복지시설은 보호종결유형에 따라 자율적 행동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회에 나가 자신의 생애를 관리하고 사회 속에서 자율적으로 생활하는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써 연장종료의 자율적 행동지표 결과는 만기퇴소의 결과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재학 중인 자와 취업중인 자는 진학 또는 취업준비중인 자에 비해 자율적 행동지표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한 기관에 소속되어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

〈표 109〉 보호유형별 자율적 행동 평균점수

구분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권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
아동양육시설	3.68	3.60	3.81
공동생활가정	3.57	3.56	3.71
가정위탁	3.67	3.55	3.82

〈표 110〉 아동복지시설 대상 자율적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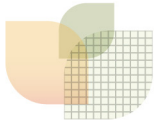
구분		N	Mean	SD	t/F
보호종결유형	만기퇴소	735	3.65	0.54	-3.37***
	연장종료	400	3.76	0.52	
현재상황	재학 중	260	3.77	0.52	8.99*** (a,b)>c) ⁴⁾
	취업 중	586	3.70	0.52	
	진학/취업준비중	289	3.58	0.57	

***p<.001

〈표 111〉 가정위탁 대상 자율적 행동

구분		N	Mean	SD	t/F
보호종결유형	만기퇴소	45	3.60	0.42	-1.71
	연장종료	41	3.76	0.45	
현재상황	재학중	18	3.74	0.45	.41
	취업중	26	3.62	0.37	
	진학/취업준비중	42	3.68	0.48	

4) Scheffe's Test. a: 재학 중, b: 취업 중, c: 진학/취업준비 중.



3. 자아존중감 및 유능감

본 조사에서는 자아존중감은 10문항과 유능감 3문항으로 구성된 4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다음의 표는 아동복지시설의 자아존중감과 유능감을 측정한 조사결과이며, 자아존중감의 신뢰도 값은 .786이었으며, 유능감의 신뢰도 값은 .775이다.

조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평균점수는 2.90점, 유능감은 2.51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호유형별로 자아존중감은 아동양육시설이 다른 보호유형에 비해 높았고, 유능감은 가정위탁이 가장 높았다.

〈표 112〉 자아존중감 및 유능감 평균점수

구분	N	Mean	SD
자아존중감	1,219	2.90	.42
유능감	1,219	2.51	.69

〈표 113〉 보호유형별 자아존중감 및 유능감 평균점수

구분	자아존중감	유능감
아동양육시설	2.91	2.52
공동생활가정	2.81	2.43
가정위탁	2.86	2.60

4. 심리정서문제영역

1) 공격성

심리정서문제영역에서는 공격성, 정서조절감, 불안, 우울을 살펴보았으며, 다음의 표는 조사대상자의 공격성을 측정한 조사결과이며, 본 척도의 신뢰도 값은 .889이다.

조사참여자의 공격성은 2.3점으로 나타났으며, 아동복지시설 내 공격성 척도 내 유의미한 결과는 없었다. 다만 가정위탁을 자립 2년차와 3년차 이상을 비교해보았을

때 자립연차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정위탁 응답자 중 재학 중인 자는 취업 중인 자에 비해 공격성이 다소 높았다.

〈표 114〉 공격성 평균점수

구분	N	Mean	SD
전체	1,220	2.30	.87

〈표 115〉 아동복지시설 공격성

	구분	N	Mean	SD	t/F
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1,048	2.30	0.88	.18
	공동생활가정	87	2.28	0.77	
자립연차	1년차	296	2.26	0.86	.90
	2년차	261	2.37	0.90	
	3년차	211	2.23	0.82	
	4년차	185	2.31	0.87	
	5년차	174	2.32	0.93	
현재상황	재학 중	260	2.25	0.86	.46
	취업 중	586	2.31	0.87	
	진학/취업준비 중	289	2.32	0.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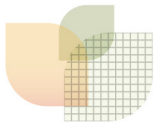
〈표 116〉 가정위탁 공격성

	구분	N	Mean	SD	t/F
자립연차	1년차	44	2.20	0.78	5.15** (b< c) ⁵⁾
	2년차	18	1.86	0.51	
	3년차 이상	24	2.67	1.09	
현재상황	재학중	18	2.72	1.10	4.31* (a> b) ⁶⁾
	취업중	26	1.97	0.63	
	진학/취업준비중	42	2.25	0.82	

*p<.05, **p<.01

5) Scheffe's Test. b: 2년차, c: 3년차 이상.

6) Scheffe's Test. a: 재학 중, b: 취업 중.



2) 정서조절감

다음의 표는 조사대상자의 정서조절감을 측정한 결과이다. 정서조절감은 3개의 문항으로 5점 척도이며, 모두 역문항이다. 척도의 신뢰도는 .742이다. 정서조절감은 ‘나는 괴로울 때도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기분 나쁜 일을 빨리 잊으려고 애쓰는 편이다, 나는 화가 나면 화를 가라앉히려고 노력한다’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상황을 토대로 결과를 살펴보면, 진학 또는 취업준비 중인 자는 재학 중인 자와 취업 중인 자보다 정서조절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7〉 정서조절감 평균점수

구분	N	Mean	SD
전체	1,219	3.39	.78

〈표 118〉 아동복지시설 정서조절감

구분		N	Mean	SD	t/F
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1,048	2.61	0.79	-.42
	공동생활가정	87	2.65	0.74	
보호종결유형	만기퇴소	735	2.62	0.78	.49
	연장종료	400	2.60	0.79	
자립연차	1년차	296	2.66	0.84	2.01
	2년차	261	2.61	0.82	
	3년차	211	2.62	0.68	
	4년차	185	2.66	0.74	
	5년차	174	2.46	0.80	
소득수준	기초수급	309	2.61	0.76	-.04
	비수급	821	2.61	0.80	
현재상황	재학 중	260	2.59	0.72	3.48* (a,b<c) ⁷⁾
	취업 중	586	2.57	0.78	
	진학/취업준비 중	289	2.72	0.84	

*p<.05

7)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 재학 중, b: 취업 중, c: 진학/취업준비 중.

〈표 119〉 가정위탁 정서조절감

구분		N	Mean	SD	t/F
보호종결유형	만기퇴소	45	2.64	0.75	.60
	연장종료	41	2.54	0.80	
자립연차	1년차	44	2.71	0.76	1.38
	2년차	18	2.59	0.72	
	3년차 이상	24	2.39	0.81	
소득수준	기초수급	34	2.67	0.80	.68
	비수급	52	2.55	0.75	
현재상황	재학중	18	2.35	0.93	2.44
	취업중	26	2.85	0.65	
	진학/취업준비중	42	2.55	0.74	

3) 불안·우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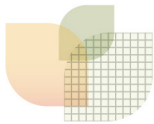
다음의 영역은 조사대상자의 불안과 우울을 측정한 값으로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척도의 신뢰도 값은 .863이다.

아동복지시설 응답자 중 자립 2~5년차는 자립 1년차보다 불안이나 우울이 낮았고, 보호 종결 후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 및 우울정도가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나 현재 상황에 따른 불안 및 우울정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가정위탁의 불안 및 우울은 현재 진학 또는 취업준비 중인 자보다 재학 중인 자가 더 높게 나타나 졸업 이후 삶이나 취업과 관련하여 불안과 우울이 높았던 것으로 보여 진다.

〈표 120〉 불안·우울 평균점수

구분	N	Mean	SD
전체	1,220	2.88	.90



〈표 121〉 아동복지시설 불안·우울

구분		N	Mean	SD	t/F
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1,048	2.86	0.90	-.48
	공동생활가정	87	2.91	0.92	
자립연차	1년차	296	2.70	0.94	3.50** (a>b,c,d,e) ⁸⁾
	2년차	261	2.88	0.90	
	3년차	211	2.93	0.81	
	4년차	185	2.93	0.94	
	5년차	174	2.95	0.90	
소득수준	기초수급	309	2.86	0.90	-.12
	비수급	821	2.86	0.91	
현재상황	재학 중	260	2.82	0.88	1.64
	취업 중	586	2.84	0.90	
	진학/취업준비 중	289	2.94	0.93	

**p<.01

〈표 122〉 가정위탁 불안·우울

구분		N	Mean	SD	t/F
보호종결유형	만기퇴소	45	2.94	0.92	-1.66
	연장종료	41	3.23	0.72	
자립연차	1년차	44	3.04	0.83	2.65
	2년차	18	2.79	0.76	
	3년차 이상	24	3.37	0.85	
소득수준	기초수급	34	3.11	0.75	.29
	비수급	52	3.06	0.90	
현재상황	재학중	18	3.56	0.87	4.03* (a>c) ⁹⁾
	취업중	26	3.00	0.83	
	진학/취업준비중	42	2.92	0.77	

*p<.05

8)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 1년차, b: 2년차, c: 3년차, d: 4년차, e: 5년차.

9) Scheffe's Test. a: 재학 중, c: 진학/취업준비 중.

5. 행복감

다음의 표는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첫 번째 도구로써 총 5개의 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행복감은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활용된 문항으로써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평점 3.03점이었다. 반면 본 조사에서는 행복감이 2.53점으로 아동종합실태조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연차로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자립연차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가정위탁은 자립연차가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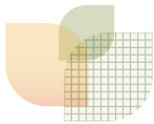
현재상황으로 살펴본 결과, 아동복지시설은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중인 자에 비해 진학 또는 취업 준비 중인 자의 행복감이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가정위탁은 재학 중인 자의 행복감이 가장 낮았다.

〈표 123〉 보호유형별 행복감 평균점수

구분	N	Mean	SD
전체	1,221	2.53	.34

〈표 124〉 아동복지시설 행복감

구분		N	Mean	SD
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1,048	3.43	0.50
	공동생활가정	87	3.42	0.47
보호종결유형	만기퇴소	735	3.42	0.51
	연장종료	400	3.44	0.46
자립연차	1년차	296	3.49	0.49
	2년차	261	3.41	0.51
	3년차	211	3.38	0.48
	4년차	185	3.39	0.51
	5년차	174	3.44	0.46
소득수준	기초수급	309	3.46	0.50
	비수급	821	3.41	0.49
현재상황	재학 중	260	3.46	0.49
	취업 중	586	3.44	0.48
	진학/취업준비 중	289	3.37	0.51



〈표 125〉 가정위탁 행복감

구분		N	Mean	SD
보호종결유형	만기퇴소	45	3.40	0.52
	연장종료	41	3.36	0.36
자립연차	1년차	44	3.36	0.48
	2년차	18	3.39	0.41
	3년차 이상	24	3.40	0.43
소득수준	기초수급	34	3.35	0.45
	비수급	52	3.39	0.45
현재상황	재학중	18	3.24	0.47
	취업중	26	3.47	0.38
	진학/취업준비중	42	3.38	0.47

6. 삶의 만족도

다음의 척도는 보호종결아동의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두 번째 도구로써 최소 0점에서 최대 10점을 만점으로 하는 척도이다.

아동복지시설의 삶의 만족도는 5.07점, 가정위탁의 삶의 만족도는 4.75점으로 나타나 아동복지시설보다 가정위탁의 삶의 만족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본 척도는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활용하였던 것으로써,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6.01점이었던 것에 비하면 매우 낮았다.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한 아동복지법이 있지만, 자립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38조에 의해서 지원서비스가 제공이 된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마련을 통해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 향상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표 126〉 보호유형별 삶의 만족도 평균점수

구분	N	Mean	SD
전체	1,218	5.02	2.24

〈표 127〉 아동복지시설_삶의 만족도

구분		N	Mean	SD	t/F
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1,048	5.03	2.23	-.34
	공동생활가정	87	5.11	2.25	
보호종결유형	만기퇴소	735	5.06	2.26	.39
	연장종료	400	5.00	2.17	
자립연차	1년차	296	5.48	2.21	5.32*** (a>d,e) ¹⁰⁾
	2년차	261	4.92	2.18	
	3년차	211	5.10	2.22	
	4년차	185	4.71	2.13	
	5년차	174	4.67	2.32	
소득수준	기초수급	309	5.14	2.29	.96
	비수급	821	5.00	2.21	
현재상황	재학 중	260	5.28	2.19	13.85*** (a,b>c) ¹¹⁾
	취업 중	586	5.22	2.18	
	진학/취업준비 중	289	4.45	2.27	

***p<.001

〈표 128〉 가정위탁_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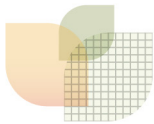
구분		N	Mean	SD	t/F
종결유형	만기퇴소	45	4.71	2.32	-.13
	연장종료	41	4.78	2.55	
자립연차	1년차	44	4.11	2.41	4.44* (a<c) ¹²⁾
	2년차	18	4.78	2.16	
	3년차 이상	24	5.88	2.29	
소득수준	기초수급	34	4.82	2.47	.24
	비수급	52	4.69	2.41	
현재상황	재학중	18	4.89	2.63	1.35
	취업중	26	5.31	2.29	
	진학/취업준비중	42	4.33	2.39	

*p<.05

10) Scheffe's Test. a: 1년차, d: 4년차, e: 5년차.

11) Scheffe's Test. a: 재학 중, b: 취업 중, c: 진학/취업준비 중.

12) Scheffe's Test. a: 1년 차, c: 3년차 이상.



제3절 원가족

이 절에서는 조사대상자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과 부모와의 연계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조사에서는 가족을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친인척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혼인관계 또는 혼인신고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포함하였으며, 혼외 동거는 포함하지 않았다.

다음은 가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표이다. 조사대상자의 72.5%는 가족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가족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27.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의 65.2%는 가족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27.1%가 없거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생활가정은 가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8.2%, 없거나 모르는 비율이 21.8%이었다. 가정위탁은 가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0.7%이었고, 없거나 모르는 경우가 9.3%로,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 가정보다 가족이 있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9〉 가족 유무

(단위: 명, %)

구분	있음	없음	모르겠음	계
전체	885(72.5)	241(19.8)	94(7.7)	1,220(100)
아동양육시설	739(65.2)	225(19.8)	83(7.3)	1,047(100)
공동생활가정	68(78.2)	14(16.1)	5(5.7)	87(100)
가정위탁	78(90.7)	2(2.3)	6(7.0)	86(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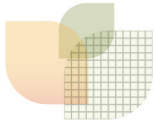
다음은 가족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비율이 41.9%로 가장 높았고,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경우가 31.1%,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비율이 27.0% 순이었다.

아동복지시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가족과 살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족과 함께 살고 싶거나 살고 있는 비율이 59.4%이었다. 여성의 경우 가족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47.0%로 나타났고, 가족과 함께 살고 싶거나 살고 있는 비율이 53.9%이었다.

아동복지시설의 소득수준으로 살펴보면, 수급자의 50.5%는 가족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36.4%,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은 13.1% 순이었다. 비수급자의 41.3%는 가족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39.5%,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은 28.2% 순이었다.

가족과의 동거 선호도를 소득수준으로 살펴본 결과, 비수급자는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 하거나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이 58.7%로 수급자(49.5%)보다 높게 나타났고, 실제 비수급자는 수급자에 비해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이 약 2배 정도 되었다.

가정위탁의 현재 상황으로 가족과의 동거 선호도를 살펴보면, 취업자는 재학 중인 자(61.1%)이거나 진학 또는 취업준비중인 자(69.4%)에 비해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이 33.3%로 현저히 낮았다.



〈표 130〉 가족과의 동거 선호도

(단위: 명, %)

구분			가족과 함께 살고 있음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음	가족과 살고 싶지 않음	χ^2
전체			238(27.0)	274(31.1)	369(41.9)	
아동 복지 시설	성별	남성	97(23.4)	149(36.0)	168(40.6)	6.07*
		여성	97(24.9)	109(28.0)	183(47.0)	
		계	194(24.2)	258(32.1)	351(43.7)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77(24.1)	238(32.3)	321(43.6)	.18
		공동생활가정	17(25.4)	20(29.9)	30(44.8)	
		계	194(24.2)	25(32.1)	351(43.7)	
	소득 수준	수급	27(13.1)	75(36.4)	104(50.5)	18.87***
		비수급	167(28.2)	181(30.5)	245(41.3)	
		계	194(24.3)	256(32.0)	349(43.7)	
	현재 상황	재학 중	45(23.6)	61(31.9)	85(44.5)	3.59
		취업 중	90(22.1)	136(33.3)	182(44.6)	
		진학/취업준비중	59(28.9)	61(29.9)	84(41.2)	
		계	194(24.2)	258(32.1)	351(43.7)	
가정 위탁	성별	남성	13(56.5)	4(17.4)	6(26.1)	.28
		여성	31(56.4)	12(21.8)	12(21.8)	
		계	44(56.4)	16(20.5)	18(23.1)	
	소득 수준	수급	20(66.7)	5(16.7)	5(16.7)	2.13
		비수급	24(50.0)	11(22.9)	13(27.1)	
		계	44(56.4)	16(20.1)	18(23.1)	
	현재 상황	재학 중	11(61.1)	5(27.8)	2(11.1)	10.63*
		취업 중	8(33.3)	8(33.3)	8(33.3)	
		진학/취업준비 중	25(69.4)	3(8.3)	8(22.2)	
		계	44(56.4)	16(20.5)	18(23.1)	

*p<.05, ***p<.001

다음의 표는 현재 가족과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자의 68.7%는 만족하고 있었고, 31.3%는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은 68.7%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1.4%는 가족관계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생활가정은 87.4%가 가족관계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12.6%만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다. 가정위탁의 80.2%는 가족관계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19.7%가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1〉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χ^2
전체	71(8.1)	205(23.3)	488(55.5)	116(13.2)	15.60*
아동양육시설	23(2.2)	160(15.3)	708(67.6)	157(15.0)	
공동생활가정	1(1.1)	10(11.5)	64(73.6)	12(13.8)	
가정위탁	2(2.3)	15(17.4)	58(67.4)	11(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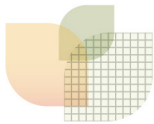
*p<.05

다음은 가족생계를 책임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조사대상자의 82.6%는 가족생계를 책임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17.4%는 가족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의 78.3%가 가족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가정위탁 75.0%, 공동생활가정 70.6%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의 소득수준으로 가족생계 책임여부를 살펴보면, 비수급자(18.2%)는 수급자(8.74%)에 비해 가족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비율이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대상자가 가족생계를 책임지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현재 상황으로 살펴보면, 취업자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19.2%, 진학 또는 취업준비중인 자가 가족생계를 책임지는 경우는 16.2%,



재학 중인 경우에는 8.9%로 나타났다. <표48>의 결과에 의하면, 비수급자의 비율 중 60%이상이 취업자로 나타나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자의 영향으로 가족생계 책임여부가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 진다.

〈표 132〉 가족생계 책임여부

(단위: 명, %)

구분		책임지고 있다	책임지고 있지 않다	χ^2
전체		153(17.4)	728(82.6)	
보호유형	아동양육시설	90(78.3)	25(21.7)	3.99
	공동생활가정	12(70.6)	5(29.4)	
	가정위탁	12(75.0)	4(25.0)	
아동 복지 시설	소득 수준	수급	18(8.74)	10.33**
		비수급	108(18.2)	
		계	126(15.8)	
	현재 상황	재학 중	17(8.9)	10.36**
		취업 중	78(19.2)	
		진학/취업준비중	33(16.2)	
		계	128(15.9)	

**p<.01

다음은 가족의 생활비 지원여부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자의 90.3%는 생활비 지원을 받지 않고 있으며, 9.7%만이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유형으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은 생활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가 91.2%, 받고 있는 경우가 8.7%로 나타났다. 공동생활가정은 생활비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가 90.8%, 받고 있는 경우가 9.2%이었다. 가정위탁의 경우에도 받고 있지 않는 경우가 82.1%로 높게 나타났고, 가정위탁은 17.9%가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정위탁은 아동복지시설보다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3〉 생활비 지원여부

(단위: 명, %)

구분	받고 있음	받고 있지 않음	계
전체	85(9.7)	794(90.3)	879(100)
아동양육시설	64(8.7)	670(91.2)	734(100)
공동생활가정	7(9.2)	60(90.8)	76(100)
가정위탁	14(17.9)	64(82.1)	78(100)

다음의 표는 친부모의 생존여부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자의 81.3%는 생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망하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18.7%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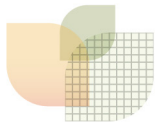
보호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16.9%)과 공동생활가정(5.8%)에 비해 가정위탁은 친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존여부를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47.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34〉 친부모 생존여부

(단위: 명, %)

구분	생존	사망	모르겠음	계
전체	720(81.3)	80(9.0)	86(9.7)	886(100)
아동양육시설	615(83.1)	57(7.7)	68(9.2)	740(100)
공동생활가정	64(94.1)	2(2.9)	2(2.9)	68(100)
가정위탁	41(52.6)	21(26.9)	16(20.5)	78(100)

다음의 표는 가족과의 연락빈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자의 21.8%는 1개월에 1-2회 연락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연락하지 않은 비율이 19.3%, 거의 매주 연락하고 있는 비율이 16.9%, 거의 매일 연락하고 있는 경우는 1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5〉 가족과의 연락빈도

(단위: 명, %)

구분			연락 하지 않음	1년 1회	6개월 1-2회	2-3개월 1-2회	1개월 1-2회	거의 매주	거의 매일	χ^2
전체			140 (19.3)	66 (9.1)	59 (8.1)	72 (9.9)	158 (21.8)	123 (16.9)	108 (14.9)	
아 동 복 지 시 설	자립 연차	1년차	34 (18.28)	14 (7.53)	12 (6.45)	21 (11.29)	39 (20.97)	37 (19.89)	29 (15.59)	17.28
		2년차	27 (16.88)	15 (9.38)	15 (9.38)	16 (10.00)	40 (25.00)	25 (15.63)	22 (13.75)	
		3년차	19 (14.62)	8 (6.15)	14 (10.77)	14 (10.77)	27 (20.77)	25 (19.23)	23 (17.69)	
		4년차	19 (16.81)	11 (9.73)	8 (7.08)	10 (8.85)	26 (23.01)	19 (16.81)	20 (17.70)	
		5년차	23 (26.14)	11 (12.50)	5 (5.68)	4 (4.55)	20 (22.73)	15 (17.05)	10 (11.36)	
		계	122 (18.02)	59 (8.71)	54 (7.98)	65 (9.60)	152 (22.45)	121 (17.87)	104 (15.36)	
	소득 수준	수급	38 (22.89)	13 (7.83)	9 (5.42)	21 (12.65)	44 (26.51)	24 (14.46)	17 (10.24)	13.76*
		비수급	83 (16.18)	47 (9.16)	45 (8.77)	45 (8.77)	109 (21.25)	97 (18.91)	87 (16.96)	
		계	121 (17.82)	60 (8.84)	54 (7.95)	66 (9.72)	153 (22.53)	121 (17.82)	104 (15.32)	
가 정 위 탁	자립 연차	1년차	12 (52.17)	4 (17.39)	2 (8.70)	3 (13.04)	1 (4.35)	1 (4.35)	-	23.89*
		2년차	2 (22.22)	0 (0.00)	0 (0.00)	2 (22.22)	2 (22.22)	-	3 (33.33)	
		3년차	3 (27.27)	2 (18.18)	3 (27.27)	-	2 (18.18)	1 (9.09)	0 (0.00)	
		계	17 (39.53)	6 (13.95)	5 (11.63)	5 (11.63)	5 (11.63)	2 (4.65)	3 (6.98)	
	소득 수준	수급	5 (35.71)	3 (21.43)	1 (7.14)	3 (21.43)	1 (7.14)	-	1 (7.14)	4.31
		비수급	12 (41.38)	3 (10.34)	4 (13.79)	2 (6.90)	4 (13.79)	2 (6.90)	2 (6.90)	
		계	17 (39.53)	6 (13.95)	5 (11.63)	5 (11.63)	5 (11.63)	2 (4.65)	3 (6.98)	

*p<.05

다음의 표는 부모와 연락빈도가 없었던 대상자에게 연락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자의 48.0%가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도 29.1%, 기타 16.2%,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6.8%이었다.

보호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은 연락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49.6%로 가장 높았고,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가 28.7%, 기타 13.9%,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7.8% 순이었다.

공동생활가정은 부모님과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47.1%,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와 기타의 사유가 각 23.5%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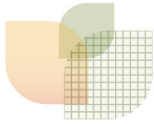
가정위탁의 경우 연락하고 싶지 않은 경우와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가 각 23.5%이었고, 기타사유가 25.5%이었다.

다음의 결과를 통해,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부모님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가정위탁은 해당 사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6〉 부모와 연락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연락처를 모른다	연락하고 싶지 않다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다	기타	계
전체	43(29.1)	71(48.0)	10(6.8)	24(16.2)	148(100)
아동양육시설	33(28.7)	57(49.6)	9(7.8)	16(13.9)	115(100)
공동생활가정	4(23.5)	8(47.1)	1(5.9)	4(23.5)	17(100)
가정위탁	6(37.5)	6(37.5)	-	4(25.0)	16(100)



제4절 보호기관과의 전반적 관계

다음의 표는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부모와의 연락(또는 방문) 여부 및 빈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자의 75.8%는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부모와 연락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24.2%는 연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동생활가정의 80.5%가 시설 담당자와 계속 연락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아동양육시설이 77.0%, 가정위탁이 55.8%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위탁 종결아동이 위탁부모에게 연락(또는 방문)하는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7〉 시설 및 위탁부모와의 연락(방문) 여부

(단위: 명, %)

구분	예	아니오	계
전체	925(75.8)	296(24.2)	1,221(100)
아동양육시설	807(77.0)	241(23.0)	1,048(100)
공동생활가정	70(80.5)	17(19.5)	87(100)
가정위탁	48(55.8)	38(44.2)	86(100)

보호받았던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부모와의 연락을 주고받는 조사대상자에게 연락(방문) 빈도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3개월에 1회 정도 연락하는 비율이 27.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6개월에 1회가 21.5%, 월1회가 20.9%, 1년에 1회가 123.8%, 주1회가 10.7%, 기타 5.5% 순이었다.

보호유형을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의 28.6%와 공동생활가정의 30.4%는 2-3개월에 1회 연락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위탁은 위탁부모와 주1회 연락하고 있었다.

〈표 138〉 연락(방문) 빈도

(단위: 명, %)

구분	주 1회	월 1회	2-3개월 1회	6개월 1회	1년 1회	기타	계
전체	98(10.7)	192(20.9)	253(27.5)	198(21.5)	127(13.8)	51(5.5)	919(100)
아동양육시설	64(8.0)	176(21.9)	229(28.6)	187(23.3)	110(13.7)	36(4.5)	802(100)
공동생활가정	15(21.7)	11(15.9)	21(30.4)	7(10.1)	10(14.5)	5(7.2)	69(100)
가정위탁	19(39.6)	5(10.4)	3(6.2)	4(8.3)	7(14.6)	10(20.8)	48(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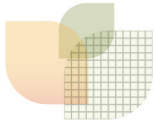
다음의 표는 보호종결 이후 지금까지 시설담당자 또는 위탁부모 등과 연락할 때, 주된 연락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조사대상자의 54.1%는 아동복지시설 담당자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로 가장 높았으며, 스스로 먼저 연락한 비율도 43.9%, 위탁부모 1.9%로 나타났다.

〈표 139〉 기관과의 연락(방문) 주체

(단위: 명, %)

구분	아동복지시설 담당자	가정위탁지원 센터 담당자	위탁부모	내가 먼저 연락함	계
전체	483(52.7)	13(1.4)	18(1.9)	403(43.9)	917(100)
아동양육시설	443(55.5)	-	-	356(44.6)	799(100)
공동생활가정	40(58.0)	-	-	29(42.0)	69(100)
가정위탁	-	13(26.6)	18(36.7)	18(36.7)	49(100)

다음의 표는 아동복지시설 담당자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이 연락(방문)한 사유 또는 스스로 연락을 취했던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자의 82.9%는 안부 차 연락을 취했다고 응답했으며, 혜택관련 정보 제공이 16.3%, 자립생활의 어려움으로 12.2%, 기타 4.1%로 나타났다.



〈표 140〉 연락(방문) 이유 (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안부	자립생활의 어려움	자립서비스 지원 제공	혜택 관련 정보 제공	기타	계
전체	762(82.9)	112(12.2)	107(11.6)	150(16.3)	38(4.1)	919(100)
아동양육시설	665(83.0)	98(12.2)	96(12.0)	131(16.4)	33(4.1)	801
공동생활가정	61(88.4)	10(14.5)	2(2.9)	11(15.9)	3(4.3)	69
가정위탁	36(73.5)	4(8.2)	9(18.4)	8(16.3)	2(4.1)	49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담당자 또는 위탁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자는 시설담당자 또는 위탁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가깝다고 응답한 비율이 59.6%이었고, 멀다고 응답한 비율은 40.4%로 나타났다.

보호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은 시설담당자와 가깝다고 응답한 비율이 58.5%로 높게 나타났고, 멀다고 응답한 비율은 41.5%이었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가깝다고 응답한 비율이 65.5%로 높게 나타났고, 멀다고 응답한 비율이 9.2%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공동생활가정은 아동양육시설보다 더 가깝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대규모시설인 아동양육시설보다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자라는 소규모시설인 공동생활가정의 특성으로 인한 결과로 보여 진다. 가정위탁의 경우에도 공동생활가정과 마찬가지로 가정환경에서 보호받는 특성을 가졌다. 그 결과 위탁부모와 가깝다고 응답한 비율이 6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멀다고 응답한 비율이 32.6%로 나타났다.

자립연차별로 시설 담당자와 관계가 가깝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1년차는 68.3%, 2년차는 63.5%, 3년차는 56.1%, 4년차는 54.1%, 5년차는 46.0%로 나타나 자립연차가 높을수록 관계가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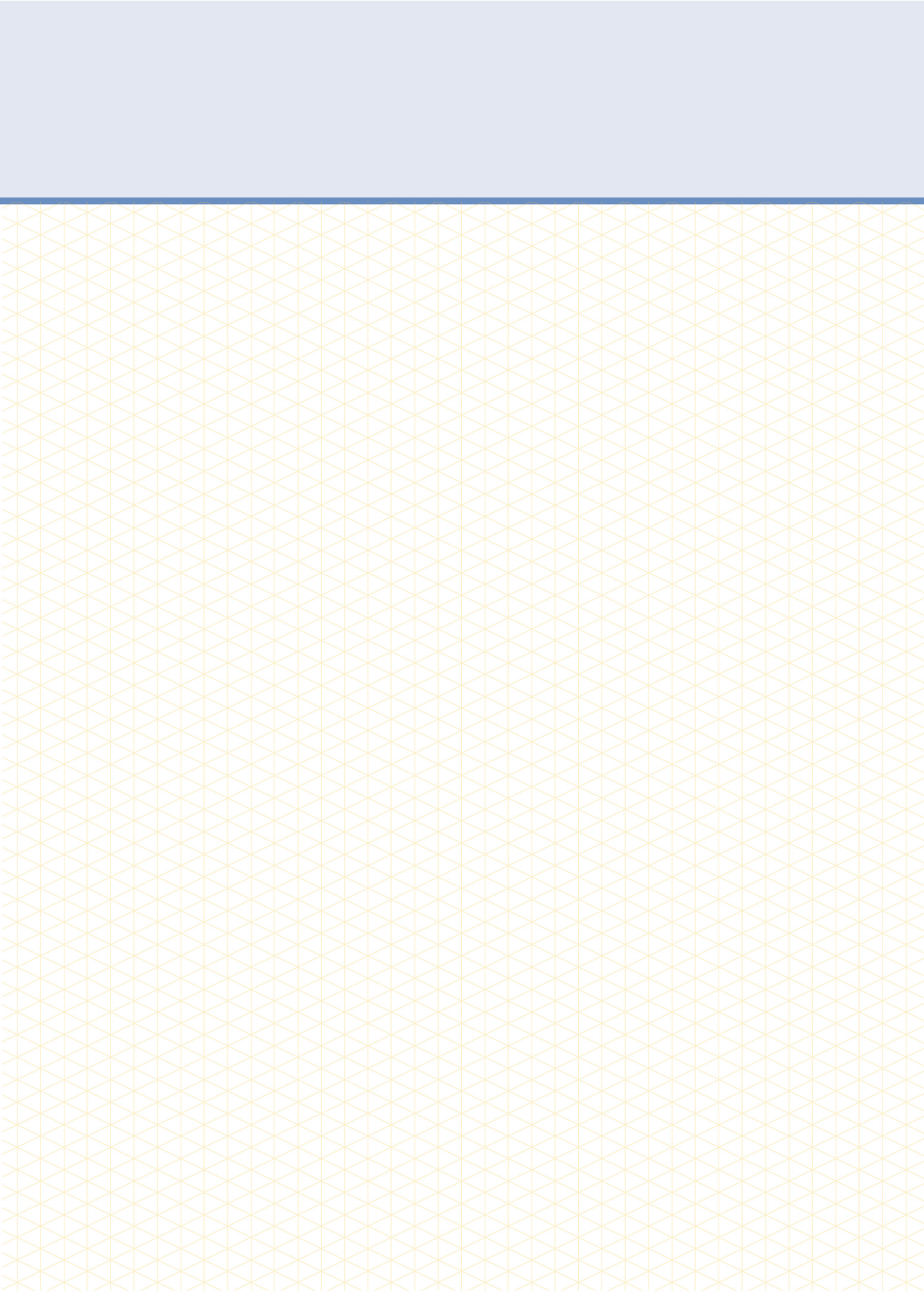
이들의 소득수준을 통해 살펴보면, 수급자의 66.4%는 관계가 가깝다고 응답하고 있고, 비수급자의 56.3%가 시설담당자와 가깝다고 하여 비수급자에 비해 수급자가 시설 담당자와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1〉 시설 또는 위탁부모와의 관계

(단위: 명, %)

구분			매우멀다	다소멀다	가깝다	매우가깝다	χ^2
전체			137(11.2)	355(29.1)	579(47.5)	148(12.1)	
아동 복지 시설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119(11.4)	315(30.1)	496(47.4)	116(11.1)	9.00*
		공동생활가정	8(9.2)	22(25.3)	38(43.7)	19(21.8)	
		계	127(11.2)	337(29.7)	534(47.1)	135(11.9)	
	자립 연차	1년차	21(7.1)	73(24.7)	161(54.4)	41(13.9)	35.34***
		2년차	20(7.7)	75(28.9)	130(50.0)	35(13.5)	
		3년차	27(12.9)	65(31.0)	94(44.7)	24(11.4)	
		4년차	24(13.0)	61(33.0)	81(43.8)	19(10.3)	
		5년차	34(19.5)	60(34.5)	65(37.4)	15(8.6)	
		계	126(11.2)	334(29.7)	531(47.2)	134(11.9)	
	소득 수준	수급	30(9.7)	74(24.0)	163(52.8)	42(13.6)	9.50*
		비수급	97(11.8)	261(31.8)	368(44.9)	93(11.4)	
		계	127(11.3)	335(29.7)	531(47.1)	135(12.0)	
가정 위탁	자립 연차	1년차	6(13.6)	11(25.0)	22(50.0)	5(11.4)	5.24
		2년차	-	4(22.2)	11(61.1)	3(16.7)	
		3년차 이상	4(16.7)	3(12.5)	12(50.0)	5(20.8)	
		계	10(11.6)	18(20.9)	45(52.3)	13(15.1)	
	소득 수준	수급	3(8.8)	9(26.5)	18(52.9)	4(11.8)	1.63
		비수급	7(13.5)	9(17.3)	27(51.9)	9(17.3)	
		계	10(11.6)	18(20.9)	45(52.3)	13(15.1)	

*p<.05, ***p<.001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제11장

결론: 논의 및 정책제언

제11장 결론: 논의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자립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이후 보호종결아동의 전반적인 자립실태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자립지원정책을 수립하고자 진행되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2008년, 2012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된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로 아동복지법 전면개정 이후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실태를 조사한 것에 그 의의가 있으며 2012년과 비교할 때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2012년 아동양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와 비교해보면 자립지원금, 주거지원, 국가장학금 등 정부주도의 자립지원이 확대되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자립지원금의 경우 2012년도 평균 자립지원금은 632만원이었지만 2016년도 평균 자립지원금은 1,051만원으로 약 1.7배 증가하였고 모든 유형의 자립지원금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디딤씨앗통장(CDA)은 약 3배, 후원금은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도 정부지원 전세주택이 16.4%였던 것이 33.9%로 약 2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역시 59.9%에서 77.9% 증가하고 장학금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는 53.6%에서 17.6%로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지난 4년 동안 보호종결아동에게 정부주도의 경제적 자립지원정책은 매우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종결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불안 등 심리적 문제가 더 증가하고 자립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5년간 자립지원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증가하는 점은 자립지원서비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보호종결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정책 및 자립지원 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종결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정착을 위해 자립지원 관련법 및 자립지원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는 2012년 아동복지법 전면개정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으로 보호 종결 5년 이내 아동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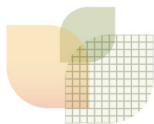
자립지원대상자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49.7%로 나타나 보호종결 이후 자립지원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이에 보호종결 직전 자립지원 관련법 및 자립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해야 한다.

둘째, 자립지원금에 대한 표준화 방안 및 관리가 필요하다. 보호종결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은 2012년과 비교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자립정착금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별도 운영되고 있으며,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 후원금 등 자립지원금은 아동별,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지급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자립지원금의 표준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립정착금 사용 시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보호기관 종사자와 의논보다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가 3배정도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자립지원금에 대한 계획수립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주거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공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보호종결아동을 위한 주거지원제도로써 정부주도의 전세주택지원이 확대되었지만 월세 비중은 이전보다 더 높아졌고, 자립지원시설 이용은 이전보다 절반이상 낮아졌다. 이에 효과적인 주거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거지원제도를 재검토하여 신청연령 확대 및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경제교육 강화와 맞춤형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보호종결아동의 종결직후 상황과 현재 상황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 비율이 낮아졌지만, 아동양육시설은 퇴소한 지 오래될수록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평균 소득액과 지출액을 비교한 결과,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채가 있는 경우도 13.5%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돈 관리 등 경제교육을 강화하고 필요 시 긴급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자립지원망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 및 민간연계를 통한 학업생활 지원금의 확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국가장학금 및 시도별 대학입학금 지원의 확대로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학업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이다. 그러나 여전히 대학생활 중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고 이는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교 및 민간연계를 통한 학업생활 지원금, 자기계발 기회



등 경제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진출 시 공평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여섯째, 안정적인 자립정착을 위해 취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보호종결아동의 경우 취업희망 직업으로 전문직이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서비스직이 높게 나타났고 취업 시 어려운 점으로 학력·기술·자격부족과 경험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호종결아동이 안정적인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및 내일배움카드, 청년취업인턴제 등 취업지원제도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민간연계를 통한 자기계발 기회 확대 및 자격증취득지원, 교과연계 동아리활동 등 취업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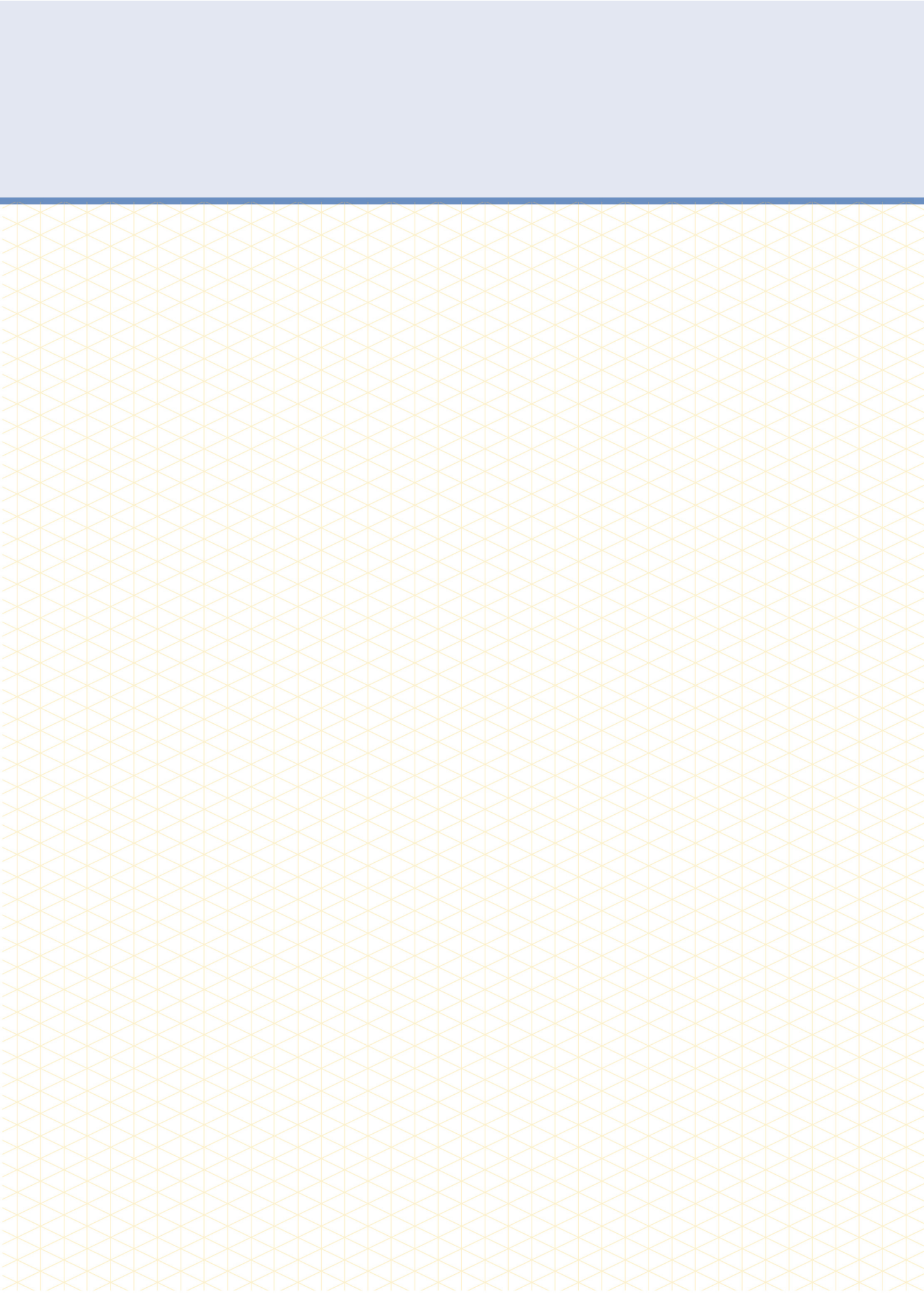
일곱째, 보호종결아동을 위한 건강 및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조사대상자의 14.1%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하였다. 지난 1년간 질병을 앓은 적이 있어도 치료받지 못한 경우도 7.8%이었고, 35.8%가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심리정서 측면에서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활용했던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할 행복감과 삶의 질 만족도는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보다 보호종결아동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 더 심각한 것은 아동양육시설 퇴소자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우울이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이에 이들을 위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지지체계를 양적, 질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원가족 및 보호기관 종사자와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한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본 연구결과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가족과의 관계에 불만족하는 등 가족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기관의 종사자 및 위탁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심리적으로 멀게 느끼는 등 이들의 일차적 사회적 지지망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원가족과의 관계형성 및 보호기관의 종사자의 친밀감 형성을 위한 다양한 관계형성 프로그램 및 지원제도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현아, 신혜령, 박은미(2009). 시설 퇴소청소년의 성인전환 단계에 따른 자립 및 사회적응 현황, 한국아동복지학회.
-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2016). 주거복지사업안내.
- 김기현·맹영임·장근영·구정화·강영배·조문흠(2009).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자율적 행동 영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명성(2013). 시설퇴소청소년의 자립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숙·전진아·하태정·김효진·오미애·정은희·최은진·이봉주·김선숙(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혜령·노충래·정익중·이동욱·곽유정(2012). 2012 아동양육시설 퇴소·연장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보건복지부·아동자립지원사업단.
- 신혜령·한지은(2006). 보호아동자립지원프로그램 개발연구. 보건복지부.
- 신혜령·한지은·백지은·김진희(2006). 보호아동자립지원프로그램 매뉴얼. 보건복지부.
- 아동자립지원단(2012). 2012퇴소연장아동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 보건복지부(2015). 보건복지 통계연감.
- 보건복지부(2016). 아동분야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6). 아동복지시설현황.
- 아동자립지원단(2012). 2012퇴소연장아동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 아동자립지원단(2015). 요보호아동사회적응과정과 빈곤예방대책연구.
- 아동자립지원단(2016). 자립정보북.
- 조순실(2010). 그룹홈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향한 삶의 경험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2015). 가정위탁현황보고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work.go.kr/> 2016년 10월 31일 추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2016년 11월 1일 추출
-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law.go.kr/> 2016년 11월 1일 추출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설문지

설문지



2016 보호종결 대상자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아동복지법 제38조에 의거하여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종결한 여러분의 실제 자립현황과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기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여러분과 후배들이 보호 종결 후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데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본 설문지 응답소요시간은 약 20분이며, 응답내용에는 맞고 틀림이 없으므로 평소 귀하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응답이 더욱 귀중하고 가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읽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8월.

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담 당 자 : 아동자립지원단 주보라 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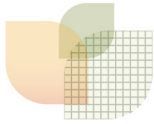
연 락 처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91 센트럴프라자 7층 (우. 04320)

☎ 02-2127-5908 / ✉ jarip@kohi.or.kr / <http://jarip.kohi.or.kr>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귀하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아동자립지원단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 손수복 주임 (☎ 02-2127-5903)



PART 1. 일반적 특성

■ 다음은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을 선택하십시오.

-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만 나이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만 _____세

3. 귀하가 보호받았던 장소를 선택하십시오.

- ① 아동양육시설 ② 공동생활가정 ③ 가정위탁(3-1번으로 가시오)

- ※ 아동양육시설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보호시설
 ※ 공동생활가정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그룹홈(7명 이내)
 ※ 가정위탁 : 일정기간 동안 친인척의 집에서 지냈거나 위탁부모의 가정에서 지냈던 경우
 ※ 아동복지시설 중 자립지원시설은 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립지원시설 입소 전 보호유형으로 선택함

3-1. 가정위탁의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 ① 일반 가정위탁 ② 대리 가정위탁 ③ 친인척 가정위탁

- ※ 일반 가정위탁 : 혈연관계가 아닌 가정에서 살았던 경우
 ※ 대리 가정위탁 :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산 경우
 ※ 친인척 가정위탁 : 삼촌, 고모, 이모, 큰아버지 등과 함께 산 경우

4. 보호기간 중 살았던 주소를 읍면동 단위까지 작성하십시오. 보호기간이라함은 아동복지 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조부모, 친인척, 일반) 보호기간을 말합니다.

(예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5. 현재 살고 있는 주소를 읍면동 단위까지 작성하십시오.

(예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6. 귀하의 교육수준은 무엇입니까?

- ① 중학교 이하 ② 고등학교 ③ 전문대(2, 3년제)
④ 대학교(4년제) ⑤ 대학원(석박사)

7. 귀하는 졸업하였습니까?

- ① 졸업(년) ② 재학 ③ 중퇴 ④ 휴학

8. 귀하가 시설을 퇴소하거나 위탁가정보호가 종결된 년도는 언제입니까?

- ① 2012년 ② 2013년 ③ 2014년
④ 2015년 ⑤ 2016년 ⑥ 기타 (년도)

9. 귀하의 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기간을 기재하십시오. ____년 ____개월 (□ 모른다)

10. 귀하가 시설을 퇴소하거나 위탁가정보호가 종결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① 만기퇴소 ② 연장종료

※ 만기퇴소 : 만18세에 종결(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종결)

※ 연장종료 :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재학, 취업훈련 등으로 보호 중이었다가 대학졸업(휴학·자퇴포함), 취업 등으로 종결(만18세가 지난 후 종결)

11. 보호시설 또는 위탁가정 보호 종결 당시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 ① 대학진학 준비 중 ② 대학교(원) 재학 중(휴학포함) ③ 취업준비 중
④ 취업 중

※ '취업 중'은 단순 장단기 아르바이트가 아니며, 수입을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지속했거나 그 이상을 지속할 계획이 있는 경우

12. 귀하의 현재상황은 어떠합니까?

- ① 대학진학 준비 중 ② 대학교(원) 재학 중(휴학포함) ③ 취업준비 중
④ 취업 중

※ '취업 중'은 단순 장단기 아르바이트가 아니며, 수입을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지속했거나 그 이상을 지속할 계획이 있는 경우



■ 다음은 귀하의 건강 및 심리사회적 현황과 관련된 조사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없음(14번으로 가시오) ② 정형외과 질환(뼈가 부러지거나 관절부상 등)

③ 이비인후과 질환(비염, 중이염 등) ④ 내과 질환(감기, 장염, 알레르기 등)

⑤ 치과 질환(충치, 잇몸병, 치아교정 등) ⑥ 안과 질환(눈병 등)

⑦ 흉부외과 질환(심장, 폐질환 등) ⑧ 피부과 질환(여드름, 아토피, 습진 등)

⑨ 신경과 질환(경련, 간질 등) ⑩ 정신과 질환(우울, 불안, 공황장애 등)

⑪ 기타 질환()

① 전부 나을 때까지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받고 있음(14번으로 가시오)
 ② 일부 치료만 받았음 ③ 전혀 치료받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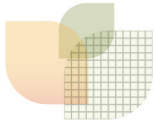
① 많이 아프지 않아서 ② 치료비가 없어서
③ 병원이 멀어서 ④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서
⑤ 병원에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⑥ 치료가 무서워서
⑦ 귀찮아서 ⑧ 몸이 불편해서
⑨ 기타()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쁘다 ③ 좋다 ④ 매우 좋다

① 예(장애명 _____, _____급) ② 아니오

16. 다음의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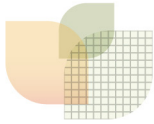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나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사회의 관습에 대해 알고 있다.					
② 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다.					
③ 나는 우리사회의 도덕적인 기준에 대하여 알고 있다.					
④ 나는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⑤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몇 가지 다른 방법들을 비교한 후 행동한다.					
⑥ 나는 앞날을 내다보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⑦ 나는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을 수정한다.					
⑧ 나는 행동을 할 때에 현재보다는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행동한다.					
⑨ 나는 내 행동으로 인해 나타날 결과를 미리 생각해 본다.					
⑩ 나는 내 행동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나쁜 결과를 미리 생각해 본다.					
⑪ 나는 내 행동이 남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					
⑫ 나는 뜻하지 않은 일로 오해를 살 때가 있다.					
⑬ 나는 지금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있다.					
⑭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움이 되는 자원(정보)를 활용한다.					
⑮ 나는 목표를 세우기 전에 그 목표와 관련된 정보를 모은다.					
⑯ 나는 할 일을 스스로 계획한다.					
⑰ 나는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⑮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다.					
⑯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한다.					
⑰ 나는 무슨 일이든 내 일은 혼자 힘으로 해낸다.					
⑱ 나는 오랫동안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편이다.					
㉒ 나는 계획한 일이 잘 되었는지를 스스로 평가한다.					
㉓ 나는 내가 한일의 결과가 내가 원하던 것인지 생각한다.					
㉔ 나는 내가 한 일의 결과를 평가해보고 다음 할 일을 계획할 때 고려한다.					
㉕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㉖ 나는 내가 싫어하는 것(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㉗ 나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㉘ 나는 이 세상에는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일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㉙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㉚ 나는 주장을 하기 전에 돌아가는 상황과 흐름을 먼저 이해한다.					
㉛ 나는 나의 당연한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㉜ 나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나의 권리를 주장한다.					
㉝ 나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나의 권리를 주장한다.					
㉞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중하게 행동한다.					
㉟ 나는 주장을 하기 전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찾아본다.					
㊱ 나는 모두가 만족하는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다.					

17. 다음의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곳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필요한 물건을 경제적으로 쇼핑하는 방법을 안다.				
② 필요한 음식 만들기와 조리기구의 사용법을 안다.				
③ 전기코드나 전등의 문제를 점검하고 해결한다.				
④ 세탁기사용 때 옷 주의사항을 점검한다.				
⑤ 감기나 간단한 상처의 대처방법을 알고 있다.				
⑥ 스트레스의 해결방법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				
⑦ 술·담배의 중독이 건강에 미치는 심각성을 안다.				
⑧ 임신예방과 임신의 증후에 대해 알고 있다.				
⑨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기계획을 가지고 실행한다.				
⑩ 소득공제를 위한 면세, 감세 등의 저축방법을 안다.				
⑪ 개인 신용의 중요성과 신용카드 사용 원칙을 안다.				
⑫ 나의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⑬ 임대계약을 작성하고 책임과 의무에 대한 내용을 사전점검을 할 수 있다.				
⑭ 집을 이사하면 이후의 행정절차(전입신고, 확정일자받기 등)에 대해 알고 있다.				
⑮ 인터넷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 정보를 알 수 있다.				
⑯ 긴급사고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을 파악하고 있다.				
⑰ 결혼의 의미와 배우자의 책임에 대해 알고 있다.				
⑱ 부모의 책임과 부모역할에 대해 알고 있다.				
⑲ 화를 내지 않고 나에게 대한 충고를 들을 수 있다.				
⑳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할 때 신중하게 결정한다.				
㉑ 취업면접시의 행동이나 기준을 잘 알고 있다.				
㉒ 직장인으로서 비전(목표)을 가지고 일한다.				
㉓ 친구, 직장동료 등과의 갈등을 다루는 방법을 안다.				
㉔ 나의 기술영역이나 특정영역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찾고 공부한다.				



18. 다음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소중한) 사람이고 느낀다.				
②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③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뭐든지 할 수 있다.				
④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⑤ 대체로 나 자신에 만족한다.				
⑥ 나는 재주가 많다고 생각한다.				
⑦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지가 강하다.				
⑧ 나는 처음에 못할지라도 잘 할 때까지 열심히 한다.				
⑨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⑩ 나는 자랑스러워 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⑪ 때때로 나 자신이 쓸데없는 존재라고 느낀다.				
⑫ 때때로 내가 전혀 유능하지 않다고(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⑬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19. 다음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나는 아주 약이 오르면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다.					
② 누군가 나를 때린다면 나도 그 사람을 때린다.					
③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싸운다.					
④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다.					
⑤ 나는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다.					
⑥ 나는 자신이 금방 터질 것 같은 화약과 같다고 생각한다.					
⑦ 나는 괴로울 때도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⑧ 나는 기분 나쁜 일을 빨리 잊으려고 애쓰는 편이다.					
⑨ 나는 화가 나면 화를 가라앉히려려고 노력한다.					
⑩ 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는 편이다.					
⑪ 나는 모든 일에 걱정이 많은 편이다.					
⑫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불안할 때가 있다.					
⑬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로울 때가 있다.					
⑭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슬프고 울적할 때가 있다.					

20. 지난 1년간 다음 항목들이 해당하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나는 행복하다.				
② 나는 대체로 기분이 좋다.				
③ 일기나 편지, 메모지 등에 자살에 대한 글을 자주 쓴다.				
④ 나는 불행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⑤ 나는 평소에 즐겁게 생활한다.				
⑥ 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21. 귀하는 현재 삶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위치한다고 생각합니까?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⑦
높은 삶의 수준			중간				낮은 삶의 수준			

22. 귀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 ① 있음 ② 없음(24번으로 가시오) ③ 모르겠음(24번으로 가시오)

※ 본 문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친인척을 말합니다.
(혼인관계 또는 혼인신고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포함하지만, 보통의 혼외동거는 포함하지 않음)

22-1. 가족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까?

- ①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②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진 않지만 함께 살고 싶다
③ 가족과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22-2. 현재 가족과의 관계는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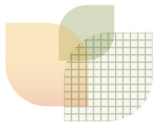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만족 ④ 매우만족

22-3. 현재 귀하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22-4. 현재 가족으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 ① 받고 있음(월 평균 _____만원) ② 받고 있지 않음



23. 친부 또는 친모가 살아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23-1. 부모와는 얼마나 자주 연락하십니까?

- ① 전혀 연락하지 않음(23-2번으로 가시오) ③ 6개월에 1-2회 정도
② 1년에 1번 정도 ⑤ 1개월에 1-2회 정도
④ 2-3개월에 1-2회 정도 ⑦ 거의 매주
⑧ 거의 매일

23-2. 부모와 연락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부모의 연락처를 모른다
② 내가 부모님과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③ 부모님이 나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
④ 기타()

PART 3. 자립지원서비스 이용현황

■ 다음은 시기별 자립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24. 다음의 내용은 **보호 종결 이후** 귀하가 지원받았던 지원내용과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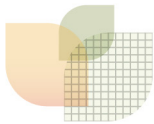
24-1. 보호종결 이후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체크하십시오.

24-2. **어떤 기관**에서 지원을 받았는지 다음의 보기를 참고하여 표시하여 주십시오.

24-3. **서비스에 대한 도움정도**에 따라 1점에서 4점 중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① 정부기관(LH, 기초생활수급 등)	②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③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④ 민간(후원)단체
	⑤ 아동자립지원단	⑥ 기타()

지원 영역	서비스 종류	보호 종결 이후						
		24-1. 지원여부		24-2. 지원기관 (중복응답가능)	24-3. 도움정도			
		없음	있음	※ 보기내용 참조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생활비 지원	식료품 등 식비, 교통통신비, 피복비, 생필품 구입비 등 (물품지원 포함)			①②③④⑤⑥ ()				
주거 지원	(정부지원 아닌) 전월세보증금, 월세 등 주거 또는 주거비 지원			①②③④⑤⑥ ()				
	(정부지원) 주거임대(LH, SH 등)			①②③④⑤⑥ ()				
건강 지원 (의료 지원)	건강검진(진료·검사, 약품구입 등)			①②③④⑤⑥ ()				
	치료, 수술비(관련 약품구입 포함)			①②③④⑤⑥ ()				
학업 지원	대학입학금·등록금			①②③④⑤⑥ ()				
	학원비 (자기계발 포함)			①②③④⑤⑥ ()				
자립 지원 (직업 훈련)	직업훈련(훈련수당, 교통비, 식사비 등 포함)			①②③④⑤⑥ ()				
	창업자금 대여			①②③④⑤⑥ ()				



지원 영역	서비스 종류	보호 종결 이후						
		24-1. 지원여부		24-2. 지원기관 (중복응답가능)	24-3. 도움정도			
		없음	있음	※ 보기내용 참조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상담 지원	상담지원 (개별상담, 심리치료 등)			①②③④⑤⑥ ()				
	심리검사			①②③④⑤⑥ ()				
법률 지원	소송			①②③④⑤⑥ ()				
	법률상담			①②③④⑤⑥ ()				
활동 지원	문화여가 활동(입장료 등)			①②③④⑤⑥ ()				
	어학연수 등 해외교류 활동			①②③④⑤⑥ ()				
기타 (추가 기재)	()			①②③④⑤⑥ ()				

25. 위의 지원받았던 서비스 수준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③ 만족한다 ④ 매우 만족한다

26. 아동복지법에 의해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후 5년 이내인 자를 자립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012년 8월 개정). 위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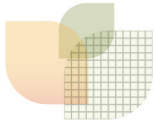
27. 귀하는 위의 규정에 따라 보호 종결 후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28.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자립지원기간으로 시설퇴소 및 위탁종료 후 5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② 적절하지 않다 ③ 적절하다
④ 매우 적절하다

29. 보호 종결 후 자립지원을 위해 얼마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3년 미만 ③ 3년 이상 5년 미만
 ④ 5년 이상 7년 미만 ④ 7년 이상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⑥ 취업 전까지 ⑦ 기타()
30.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가 내방, 방문, 전화 등을 통해 연락 한다면 어느 정도 연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주 1회 ② 월 1회 ③ 2-3개월 1회
 ④ 6개월 1회 ⑤ 1년 1회 ⑥ 기타()
31. 보호 종결 이후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취업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자격 부족
 ② 직장 내 인간관계의 어려움
 ③ 거주할 집 문제
 ④ 음식하기, 빨래하기, 장보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의 부족
 ⑤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역자원과 정보의 부족
 ⑥ 아프거나 긴급사고시 도움청할 곳 부족
 ⑦ 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부족
 ⑧ 퇴소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
 ⑨ 생활비, 학비 등 필요한 돈의 부족
 ⑩ 독립적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따른 외로움 등 심리적 부담
 ⑪ 기타()
32. 자립지원기간 5년 동안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생활비 지원 ② 주거지원 ③ 건강지원(의료지원)
 ④ 학업지원 ⑤ 자립지원(직업훈련) ⑥ (심리)상담지원
 ⑦ 법률지원 ⑧ 문화여가 등 활동지원 ⑨ 기타 ()
33. 보호 종결 이후 시설 선생님 또는 위탁부모와 관계는 어떻습니까?
- ① 매우 멀다 ② 다소 멀다 ③ 가깝다 ④ 매우 가깝다



34. 시설퇴소 및 위탁종료 후 지금까지 시설선생님이나 위탁부모와 연락(또는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35번으로 가시오)

34-1. 지금까지 과거 생활했었던 시설선생님 또는 위탁부모와 얼마나 자주 연락(또는 방문) 하였습니다?

- ① 주 1회 ② 월 1회 ③ 2-3개월 1회
④ 6개월 1회 ⑤ 1년 1회 ⑥ 기타()

34-2. 주된 연락 또는 방문자는 누구입니까?

- ① 아동복지시설 담당자
② 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
③ 위탁부모 ※ 위탁부모인 조부모, 친인척 포함
④ 내가 먼저 연락함

34-3. 어떤 이유로 연락을 하거나 받았습니까? (중복응답가능, 최대 2개)

- ① 일상적인 안부 ② 자립생활이 힘들 때(자립과정상담)
③ 자립서비스 지원 제공 ④ 혜택 관련 정보 제공
⑤ 기타 ()

35. 귀하는 종결 당시 자립정착금, CDA(디딤씨앗통장), 후원금으로 얼마를 수령하였습니까?

- ① 자립정착금 _____만원 (35-1번으로 가시오) ☐ 없음
② CDA(디딤씨앗통장) _____만원 (35-2번과 연계) ☐ 없음
③ 후원금 _____만원 (35-2번과 연계) ☐ 없음

※ 자립정착금 : 보호종결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지자체가 지급

※ CDA(디딤씨앗통장) : 보호 중 본인(또는 후원자)과 정부가 일정금액을 매칭하여 적립함

※ 후원금 : 보호 중 후원금 통장

35-1. 자립정착금은 언제 수령하였습니까?

- | | |
|---------------|---------------|
| ① 보호 종결 전 | ② 종결 후 1개월 이내 |
| ③ 종결 후 3개월 이내 | ④ 종결 후 6개월 이내 |
| ⑤ 종결 후 1년 이내 | ⑥ 종결 후 1년 이상 |

35-2. 수령한 자립정착금, CDA, 후원금은 어떤 항목으로 지출하였습니까?

(중복응답가능)

구 분	자립정착금 (예) 500만원	CDA (예) 500만원	후원금 (예) 500만원
① 전혀 지출하지 않음 ※ 체크시 아래의 보기는 작성하지 않음	만원	만원	만원
①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	만원	만원	만원
② 주거마련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만원	만원	만원
③ 수도광열비 등 관리비(수도세, 전기료, 난방비, 가스비 등)	만원	만원	만원
④ 주·부식비, 교통·통신, 생필품 등 생활비	만원	만원	만원
⑤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	만원	만원	만원
⑥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을 위한 학원등록비	만원	만원	만원
⑦ 피복신발(의류, 신발)	만원	만원	만원
⑧ 의료비	만원	만원	만원
⑨ 교양오락비(여행, 문화여가 등)	만원	만원	만원
⑩ 결혼자금	만원	만원	만원
⑪ 유흥비	만원	만원	만원
⑫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가족 등 본인 외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 (예) 조부모의 의료비, 부모형제 등에게 빌려줌 등	만원	만원	만원
⑬ 잔액이 있음(저축포함)	만원	만원	만원
⑭ 기타()	만원	만원	만원
합 계	만원	만원	만원



자립정착금	① 스스로 결정 ② 가족 또는 친인척 ③ 지인(친구포함) ④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주민센터 담당공무원 포함) ⑤ 기타 ()
CDA(디딤씨앗통장) 적립금	① 스스로 결정 ② 가족 또는 친인척 ③ 지인(친구포함) ④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주민센터 담당공무원 포함) ⑤ 기타 ()
후원금	① 스스로 결정 ② 가족 또는 친인척 ③ 지인(친구포함) ④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주민센터 담당공무원 포함) ⑤ 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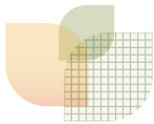
PART 4. 주거현황

■ 다음은 조사대상자의 주거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37. 현재 살고 있는 주거유형과 임차료는 얼마입니까?

※ 금액이 없는 경우 '0'원으로 표시함

체크	유형	(전세)보증금 (예) 1000 만원	월세 (예) 월 40 만원	관리비 (예) 월 4 만원
	① (정부지원) 공공/영구/국민임대주택	만원	만원	만원
	② (정부지원) SH, LH 등 전세임대주택	만원	월 만원	월 만원
	③ 자립지원시설			월 만원
	④ 그룹홈	만원	월 만원	월 만원
	⑤ 일반전세 (반전세 포함)	만원	월 만원	월 만원
	⑥ 보증금이 있는 월세	만원	월 만원	월 만원
	⑦ 보증금이 없는 월세 (사글세·연세)		월 만원	월 만원
	⑧ 자가		월 만원	월 만원
	⑨ 고시원/고시텔	만원	월 만원	월 만원
	⑩ (회사·학교)기숙사	만원	월 만원	월 만원
	⑪ 친구 집 ※ 보증금 : 본인이 부담한 보증금 ※ 월세·관리비 :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금액	만원	월 만원	월 만원
	⑫ 친척 집 ※ 보증금 : 본인이 부담한 보증금 ※ 월세·관리비 :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금액	만원	월 만원	월 만원
	⑬ 부모님이 사는 집 ※ 보증금 : 본인이 부담한 보증금 ※ 월세·관리비 :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금액	만원	월 만원	월 만원
	⑭ 시설 또는 위탁가정			
	⑮ 기타 ()	만원	월 만원	월 만원



38. 귀하가 살고 있는 주거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중복응답가능)

(ex. 아동자립지원단과 민간후원단체가 협력하여 지원했을 시, 두 개 기관 모두 체크함)

- | | |
|---------------------------|----------------|
| ① 정부기관(영구 또는 LH(SH) 임대주택) | ② 자립정착금 |
| ③ CDA(디딤씨앗통장) | ④ 보호 중 발생한 후원금 |
| ⑤ 친부모/친인척이 무상으로 주었거나 빌려줌 | ⑥ 금융기관에서 빌렸음 |
| ⑦ 금융기관 외 지인 등을 통해 빌림 | |
| ⑧ 시설 또는 위탁부모가 개별적으로 마련해줌 | ⑨ 민간후원단체 |
| ⑩ 근로소득 | ⑪ 아동자립지원단 |
| ⑫ 기타 () | |

39. 현재 주거비용 지출이 어느 정도 부담되십니까?

- | | |
|---------------|---------------|
| ①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 ② 거의 부담되지 않는다 |
| ③ 약간 부담이 된다 | ④ 매우 부담이 된다 |

40. 귀하는 재개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까?

※ 초기 집 계약 시, 안내하거나 계약서에 명시하기도 함. 그 외에는 재개발 지역이 아님

- | | |
|-----|-------|
| ① 예 | ② 아니오 |
|-----|-------|

41. 귀하의 주거 위치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 | | | |
|------|-------|------|----------|
| ① 지상 | ② 반지하 | ③ 지하 | ④ 옥상(옥탑) |
|------|-------|------|----------|

42. 현재 살고 있는 주거의 계약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중심으로 작성함

- | | | |
|------------------|---------|------|
| ① 1년 미만 | ② 1년 | ③ 2년 |
| ④ 계약하지 않음(자가 포함) | ⑤ 기타() | |

43.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실제 면적은 얼마 됩니까? 한 가지만 작성해주십시오.

(_____ 평 또는 _____ m²)

44. 현재 살고 있는 주거 구조는 어떻습니까?

구분	개수
① 원룸	
② 원룸 아님	
44-1. 방	개
44-2. 거실	개
44-3. 화장실(목욕시설)	개
44-4. 부엌	개

45. 현재 몇 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과 동거하고 있습니까? (중복응답가능)
(본인포함 총 _____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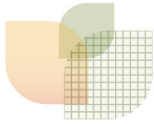
- ① 혼자 살고 있음 ② 부모, 형제 ③ 친인척, 조부모
 ④ 배우자 ⑤ 이성친구(애인) ⑥ 시설선후배
 ⑦ 직장동료 ⑧ 친구 ⑨ 기타 ()

46. 현재 살고 있는 주거상태 및 주거환경을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구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주거상태(방수, 난방, 환기, 방음 상태 등)					
주거환경(시장, 마트, 병원, 공공기관 등 접근용 이성/방법상태, 청결상태 등)					
주거구조(방, 화장실, 거실 등)					
전반적인 주거만족도					

47. 현재 거주지로 이전하기 바로 직전에 살았던 주거유형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영구/공공/국민임대주택 ② LH·SH 등 전세주택
 ③ 자립지원시설 ④ 그룹홈
 ⑤ 일반전세 ⑥ 보증금 있는 월세
 ⑦ 보증금 없는 월세 ⑧ 자가
 ⑨ 고시원 ⑩ (회사·학교)기숙사
 ⑪ 부모님이 사는 집 ⑫ 친구집
 ⑬ 친척집 ⑭ 시설 또는 위탁가정(48번으로 가시오)
 ⑮ 기타 ()



47-1. 직전에 살았던 주거 위치는 어디에 해당했습니까?

- ① 지상 ② 반지하 ③ 지하 ④ 옥상(옥탑)

47-2. 직전에 살았던 주거의 계약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실제 거주했던 기간을 토대로 작성

- ① 1년 미만 ② 1년 ③ 2년 ④ 3년
⑤ 4년 ⑥ 5년 이상 ⑦ 계약하지 않음(해당사항없음)

48. 보호 종결 후 현재까지 거주지를 옮긴 경험은 총 몇 회였습니까?

※ 보호 종결 직후 이사를 1회로 함

-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이상

48-1. 직전 거주지에서 현재 거주지로 옮긴 주된 이유는 무엇이였습니까?

- ① 원가족으로부터 세대 독립 ② 취직 또는 이직을 위해
③ 학업을 위해서 ④ 계약만료
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⑥ 집값, 집세가 너무 비싸고 부담스러워서
⑦ 시설, 설비 등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⑧ 주택규모를 더 늘리기 위해
⑨ 주택규모를 더 줄이기 위해 ⑩ 부모 또는 형제와 가까이 살기 위해
⑪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가기 위해 ⑫ 기타 ()

49. 귀하는 앞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 현실적인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응답

- ① 예 ② 아니오 (50번으로 가시오)

- ① 원가족으로부터 세대 독립 ② 취직 또는 이직을 위해
- ③ 학업을 위해서 ④ 계약만료
- 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 ⑥ 집값, 집세가 너무 비싸고 부담스러워서
- ⑦ 시설, 설비 등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 ⑧ 주택규모를 더 늘리기 위해 ⑨ 주택규모를 더 줄이기 위해
- ⑩ 부모 또는 형제와 가까이 살기 위해
- ⑪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가기 위해
- ⑫ 기타 ()

50. 보호 종결 이후 심이 없어서 노숙을 하거나 일시보호쉼터, 친구집에 일시적으로 머무른 적이 있습니까?

- ① 없음(51번으로 가시오) ② 1회 ③ 2회 ④ 3회 이상

50-1. (경험이 있는 경우) 한 번 머무른 기간이 평균 얼마나 됩니까?

- ① 1주 미만 ② 1주에서 2주 미만 ③ 2주에서 4주 미만
④ 1개월에서 3개월 미만 ⑤ 3개월에서 6개월 미만 ⑥ 6개월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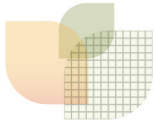
51. 보호 종결 이후 타 기관 또는 시설에 입소한 적이 있습니까?

※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제외

- ① 없음 ② 중장기쉼터 ③ 요양시설
④ 한부모시설 ⑤ 구치소(혹은 교도소) ⑥ 부랑인시설
⑦ 기타()

52. 귀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 ① 필요없음 ② 월세지원 ③ 전세자금 지원
④ 주택 개보수 비용 ⑤ 공공임대주택 ⑥ 이사비용
⑦ 주거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⑧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주거공간
⑨ 기타()



PART 5. 진학현황

■ 다음은 대학진학의 경험이 있거나 재학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53. 귀하는 대학에 진학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취업현황으로 가시오)

53-1. 대학에 진학한 연도는 언제입니까? (년도)

54. 귀하는 대학재학 중 등록금과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중복응답가능)

54-1. 등록금 마련방법 _____

54-2. 생활비 마련방법 _____

〈 보기 〉

- | | | |
|--------------|--------------------------|----------------|
| ① 지방자치단체 지원 | ②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 ③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
| ④ 자립정착금 | ⑤ 시설후원 | ⑥ 금융기관 대출 |
| ⑦ 조부모/친인척 지원 | ⑧ 부모/형제 지원 | ⑨ 아르바이트 |
| ⑩ 학교장학금 | ⑪ 기타() | |

55. 귀하는 대학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56번으로 가시오)

55-1.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 | |
|--------------|---------------------------|
| ① 생활비를 벌기 위해 | ② 등록금을 벌기 위해 |
| ③ 용돈이 부족해서 | ④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 |
| ⑤ 호기심으로 | ⑥ 기타 () |

55-2. 아르바이트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 동안 했습니까?

(1주 약 _____시간)

55-3. 아르바이트를 통해 한 시간에 받는 평균 임금은 얼마였습니까?

(1시간 약 _____ 원)

55-4. 가장 오래 일한 아르바이트의 주된 종류는 무엇이였습니까?

(중복응답가능, 최대 2개)

- | | |
|-----------------------|--------------------------|
| ① 사무업무 | ② PC방, 비디오방, 만화방, 노래방 서빙 |
| ③ 식당, 레스토랑, 카페 서빙 | ④ 옷 가게, 편의점 판매원 |
| ⑤ 신문, 우유, 피자, 음식 등 배달 | ⑥ 전단지 돌리기 |
| ⑦ 물건 포장이나 운반 | ⑧ 건설 현장 노동 |
| ⑨ 주유소 주유원 | ⑩ 아기 또는 노인 돌봄 |
| ⑪ 과외, 학원강사 등 교육 | ⑫ 기타() |

55-5. 귀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 다음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구분	없었다	1-2회	3회 이상
① 고용주로부터 일을 하고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② 고용주는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③ 고용주는 처음에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			
④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			
⑤ 고용주로부터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			
⑥ 고용주로부터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⑦ 고용주로부터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⑧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적이 있다			

55-6. 아르바이트를 하면 학교생활(학업유지)에 얼마만큼의 어려움을 주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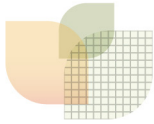
- ① 전혀 어렵지 않다 ② 어렵지 않다 ③ 다소 어렵다
④ 매우 어렵다

55-7.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앞으로의 직업과 자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③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④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56. 대학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PART 6. 취업현황

■ 다음은 취업경험이 있거나 취업준비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문항에서 '취업 중'은 단순 장단기 아르바이트가 아니며, 수입을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지속했거나 그 이상을 지속할 계획이 있는 경우를 말함

57. 현재 취업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취업 준비 중

② 취업 중 (58번으로 가시오)

57-1. 현재 취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① 직업훈련 중

② 자격증 및 어학공부

③ 아르바이트를 하며 경험을 쌓는 중

④ 구직정보를 찾아보고 있음

⑤ 아무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음

⑥ 기타 ()

57-2. 어떤 직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67번으로 가시오)

① 관리직 종사자(입법공무원, 고위직 공무원, 각종 사업장 및 단체의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법률전문가, 컴퓨터 전문가, 건축가, 과학자, 교육전문가, 상담자, 작가 등)

③ 사무 종사자(사무직원, 비서, 집배원, 경리사원, 은행원 등)

④ 서비스 종사자(경찰관, 소방관, 경호원, 간병인, 손톱관리사, 웨딩플래너, 승무원, 주방장 등)

⑤ 판매 종사자(도소매업자, 영업사원, 보험설계사, 판매원, 텔레마케터 등)

⑥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농업, 임업, 어업 근로자, 동물 사육사, 정원사 등)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광부, 목수, 배관원, 정비원, 세공원, 용접공, 수공업근로자 등)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각종 기계 및 장치 조작 담당자, 운전기사, 기관사, 선원 등)

⑨ 단순 노무 종사자(건설, 운송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배달원, 택배원, 경비원, 주유원 등)

⑩ 없음

58. 현재 직장(일)을 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얼마동안 해왔습니까? ____년 ____개월

59.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관리직 종사자(입법공무원, 고위직 공무원, 각종 사업장 및 단체의 관리자)
-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법률전문가, 컴퓨터 전문가, 건축가, 과학자, 교육전문가, 교사, 작가 등)
- ③ 사무 종사자(사무직원, 비서, 집배원, 경리사원, 은행원 등)
- ④ 서비스 종사자(경찰관, 소방관, 경호원, 간병인, 손톱관리사, 웨딩플래너, 승무원, 주방장 등)
- ⑤ 판매 종사자(도소매업자, 영업사원, 보험설계사, 판매원, 텔레마케터 등)
- ⑥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농업, 임업, 어업 근로자, 동물 사육사, 정원사 등)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광부, 목수, 배관원, 정비원, 세공원, 용접공, 수공예 근로자 등)
-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각종 기계 및 장치 조작 담당자, 운전기사, 기관사, 선원 등)
- ⑨ 단순 노무 종사자(건설, 운송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배달원, 택배원, 경비원, 주유원 등)

60. 귀하의 현재 고용형태는 어떻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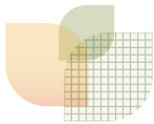
-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61. 귀하의 일에서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 ① 임금근로자
- ②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가족근로자, 고용주(1인기업포함)) (62번으로 가시오)

61-1. 다음 중 해당되는 것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① 상용직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정규 또는 계약직)
- ② 임시직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
- ③ 일용직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62. 현재 직업(일)으로 인해 받고 있는 월평균 소득(세전금액)은 얼마입니까?
월 ()만원

63. 현재 일자리 내 상사 또는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① 매우 좋지 않다 ② 좋지 않다 ③ 좋다 ④ 매우 좋다

64. 현재 직업생활에 대해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습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65. 현재 직업생활을 시작하는데 다른 사람의 소개나 도움이 있었습니까?

- ① 스스로 고용사이트 등을 통해 알아봄
② 가족 또는 친인척, 조부모
③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
④ 선후배
⑤ 기타 ()

66. 귀하는 현재 이직 또는 직업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67번으로 가시오)

66-1. 어떤 이유로 이직 또는 직업전환을 하고자 합니까?

- ① 적성에 맞지 않아서(다른 직종으로 이직)
② 근로 환경이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
③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학력이 필요해서)
④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자격증 취득)
⑤ 더 나은 보수를 위해
⑥ 직장상사 또는 직장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해
⑦ 계약만료(계약기간 연장의 어려움)
⑧ 기타()

67. 보호 종결 이후 현재까지 이직하거나 실직한 경험이 몇 번 있습니까?

- ① 없음 (68번으로 가시오) ② 1회
③ 2회 ④ 3회 이상

67-1. 어떤 이유로 이직하거나 실직하셨습니까?

- ① 적성에 맞지 않아서(다른 직종으로 이직)
② 근로 환경이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
③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학력이 필요해서)
④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자격증 취득)
⑤ 더 나은 보수를 위해
⑥ 직장상사 또는 직장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해
⑦ 계약만료(계약기간 연장의 어려움)
⑧ 기타()

68. 취업을 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① 취업정보가 부족하여 ② 적성을 잘 몰라서
③ 직종 관련 경험이 부족해서 ④ 근로 환경이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
⑤ 학력, 기술, 자격이 부족해서 ⑥ 보수가 안 맞아서
⑦ 외모 또는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서 ⑧ 기타 ()



■ 다음은 소득 등 경제상황에 대한 조사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을 시에 '0'원으로 기재함

72. 지난 1년간 귀하의 월평균 생활비를 항목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해당사항 없을 시에 '0'원으로 기재함

226

쉽고 편한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

복지신청은 **복지로**
부정신고도 **복지로**



www.bokjiro.go.kr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발행일 2016년 12월 23일

발행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91 센트럴프라자 7층
전화번호 1522-1823 팩스 02-715-4636
홈페이지 <http://jarip.kohi.or.kr>
대표메일 jarip@kohi.or.kr

인쇄/편집 케이에스센세이션 044-867-3538

ISBN 978-89-94870-08-3

©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비매품



ISBN 978-89-94870-08-3

(04320)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91 센트럴프라자 7층 아동자립지원단
대표전화 | 02-715-4634~5 팩스 | 02-715-4636 이메일 | jarip@kohi.or.kr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